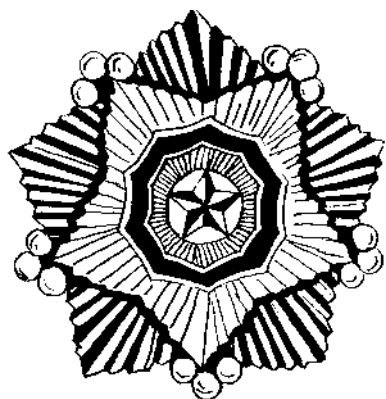


5

주체98(2009)

문학예술출판사



#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98(2009)년 제5호

(루계 제739호)

## ~~~~~ 차례 ~~~~~

오늘도 울려오는 불멸의 총성(시초) ..... 오상철, 박상철, 오인섭, 조정식, 김길성, 박룡철, 서봉제 (3)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 (6)

☆혁명전설☆ 《우등불우물》과 신기한 이야기 ..... (7)

그날 그 새벽을 잊지 못해(시) ..... 김 봉 윤(8)

**주체문학의 대강** ..... (9)

□혁명일화□ 평범한 날의 즐거운 이야기 ..... (9)

령도자와 작가 **하나의 장편소설이 훌륭한 교과서로 되기까지** ..... 리 순 철(10)

총대례찬(시) ..... 김 형 준(18)

그 소식 들을 때면(가사) ..... 조 영 일(8)

보통강(시) ..... 박 세 일(12)

평양의 명산—룡악산(탐승기) ..... 김 련 실(13)

○찬란한 문화, 슬기로운 인민○ 룡악산의 법운암 ..... (15)

룡악산은 멋이로세(가사) ..... 김 웅 회(15)

비약의 폭풍시대를 선도하는 충진군의 나팔소리(평론) ..... 전 이 련(16)

수 영원한 대답 ..... 리 성 식(20)

필 한껏 아름다와지라 ..... 변 창 료(24)

은혜로운 태양의 품속에서 창작된 리용악의 시들(소개) ..... 문 학 민(22)

나도 참전자라오(시) ..... 안 명 애(21)

평론 **아홉살 꽃망울향기에 대한 감동깊은 형상** ..... 백 진 향(41)

**생활에 대한 진실한 반영과 정서적여운** ..... 김 순 림(60)

강선의 사나이들 정말 멋있어(가사) ..... 김 성 희(59)

대학에서(단시초) ..... 류 명 호(63)

어머니편지(가사) ..... 김 철 혁(67)

진달래처녀(가사) ..... 박 상 민(67)

**일심단결은 우리의 위대한 대고조력사의 기본추동  
력이며 수령과 인민이 하나로 뭉친 힘은 핵무기보다  
더 위력하다.**

—공동사설에서—

원산청년발전소 현지특집작품

단편  
소설

**뜨거운 심장들** ..... 조 인 영(25)

**그가 바란것은** ..... 김 동 호(33)

**산중호수풍경** ..... 오 재 신(30)

**내가 아는 너인** ..... 유 영 하(30)

○ **하늘이 내린 호수** ..... 박 성 일(31)

**굴뚝없는 마을** ..... 오 정 로(31)

**불빛에 대한 생각** ..... 주 경(31)

시 **아는가** ..... 김 정 곤(32)

**자갈을 임니다** ..... 강 승 계(32)

**축복** ..... 함 영 주(11)

○ **빈집** ..... 송 명 근(21)

**천막친구들** ..... 하 영 수(40)

**아들을 떠나보내며** ..... 신 동 식(59)

단편  
소설

**조국** ..... 리 호 인(64)

**젖은 흙** ..... 량 정 수(45)

**머나먼 외진 곳에서** (중국) ..... 온아군, 김기범 역(68)

고전소설의 독특한 양식인 몽유록소설(소개) ..... 정 은 경(73)

해방전 진보적문예평론가 한식(자료) ..... 김 청 송(76)

중세소설가 외우의 창작적개성(자료) ..... 최 준 희(78)

체제르스, 안나(외국작가소개) ..... (75)

안타까워서 부른 노래(작가일화) ..... (14)

아버지와의 대결(세계작가일화) ..... (79)

**경구, 격언** ..... (29) **상식** ..... (72), (77), (80)

**일, 노력** (조선속담) ..... (30) **수수께끼** ..... (63)

소식 **전국가시문학현상모집요강** ..... (44)

표지2면; 《래일을 믿으라》(노래)

표지3면; 《정신력의 근본핵은 수령결사옹위!》(선전화)

시 초

## 오늘도 울려오는 불멸의 총성

### 총대로 안고 가리

오 상 철

너무도 가벼이 나뭇겨 왔었구나  
너무도 쉽게만 쳐들고 왔었구나

청봉, 건창... 삼지연...  
일흔해전 투사들의 그 자욱따라  
붉은기를 날려온 답사대오의 기수로  
내 총대앞에 나서기에는

무심한 한줄기 바람결에도  
선렬들의 더운 땀이 고삐치는 땅  
왜적의 정수리에 벼락을 치던  
멸적의 총검을 모아세운 여기

총대탑이어  
안도에서 추켜든 네가 없었더라면  
소왕청의 붉은기가 필력일수 있었으랴  
고난의 행군길을 헤쳐온 그 기치가  
홍단벌을 불태우며 휘날릴수 있었으랴

노예의 쇠사슬을 짓부신 총대  
인민의 새세상을 지켜낸 총대  
백두의 티없이 푸른 하늘을  
끄떡없이 떠받든 저 총대가 있어

일흔해째 세월의 이기는 두터워도  
홍단벌은 해를 따라 더더욱 붉고  
붉은기 날리는 답사대오는  
세기를 이으며 흐르는것 아니더냐

선렬들이 넘겨준 운명의 총대  
수령님 유산인 백두의 저 총대를  
우리 장군님 높이 들지 않았다면  
붉은 기폭은 찢어져 치욕에 젖었으리  
부러진 기대는 자본의 손에서  
노예를 길들이는 몽둥이로 변했으리

오, 무산지구전투승리기념탑이어  
백두의 대지를 주춧돌 삼아  
총대로 붉은기를 끝까지 수호해갈  
조선의 의지를 떠올린 기념비여

억만년 녹쓸지 않을 저 총대를  
위대한 장군님 안겨주시는  
붉은기 기대로 틀어잡고 가리라  
선군승리의 영원한 표대로!

### 부름처럼 구경처럼

—진격의 나팔수앞에서—

박 상 철

눈보라  
꺾주림  
뼈를 어이는 강추위  
겹겹이 막아나선 총검의 숲

차라리 쓰러짐이 편했으리라  
생눈을 움킬 힘마저 진해버려  
이국의 하늘마저 흐려울 때

일어나라  
신음하는 조국이 기다린다  
꿈속처럼  
귀전을 두드리던 나팔소리

아들을 기다리는  
어머니의 부름인가

구원을 바라는  
겨레의 웨침인가

고난의 행군길 앞장서 헤치시며  
한흙의 미시가루도 나누시던  
사령관동지의 그 부름소리여

거인처럼 총대를  
다잡으며 일떠섰다  
심장에 불을 달고  
대오는 나아갔다

장백의 눈보라를  
길들이던 나팔소리  
총검의 숲 불태우던  
진격의 나팔소리

퇴성처럼  
홍단벌에 불벼락을 터치던  
백두산호랑이 노호소리여  
오늘도 노래처럼  
삼지연못가에 랑랑하구나

그 정신 잃지 말라고  
그날처럼 메아리쳐 강산을 흔드누나  
우러러 뚫음치는 천만의 심장들을  
강성대국건설대전의 참전자로 불러세우는  
오, 선군령장의  
부름처럼  
구령처럼

## 5호물동의 랑시

오 인 섭

장군님 등에 업혀  
5호물동을 건느던 나어린 투사  
아직도 조국땅 천리 먼줄 알았는데  
문득 들려오는 갈리신 음성  
—이 강이 압록강이란다

순간 나어린 투사는 몸부림쳤네  
내려와달라고 장군님께 졸랐네  
스치는 바람결도 조국의 강바람  
비릿한 물냄새마저도  
그립던 어머니의 젖향기인데야

뛰어들어 흠뻑 몸을 적시고싶었네  
산설고 물설은 이역의 하늘아래야  
작은 몸 담아줄 고향인들 있었던가  
안아주고 키워주신 그 품이 삶의 고향

오, 사향이 울리던 숙영의 밤들에  
장백의 줄기줄기 더운 피로 물들이며  
한치한치 조국으로 다가오던 나날들에  
꿈결에도 건너보던 내 나라의 강

이 물길 따라서 때목은 흐르리  
굽이굽이 2천리 흘러내리면  
그립던 만경대도 지척에 보이리라

아 해방의 종소리  
이 물결에 실려 실려  
삼천리를 얼싸안을 그날을 그리며  
총을 잡고 성큼 뛰어내렸네  
장군님 등에 업혀 조국땅에 들어선 투사  
조국진군의 큰결을 내짚었네

## 감무경비도로를 걸으며

조 정 식

점점이 피어웃는 연분홍진달래  
향기에 취해걸는 산보길이 아니다  
이끼오른 바위에 잠시 기대여앉아  
쉬어서 가도 좋을 등산길도 아니다

내 오늘 투사들처럼  
청봉의 흙 한줌 배낭에 간직하고  
빨찌산의 싸움길 다시 걷노라니  
눈앞에 어려오는 진격의 대오  
귀전에 우렁찬 발구름소리

간악한 일제의 경비도로를  
대낮에 꿰지리라 명령하시고  
몸소 기관총 드시고 앞장에 서시였던  
우리 수령님 모습도 뵈을듯

오직 총대만이  
자비를 모르는 격멸의 총대만이  
쌓이고쌓인 겨레의 한을 풀고  
숨져가는 조국을 살릴수 있었기에

—조국을 위해 총을 든 우리  
원썬을 피해 에둘수 없다  
막아서면 단숨에 쓸어버리리  
무자비한 불벼락을 들쩍우리라!

백두산장군의 서슬푸른 기상앞에  
어느놈이 대적해 나서라  
어느놈이 감히 앞길을 막아서라

총대를 높이 들고 원썬들을 쳐갈기며  
이처럼 걸어온 승리의 감무경비도로  
천리던가 만리던가  
세월을 넘어 세기를 이어  
더욱더 거세지는 조선의 공격정신  
백두산위인들의 강철의 담력은  
저기 철령의 령길에도 이어져있다  
선군혁명천만리에 빛나고있다

하거니 우리 오늘에 어찌  
순간인들 발걸음 늦출수 있으랴

우리 장군님 총대를 높이 들어 가리키시는  
강성대국대문이 지척에 있거늘

폭풍쳐나가자

진격의 갑무경비도로  
백두의 령장들이 세기를 이어 열어나가시는  
승리의 지름길  
선군조선의 영원한 공격로로!

## 그날의 그 모습

— 항일혁명투사 김세옥동지의 반신상앞에서 —

김길성

끝없이 이어지는 답사대오와 함께  
여기 대흥단벌 옛 전장에 오니  
스물네살 열혈투사의 모습  
우리를 말없이 세워주누나

어깨에 축축한 새벽이슬은  
수령님 안녕을 지켜 새우던  
그밤의 이슬인듯

70년세월의 푸른 이끼 덮인  
탄우, 불길이 타래치던  
그날의 격전장을 바라보며  
오늘도 빨찌산 김대장의 명령 받아안고  
일제격멸의 불벼락 쏟아붓던  
격전장을 그려보는것인가

항일전의 전우들 주작봉마루에서  
혁명의 수뇌부를 지켜섰건만  
어이하여 애젊은 투사만은  
교대없는 영원한 초병이 되어  
항일의 옛 전장을 묵묵히 지켜섰는가

혁명의 위대한 태양을  
가까이에서 받드는 사람만이 행복하랴  
멀리 떨어져있어도

온넛을 다 바치고 량심을 바쳐  
혁명의 수령을 변함없이 지켜선  
그날의 빨찌산초병

인생은 짧게 살아도  
혁명앞에 조국앞에 겨레앞에  
떳떳한 차렷자세로 변함없이 서야 함을  
소중히 새겨안게 하는  
백두의 그 시절에 서있는 모습이여

70년세월이 흐른 오늘에도  
결사옹위의 그 정신 안고  
백두의 령장 위대한 수령님을 그리며  
철쭉꽃은 예대로  
그날처럼 옛 싸움터에 피어나누나

아 불멸의 총대탑너머  
평양하늘 우리러  
장군님 안녕만을 바라는 투사의 마음에는  
멀고 가까움이 없음을  
천만군민의 심장에 진리로 새겨주며  
투사는 서있구나  
붉은기 날리는 대오에  
강성대국 총진군의 앞장에

## 5호물동진달래

박 룡 철

송이송이 천만송이  
떨기떨기 천만떨기  
5호물동가에 피여 웃는  
연분홍진달래야

내 나라 금수강산  
아름다운 산천에  
소담하게 뿌리내려  
너 것처럼 고우나

향기향기 짙은 향기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연분홍저고리 그 색깔 어려

너 그리도 예쁘나

투사들 그리웁던 조국진군의 그날  
반겨맞는 겨레의 얼굴갈아  
북받치는 감격 뜨거운 눈물로  
아름아름 껴안고 두볼 비빈 꽃이어서

아 우리 수령님  
조국의 진달래 연분홍진달래라  
볼수록 아름답다 불러주신 꽃이어서  
더욱 아름다워진 꽃

꽃이라도 연분홍 네가 이뻐



##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 속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다음과 같이 쓰시었다.

《역사적인 조국광복회창립대회는 5월초하루날부터 시작되었다. 꽃은 만발하지 못하였지만 만산에는 봄빛이 질었다.

회합을 앞두고 대표들은 모두다 걱정과 흥분으로 설레이었다.

통칭하여 동강회의라고 부르는 그 회의는 15일간이나 진행되었다.》

《나는 참가자들의 총의에 따라 조국광복회창립대회에서 이 조직의 회장으로 취임하였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투쟁력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상설적인 반일민족통일전선체가 탄생하였다.》

《1936년 5월 백두산북쪽기슭에서의 조국광복회의 탄생은 조선혁명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조국광복의 밝은 서광을 안아온 역사적사변으로 되었다. 조선혁명의 보다 창창한 새날은 이렇게 백두산기슭에서부터 밝아오기 시작하였다.》

너를 보는 내 마음도 깨끗해지는가  
순결한 량심으로 조국을 받드는  
내 마음에 지지 않는 꽃

아, 5호물동진달래  
조국을 위해 피와 땀 아끼지 않고  
한목숨 다 바친 투사들의 넋을  
영원한 세월에 속삭이는 아름다운 꽃이어

## 번 개 를 회 감 아

서 봉 제

고요는 깊고  
정적은 깊으나  
여기선 새벽안개도  
그날의 총성을 메아리로 신고온다

내 밟고 선 땅  
아직도 불을 품어 뜨거운듯싶다  
푸르른 저 하늘  
아직도 화염이 타래치는듯싶다

여기 항일의 옛 전장  
무산지구 대홍단의 격전터  
70년세월의 흐름속에  
그날의 애슬나무 아름답리 되었건만  
옛 싸움의 흔적 덮을수 없었구나

너무도 시련 많고 처절했던  
고난의 행군을 넘어선 빨찌산대오  
백설우에 붉은피 많이도 뿌리며  
걸음걸음 다져온 복수의 장악을  
대홍단벌에서 터친 그날의 총성

일제의 피물은 총칼아래  
숨소리마저 꺼져가던 조국땅에  
민족재생의 빛을 안겨주시려  
만고절세의 애국가  
**김일성**장군님 쏘아부으신

그날의 불벼락이어

나라를 강탈하고 집을 불사르고  
이름과 글마저 없애버리려  
야수처럼 미쳐날뛰던 침략자 일제를  
죽음의 수령창속에 처박으며  
일제아성의 주춧돌을 뒤흔들어놓은  
불멸의 총소리

피바다에 잠긴 강토  
원한품고 쓰러진 겨레를 부르며  
결사각오로 추켜든 총대  
그 총대에 맞설자 그 어데 있었으랴

민족을 구원하신 해방의 은인  
우리 수령님 밀림의 광야에서  
걸음걸음 짙어오신 총대의 그 진리  
백두산 후손들에게 깊이 새겨주시려  
백두의 천출명장 위대한 장군님  
총대로 탑신을 높이 일떠세우신  
무산지구전투승리기념탑

아, 백두령장의 신념으로 솟고  
백두의 의지로 빛나는  
불멸의 탑아래 무성하는 총대숲  
제국주의침략자 원수들의 머리우에  
억만총창은 섬섬한 번개를 안고 번뜩인다

## 《우등불우물》과 신기한 이야기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령도하신 수십성상에 걸치는 항일혁명투쟁의 전로정은 그대로 전설같은 이야기들로 수놓아져있다.

주체29(1940)년 2월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친솔하시고 두만강연안 국경지대로 진출하시던 나날에 있는 일이다.

그해따라 눈이 많이 내려 행군은 첫날부터 간고하였다.

추위는 갈수록 더해만 지고 눈은 깊어만 갔다.

사위는 온통 눈보라친지였다. 눈이 적게 쌓인 데라야 허리를 쳤다.

백두산기슭의 모든 산판과 골짜기들은 온통 눈에 묻혀 하얀 별판으로 변하였고 키높이 자란 나무들로 꽉 들어찬 울창한 수림도 마치 다박술처럼 보이었다.

매향 추위에 아릅드리나무들이 얼어터지는 소리는 낮과 밤이 따로없이 온 산판에 쨍쨍 메아리쳤다.

눈속을 헤치며 행군하기란 여간 힘들지 않았다.

며칠째 행군을 계속하던 어느날 밤이었다.

우등불을 중심으로 빙 둘러앉아 몸을 녹이던 대원들은 어느덧 쪽잠에 들었다.

밤은 소리없이 깊어갔다.

한 신입대원이 몸이 추워서 쪽잠에서 깨었다. 그런데 그렇게 활활 타던 우등불은 온데간데 없었다. 몸을 일으켜 주위를 살피던 신입대원이 갑자기 《아니, 이런 일 봤나!》하고 소리쳤다. 그 소리에 놀란 대원들이 잠결에 적정이라도 생겼는가 하여 벌떡벌떡 일어났다. 한길이 넘게 우물처럼 녹아내려간 밀바닥에서 우등불이 타오르고있었던것이다.

신입대원들은 놀라운 눈길로 《우물》속에서 타오르는 우등불을 들여다보며 신기하게 여기었다.

이때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놀라움을 금치 못해하는 신입대원들을 둘러보시며 이것이 바로 《우등불우물》이라고, 이 《우등불우물》은 지금 우리가 벌리고있는 항일무장투쟁이 얼마나 간고하고 어려운가를 그대로 말해주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잠시 동안을 두시였던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런 놀라운 일은 겨울에만 있는것이 아니라고, 여름에는 여름대로 신기한 이야기들이 있다고 하시면서 한해전 조국진군시기에 있는 하나의 사실에 대하여 이야기해주시였다.

그때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는 적들을 무자비하게 족쳐대며 압록강연안으로 행군해가고있었다.

5월말경이면 그렇게 더운 계절은 아니었지만 발목이 푹푹 빠지는 락엽을 밟으며 울창한 천고의 수림속을 헤쳐나가기란 여간 힘겨운 일이 아니었다.

이런 악조건을 이겨내며 압록강을 가까이하던 주력부대는 이깎나무, 분비, 가문비나무들이 꽉 들어찬 수림속에서 땀을 들이며 휴식하게 되었다.

어떤 대원들은 군복단추를 열어제끼고 앞자락을 저으며 땀을 들이기도 하고 어떤 대원들은 그 자리에 누워 피로를 풀기도 하였다.

누워서 아릅드리나무를 올려다보던 한 대원이 벌떡 일어나앉으며 《동무들! 저 높은 나무가지에 무엇이 걸렸는가 보오.》하고 소리치는것이였다. 나무우를 올려다보니 부러진 가지끝에 짙신이 매달려있는것이였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였다. 어떤 대원들은 위낙 백두산에는 하도 신기한게 많으니 수리개같은 큰 새가 몰어다 걸어놓았을것이라느니, 팔힘이 센 사냥군이 기적적으로 올려던져 매달았을것이라느니 하고 제나름대로 한마디씩 하며 자기 주장을 우겨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어느 하나도 리치에 맞지 않았다.

바로 이러한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대원들에게 그런게 아니라 유격대원이 발로 걸어놓았소라고 말씀하시였다. 대원들은 의아함을 금치 못해하였다.

일은 이렇게 되었던것이다. 그 전해에도 백두산 일대에는 눈이 많이 내린데다 눈보라까지 몰아쳐 어떤 곳에는 큰 나무들도 우듬지들만 남겨놓고 모두 눈속에 묻히고말았다.

이렇게 쌓인 눈으로 적을 달고 행군하던 소부대의 한 대원이 해진 짙신을 신고 행군하다가 그만 나무가지에 짙신을 꿰웠던것이다. 그 대원은 짙신을 나무가지에 건채 발을 뺏고 그 자리에서 예비신발을 갈아신고 행군을 계속하였다. 그런데 눈이 다 녹아내리니 짙신 한짝이 나무가지에 매달리게 된것이다. 대원들은 모두 신기하여 혀를 끌끌 차며 웅성거리였다. ...

《우등불우물》과 아릅드리나무가지에 매달린 짙신, 이것은 항일무장투쟁이 얼마나 간고하였는가를 그대로 말해주는 증견물이며 오늘도 전해지는 전설같은 이야기이다.



# 그날 그 새벽을 잊지 못해

김 봉 운

동구밖 저 멀리  
젖빛안개속에 울려오는 시내물소리  
뜨락에선 첫 화를 치는  
살오른 닭들의 날개짓소리

모이쫓는 병아리들 발아래 맴돌고  
마당 가득 어미닭들 새벽맞이 분주한데  
할머니는 생각깊은 눈길로  
저 멀리 뻗어간 고개길만 바라보네

이런 새벽이면  
가슴에 젖어드는 뜨거운 추억  
수령님 모시였던  
전화의 날 그 새벽이여

밤도 없이 전선길 달리시던 수령님  
폭격에 불타버린 마을길에 서시여  
새벽이슬에 옷자락 적시시며  
이 집 뜨락도 오래도록 거니시며  
타다남은 닭장도 아프게 바라보신 그날 그 새벽

산높고 골깊은  
외진 마을 따로 있었으나  
미제의 폭격에 불타지 않은 마을이  
산기슭에서 풀뜬던 송아지 한마리에도  
그처럼 악독하게 폭탄을 퍼부은  
미제살인구들

오, 수령님 마음속엔 아프게 안겨왔다  
이 나라 농촌이면 울려야 할 새벽닭울음소리  
소의양간 덕대우에서도 울리던 그 소리  
새벽을 알리던 향촌의 메아리대신  
화염내 풍기는 산골마을이...

수령님눈가엔 푸른 섬팡이 번쩍이셨다  
남쪽하늘을 향해

금시 번개를 날리실듯  
떠나셨다 령님어 포연서린 전선으로—  
이 마을만이 아닌  
이 땅 어디서나 닭울음소리 울리게 하시려고  
미제의 미친 불바람 다 몰아내고  
인민의 웃음 꽃피는 그날을 위해

밤도 없이 새벽에 이어  
전선길 이어가신 어버이수령님  
현신의 그 자욱을 따라  
이 땅에 전승의 아침은 밝아오고  
인민의 행복이 꽃피었으니

오늘도 못 잊는 그날 그 새벽  
할머니는 날마다 추억하고  
풍성하게 들어가는 생활의 웃음속에  
수령님 그리는 마음 더더욱 간절해  
첫새벽이면 마당가에 서서  
동구밖으로 이어진 고개길에  
오래도록 세워보는 뜨거운 마음

그날 그 새벽처럼  
우리 장군님 이어가시는 전선길이 있어  
평화로이 화를 치는 닭들의 음향은  
그 어떤 폭음에도 흔들리지 않고  
인민의 행복이 지켜지기에

아들딸 손주들까지  
총잡고 서있는 초소에 마음세우고  
우리 장군님 날마다 찾으시는 방선을 찾아  
어제에 이어 오늘도 래일도  
원군의 길 서두르는 할머니 마음속엔  
첫닭이 화를 치는 소리는 뜨거운 추억과 함께  
새벽길 떠미는 신호나팔소리인듯  
드바쁜 하루일과엔 변함이 없어라

-----

가  
사  
그  
소  
식  
들  
을  
조  
영  
일  
때  
면

새날이 밝을 때면 기다리는 소식이 있네  
환희로이 받아안은 장군님소식이 있네  
마음속에 해가 솟는 기쁨의 그 소식은  
초소마다 웅맹의 억센 나래 펼쳐주네  
아 그 소식 들을 때면  
우리 가슴 명절처럼 설레인다네  
날마다 시간마다 기다리는 소식이 있네  
감격속에 받아안은 장군님소식이 있네  
우리 앞날 밝혀주는 행복의 그 소식은

일터마다 기적의 세찬 봉화 지펴주네  
아 그 소식 들을 때면  
우리 가슴 명절처럼 설레인다네  
내 나라 대가정에 빛을 주는 장군님소식  
천만자식 기쁨의 노래되어 울려가네  
우리 삶을 빛내주는 영광의 그 소식은  
이 땅우에 영원한 행복의 소식이라네  
아 그 소식 들을 때면  
우리 가슴 명절처럼 설레인다네

## || 주 체 문 학 의 대 강 ||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으로작 《주체문학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시문학의 서정성을 높이자면 시인의 개성적인 얼굴을 뚜렷이 드러내는것이 필요하다.

서정은 본성에 있어서 구체적이며 섬세한 생활정서인것만큼 고유한 특성을 띠기마련이다. 시의 서정은 다른 종류의 문학예술작품에서 나타나는 서정과 구별된다. 시의 서정은 시인자신의 정서를 직접 표현하는 주정이다. 시에서는 서정적주인공으로 나타나는 시인의 남다른 얼굴이 직접 표현된다. 시에서 시인의 얼굴이 엿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벌써 창작에서 실패를 의미한다. 시에서는 서정적주인공의 모습이 뚜렷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이 대신할수 없는 독특한 정서세계가 펼쳐져야 한다.》

### 혁명일화

## 평범한 날의 즐거운 이야기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주체90(2001)년 늦은봄 어느날 인민군대의 한 중대를 찾으시였을 때의 일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동행한 일군들과 함께 중대의 여러곳을 돌아보시고 식당쪽으로 걸음을 옮기시며 아카시아꽃이 만발한 주변을 만족한 시선으로 둘러보시였다.

갓가지 나무들이 울창한 수림속에 자리잡은 중대의 주변 산자드락에는 아카시아나무들이 꽃을 활짝 피워 진한 향기를 풍기고있었다.

그 향기를 깊이 들이마시시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아카시아꽃향기가 진하다고, 정말 기분이 좋다고 즐거이 말씀하시였다.

나무들이 많아서 좋다고 중대지휘관들과 이야기를 나누시며 어느새 실개울에 놓은 자그마한 다리를 건느실 때였다.

그이께서는 길옆에 있는 휘늘어진 버드나무가지에 달아놓은 새둥지를 보시고 다들 저걸 보라고, 정말 잘 만들었다고 하시면서 우리 병사들이 정말 애국심이 높다고 치하의 말씀을 해주시였다.

이때 가까이에 있는 집집승우리에서 염소, 계사니들의 울음소리가 귀전에 들려왔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번에는 집집승들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그쪽으로 시선을 돌리시였다.

저기 축사가 있다고, 빨리 가보라고 기쁨에 넘치시여 하시는 장군님의 말씀에 일군들이 식당을 먼저 보신 다음에 집집승우리에 안내해드리려고

했다고 말씀드리였다.

그러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아니라고 손을 저으시며 축사부터 보라고, 저것들이 날 찾는것 같다고 즐겁게 웃으시며 말씀하시였다.

그이의 소탈하시고 흥에 넘치신 말씀에 동행하던 일군들과 중대지휘관들이 하하... 하고 웃음보를 터뜨리였다.

정말 즐거운 순간이였다.

어느새 집집승우리입구에 이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중대집집승마리수와 그 사양관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며 연방 머리를 끄덕이시였다.

그리고 중대장에게 염소젖을 군인들에게 짜먹이는가고 다정히 물어주시고 먹인다는 그의 대답에 장군님께서 팬찮다고, 중대가 살림살이를 깐지고 알뜰하게 잘한다고 만족을 표시하시며 중대장의 어깨를 다정히 두드리주시였다.

이날 보시는것마다에서 병사들의 애국심이 넘쳐나고 병사살림에 기쁨기가 흐르는것을 느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무척 기쁘시여 쌓였던 시름이 다 풀리는것 같다고 시종일관 환하게 웃으시였다.

정녕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시찰의 수많은 날들중의 어느 하루인 이날이야말로 전사들의 행복과 기쁨에서 무한한 행복감을 느끼시는 장군님의 병사들에 대한 크나큰 아버지사랑을 다시금 가슴뜨겁게 받아안은 잊혀지지 않을 날이였다.

## 하나의 장편소설이 훌륭한 교과서로 되기까지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한없이 자애로운 품에 안겨 작가로서, 인간으로서 자기 생의 참된 삶을 빛내인 작가들중에는 강효순도 있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숭고한 형상을 창조하는것은 우리 인민과 세계혁명적인민의 절절한 념원이며 최대의 희망이다.》

사람들은 수령형상작품을 통하여 위대한 위인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알게 되고 스스로 그 위대한 품모에 매혹되어 따라배우게 된다.

여기에 수령형상창조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친 한 아동문학작가에 대한 이야기도 있다.

주체60(1971)년 12월 어느날,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사업하고있던 강효순은 어느 한 나라에 대한 방문준비정형을 보고하기 위하여 당중앙위원회 청사의 한 방에 들어서게 되였다.

순간 강효순은 크게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뜻밖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 작가를 따듯이 맞이해주시는것이였다.

작가가 미처 인사도 올리기 전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강효순선생이 오셨다고 하시며 열정에 넘치시여 작가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였다.

몸소 강효순을 자신의 곁으로 이끄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머리에 흰서리가 내리기 시작한 그를 정깊은 시선으로 여겨보시였다. 그를 바라보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안팎에는 작가가 창작한 인상깊은 소설과 동화, 우화들을 되새기시는듯 한 깊은 감회가 어려있었다.

잠시후 위대한 장군님께서 자애에 넘치신 음성으로 작가의 창작활동과 생활에 대하여 따듯이 보살펴주시였다.

위인은 위인만이 품기는 고유한 인격적향기가 있다.

이날 길지 않은 대화를 통하여 주체문학의 밝은 앞길을 열어주시며 그 길에 서야 할 문필가들의 자세에 대하여 명료하게 밝혀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은 작가를 몹시 격동시키였다.

주체4(1915)년 황해남도 안악군 봉성리의 머슴군가정에서 태어나 해방전부터 문학창작을 꿈꾸었

지만 그것을 실현할수 없어 몸부림치던 작가가 조국의 해방과 함께 어버이수령님의 품에 안겨 첫 장편소설을 발표하였을 때의 끝없는 기쁨이 금시 되살아나는듯 하였다.

강효순의 남다른 문학적재능을 헤아리시고 그를 작가대렬에 당당히 세워주시신분은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조국해방전쟁이 끝난 후 작품창작을 지망하는 그의 심정을 헤아리시여 다른 부문에서 사업하던 그를 작가대렬에 세워주시고 그에게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아동문학과 위원장사업까지 맡겨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전후복구건설시기 혁명의 중하를 한몸에 걸머지신 것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작가를 비롯한 수많은 문필가들을 만나시여 문학창작의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시며 좋은 글들을 쓰도록 뜨겁게 고무해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을 만나뵈오며 수령님의 천출 위인상에 매혹될수록 또 그이의 현명한 평도를 받으며 끝없이 전진하는 조국의 모습을 볼수록 그리고 자기에게 주실수 있는 온갖 사랑을 다 안겨주시며 자만할세라 친히 곁에 부르시여 당의 작가, 인민의 작가로서의 고상한 품성을 소유하도록 귀중한 당부도 해주실수록 작가는 우리 수령님의 형상을 창조하여 온 세상에 자랑하고싶은 강렬한 충동에 사로잡히였다.

언제나 어버이수령님을 끝없이 흠모하고 일생을 수정같이 맑은 샘처럼 살려는 작가의 깨끗한 량심을 지니였기에 그는 용약 붓을 들어 1960년대 중엽 우리 나라 아동문학력사에서 처음으로 수령님의 창덕학교시절을 생동하게 형상한 장편소설 《노을 비끼 만경봉》을 성과적으로 창작하여 내놓을수 있었다.

일찌기 위대한 장군님께서 인류사상 처음으로 수령형상창조리론을 체계화하시고 수령형상창조를 근본책으로 하는 주체문학건설의 위대한 력사를 창조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1960년대 말 수령형상창조를 우리 문학의 지상의 과업으로 제시하시고 작가들이 이 책임적인 사업을 훌륭히 맡아 수행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항일혁명투쟁시기의 위대한 수령님을 형상한 장

편 소설들이 편이어서 창작되고있던 그때 우리 장군님께서서는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도 혁명적 수령관을 깊이 심어주시려는 높은 뜻에서부터 수령님의 어린시절을 형상한 소설창작에도 커다란 관심을 돌려주시었다. 하기에 작가는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이 있었기에 1970년대 초엽 아버지수령님의 탄생기념일을 맞으며 장편소설 《배움의 천리길》을 훌륭히 창작하여 세상에 내놓을수 있었다.

참으로 아동소설과 동화, 우화들로 아이들의 기억에 평범하게 자리잡았을 한 아동작가의 이름이 우리 장군님에 의해 위대한 수령의 형상과 더불어 세상에 뚜렷이 남게 되었다.

후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강효순을 만나시었던 때를 감회깊이 추억하시며 그의 소설에 대하여 장편소설 《배움의 천리길》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팔도구를 떠나 천리길을 걸으시어 만경대로 나오시는 로정과 창덕학교에서 공부하시던 시기의 이야기, 조국을 광복할 큰 뜻을 품고 압록강을 다시 건느실 때까지의 생활을 전면적으로 깊이있게 형상한 작품이라고, 《배움의 천리길》은 위대한 수령님의 어린시절의 한 시기를 그린 작품이지만 청소년학생들에게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의

뿌리를 똑똑히 인식시키며 그들을 수령님의 참된 혁명전사로 키우는데서 훌륭한 교과서로 된다고 뜻깊게 말씀하시었다.

훌륭한 교과서! 이 얼마나 작가의 작품을 높이 평가하신 말씀이신가.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정도와 따뜻한 사랑이 있어 작가는 그후에 편이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 《소년표류자들》을 소설로 옮긴 장편소설 《열다섯소년에 대한 이야기》도 내놓을 수 있었다.

주체76(1987)년 4월 14일,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작가가 창작완성한 장편소설 《배움의 천리길》과 《열다섯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친히 보아주시면서 인연깊은 그를 감회깊이 회억하시었다.

정녕 언제나 우리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끝없이 흠모하고 더 좋은 수령형상작품을 내놓기 위해 애쓴 아동문학작가 강효순.

그는 지금 우리곁에 없다. 하지만 그는 오늘도 위대한 장군님의 추억속에 살아있기에 그의 작가적 삶은 영원한것이다.

리 순 철

## 추

## 복

### 함 영 주

서해로 흐르던 강줄기를  
동해로 돌려세워  
불야성을 펼친 밤바다기슭을  
돌격대원 처녀총각 나란히 거니네

맞들이도 함께 들고 달리고  
닭은 강냉이 한줌도 서로 나누며  
발전소건설의 나날  
정도 깊어진 이네들  
불빛도 반겨 물우에 떠올라 꼬리치네

진창길도 함께 헤쳐온 그 발자욱을  
부드러운 모래불에 함께 새기며  
약속이나 한듯 두손모아  
휘뿌려보는 물방울, 물방울...

아 밤하늘의 추억만 별무리보다  
더 황홀한 거리의 저 불빛들  
만년언제를 쌓던 나날  
우리들이 흘린 구슬땀은 아닌가

밤파도가 안길듯 달려오네  
불빛들이 마주보며 웃음짓네  
솔바람이 웃기를 쓰다듬네  
황홀경에 취할수만 없어...

아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큰결음도 함께 떼며  
군민발전소 새 전투장으로  
또다시 떠나갈 청춘남녀를  
밤바다가 설레이며 축복하네  
불빛들이 따라서며 축복하네

# 보 통 강

## 박 세 일

보통강

너의 호안정리로

흠뻑 땀흘린 금요일의 이 저녁

내 선뜻 너를 떠날수가 없구나

고백하건대 나의 출생지는

보통강구역 운하동

내 인생은 이렇게 첫 시작부터

너와 남다른 인연 맺었나니

하면서도 내 아직 너에게

시 한편 바친적 없어

내 먼저 용서를 빌며

거울같은 너의 수면위에

나의 반생을 비쳐보련다

너는 기억하겠지

내 성장의 동반자인

썰매에 몸을 실어

스케이트에 희망을 실어

너의 은반위를 썩썩 줄달음치던

어제날의 이 소년을

기억하겠지

랑만이 출렁이는 물결위에 등실 뜬

사랑의 뱃트에 처녀와 함께 올라

행복의 저 기슭을 향해

노를 저어가던 이 제대병사를

그 시절의 나인듯

보아라 오늘은 나의 아들이

보통강기슭 빙상관에서

속도빙상의 주로를 달리는구나

그 시절의 안해인듯

지금은 내 딸이 보통강변

인민문화궁전 무대에 올라

노래경연 독창을 하는구나

다시 보자

비단필을 늘인듯 파아란 물결위에

두폭의 그림같은 랑쪽기슭에

인민의 웃음 떨기떨기 꽃피우는

락원의 강이여 행복의 강이여

나라없던 그 세월엔

크지 않은 비에도 물란리를 겪으며

감탕물탕 다 뒤집어쓰고

눈물과 한숨만을 쏟아내던

재난의 강이여 불행의 강이여

비참한 그 정상 너무도 가슴아파

해방된 이듬해 그 5월 만사를 제끼시고

여기에 나오신 백두산위인들

애국의 뜻으로

보통강개수공사

착공의 첫삽 뜨신것 아니냐

그 첫삽에 실려

너의 온갖 재난의 화근이

이 세상밖으로 휘뿌려지고

그 첫삽에 받들려 너의 기슭엔

창조의 기념비들 번쩍이나니

백두산위인들 잡으셨던

그날의 첫삽을

오늘은 내가 받아 틀어쥐고

옥류인듯 청류인듯

너의 흐름 변함없이 맑게 하리라

환희로운 시의 운물을 엮어

너의 전변을 노래하리라

아 보통강

그 이름 비록 소박하고 평범하여도

절세의 애국자 백두산위인들

조국애의 젖줄기되어

인민사랑의 생명수되어

력사의 한복판을 굽이쳐 흐르리라

## 평양의 명산－룡악산

김련실

평양교외의 서쪽으로 바라보노라면 광복거리를 디디고 우뚝 솟은듯 한 룡악산이 한눈에 안겨온다.

만경봉, 모란봉, 대성산을 비롯한 평양에는 참으로 명산, 명승들도 많아 그 아름다움에서도 비길데없는 세계적인 도시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평양에는 대동강이나 모란봉만이 아니라 대성산과 창광산, 룡악산, 문수봉 같은 아름다운 명승지가 많습니다.》

꽤 오래전의 일이지만 시내 어느 한 학교에서 교편을 잡고있던 나는 학생들을 데리고 《만경대소년단야영소》에서 야영을 한적이 있었다. 그때 나는 매일과 같이 룡악산 명소들을 찾곤 하였다.

그러나 그후로는 온 나라의 여러곳을 다니며 취재와 창작으로 드바쁜 나날속에 집에서도 멀지 않은 이 명산을 찾아 하루라도 즐기고싶은 마음은 항상 아쉬움으로 남아있었다.

그런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선군령도의 그 바쁘신 시간을 내시여 한겨울의 찬바람을 맞으시며 또다시 룡악산을 찾으시고 인민의 웃음 넘친 명승지로 더 잘 꾸려주시기 위하여 크나큰 로고를 바치셨다는 보도를 접한 나는 서둘러 룡악산을 찾았다.

거대한 룡이 하늘로 날아오르는듯 한 기묘한 모습으로 솟아있다고 하여 그 이름 룡악산이라 한다는 평양의 명산, 여기에 백두산3대장군들의 숭고한 발자취가 어려있고 인민을 위한 크나큰 은정이 깃들어있어 그 이름 더더욱 빛나고 찾아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창덕학교시절에 동무들과 함께 룡악산에 자주 오르시여 애국의 뜻과 장수힘을 키우시였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해방후 어느 날 룡악산대봉에까지 오르시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구상하신 새 조국 건설방침과 교외의 유원지건설 전망을 하루빨리 실현하도록 일군들을 뜨겁게 고무해주시였다.

바로 이런 뜻깊은 사적들이 아로새겨져있는 룡악산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또다시 찾아주신것은 대한을 앞둔 날이었다.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끼기 위한 우리 인민의 힘찬 대진군을 진두에서 이끌어주시며 인민군

부대들을 현지시찰하시고 돌아오시는 그 길로 인민의 문화휴식터로 꾸려진 룡악산을 더욱 빛내여 주시려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겹쌓인 피로도 푸시지 못하시고 이곳을 찾으시였다.

온갖 꽃들이 피어나는 따뜻한 봄날과 물소리, 새소리 유정한 여름날의 함승이며 단풍드는 신성한 가을날의 기쁨은 인민들에게 주시고 대한을 앞둔 한겨울의 찬바람을 맞으시며 룡악산을 선군시대 평양의 명산으로 더 훌륭히 꾸려주시려고 바치신 그 헌신의 자욱자욱을 따라걸는 나의 마음속엔 뜨거운 걱정이 밀물처럼 차올랐다.

혁명사적터들인 최뿌리캐신 곳, 땡천터, 유희터, 샘터, 삼각지점, 말바위터, 바위등판, 대봉, 문바위터, 중간휴식터 등 새롭게 꾸려진 명소들마다 백두산장군들을 모시였던 그날의 감격을 뜨겁게 전하고있었다.

혁명선렬들의 고귀한 넋이 어린 수십여그루의 구호나무들이며 우리 선조들의 재능이 깃든 력사문화유적들에 깃든 흥미있는 전설들로 하여 찾아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한껏 부풀게 한다.

실로 하나의 바위, 한그루의 나무도 무심히 보고 스칠수 없는 룡악산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세심한 가르치심과 은정속에 나날이 변모되고 새로운 모습으로 일신되고있었다.

삼룡골의 룡못에는 이름그대로 세마리의 룡에 대한 전설도 전해지고있다. 룡이란 비늘이 떨어지면 하늘로 날아오르지 못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 못에 내려와 놀던 세마리의 룡은 룡악산의 아름다운 경치에 반하여 시간가는줄도 모르고있다가 비늘이 다 떨어지는 바람에 승천하지 못했다는것이다. 과연 그런 전설이 나올만도 하다.

하늘을 향해 솟아오른 룡악산의 정점인 대봉의 기이한 모습이며 록음우거진 한여름의 수려한 경개속에 울리는 맑은 물소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걸음걸음 붙잡는다. 이름조차 다 모를 향기질은 꽃들과 가을이면 온산이 단풍으로 붉게 물드는 광경이 그야말로 장관인 룡악산은 사시절철 신비한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명산이라고 하여 《평양의 금강산》으로 부르는것이다.

룡악산에는 식물들만 하여도 600여종이나 자란다. 그중에서 누리장나무, 보리수나무며 느티나무, 상수리나무들은 우리 나라에서 해당속에 한종밖에 없는 희귀한 나무들이다.

깎아지른듯 한 절벽아래 본전과 라한전, 산신



각, 칠성각이 자리잡고있는 법운암주변의 키높이 자라오른 느티나무, 참중나무, 향오동나무, 회화나무는 우리 나라의 귀중한 천연기념물이다.

임진왜란때 서산대사의 호소에 호응하여 세명의 중이 법운암을 떠나 전장으로 나가면서 기어이 왜적들을 죽치고 나라를 지키려는 의지를 담아 심었다는 세그루의 은행나무가 오늘도 그날의 사연을 전하고있었다.

룡에 대한 전설을 안고있는 룡못의 주변에는 학이며 거북이의 잔등에 올라 《룡궁》으로 들어가는 토끼의 조각도 있어 저절로 웃음을 짓게 한다.

숲속의 여기저기 새로 일떠세운 아담한 정각이며 야외식사터들, 대봉으로 뻗어오른 잘 포장된 참판도로...

정녕 경애하는 장군님의 뜨거운 인민사랑으로 나날이 변모되고 변모되는 룡악산의 나무 한그루, 바위 하나도 그 은정을 가슴뜨겁게 새겨주고있다.

참판도로를 따라 대봉의 송덕정휴식터에 오르자면 115개나 되는 가파로운 계단을 올라야 한다.

그 계단을 한단한단 밟고 오르자니 저절로 가슴이 뭉클해지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한겨울의 찬바람이 세찬 그날 우리 장군님께서서는 이곳을 찾게 될 인민들을 생각하시며 이 계단을 오르시였다고 생각하니 바치신 그 로고에 눈굽이 찢어듯이 젖어들었다.

합각지붕이 건듯 들리운 송덕정에 올라 바라보니 웅장화려한 평양의 모습과 강성대국을 향하여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열풍을 일으키며 비약하는 조국의 모습이 한눈에 안겨왔다.

가슴이 탁 열리고 벅찬 환희와 새로운 열정의 숨결로 한껏 부푸는 마음을 진정할수 없어 나는 오래도록 송덕정에 서있었다.

우리 인민의 행복과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애국헌신의 선군장정으로 이 땅우에는 사회주의선경이 펼쳐지고 룡악산도 나날이 자기의 모습을 새롭게 일신하며 선군시대의 또 하나의 명산으로 높이 솟아 나를 하늘높이 받들어 올린것만 같았다.

## 작가일화

# 안타까워서 부른 노래

고려 중기의 문인이었던 정서(12세기)는 모함을 당하여 고향으로 쫓겨가있으면서 《정과정》을 지었다.

님생각에 웃길을  
적시지 않는 날 없네  
봄산에 슬피 우는 두견새야  
내 신세 너와 같구나

묻지 마소 사람들이아  
거짓인지 아닌지를  
이 마음 오로지  
쫓각달과 새별만이 알아주리

일화는 그 사실을 이렇게 담고있다.

정서가 벼슬살이를 할 때 조정안에는 그와 의사가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 인종이 죽고 그의 아들 의종이 왕위에 오른 기회를 타서 정함, 김존중 등이 정서가 새 왕의 동생 왕경을 왕으로 내세우려 했다고 들고나왔다. 일이 이렇게 되자 정서는 억울한 루명을 쓰고 궁지에 몰리게 되었다. 의종왕은 정서가 그런것을 할 인물이 못되는줄 알고있었지만 정서를 처벌해야 한다는 조정내의 론의가 일어나자 더는 정서를 그대로 뒤흔들수 없어 고향인 동래로 내려보내게 되었던것이다.

의종은 떠나가는 정서를 조용히 만난 자리에

서 그를 위안도 할겸 자신의 심정도 토로하면서 짤막하게 한마디 하였다.

《오늘 그대가 가는 걸음은 조정의 공론에 압박되어 할수 없어서 취한 일이니 멀지 않아 소환될것이다.》

왕은 무책임한 소리를 한마디 하였지만 물에 빠진자의 처지에 떨어진 정서에게는 이 말이 천근무게로 안겨왔다.

정서는 왕이 설마 거짓말이야 하겠는가 하는 믿음으로 자기의 서글픈 심정을 달래면서 동래에서 소환령이 떨어지기를 애타게 기다렸다. 오랜 시일이 지났으나 소환령은 떨어지지 않았다. 속았구나 하는 허망한 생각, 그래도 혹시 하는 허황한 기대, 억울하고 한스러운 자기의 처지에 대한 번민으로 정서의 마음은 착잡하기 이를데 없었다.

정서는 가야금을 타면서 자기의 이러한 서글픈 심정을 노래로 불렀다. 노래는 처량하였다.

이때 정서는 한자시를 지어서 읊은것이 아니라 우리 말 노래를 지어서 불렀다. 이 노래가 《정과정》이었다.

《정과정》은 사상적내용에서 제한성이 있으나 신의없는 왕에 대한 원망, 조정관료들의 부당한 처사의 세력다툼에 대한 비난의 감정을 깔고있는것으로 하여 사람들이 기억하게 되었고 문학사에도 고려국어가요의 하나로 올라 후세에 알려지게 되었다.

## 통악산의 법운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민족적 금지와 자부심은 자기 조국과 자기 인민에 대한 끝없는 사랑에 기초하고있는 숭고한 사상감정이며 거기에서 핵을 이루는것은 자기 당과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지난 1월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대소한의 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평양시에 자리잡고있는 통악산 유원지를 현지지도해주시였다.

산봉우리가 마치 통이 금시 하늘로 날아오르려 는것 같이 기묘하게 생겼다고 하여 예로부터 통악산이라고 부르는 이곳은 경치의 아름다움으로 하여 《평양의 금강산》이라고도 일러오고 있다.

유구한 역사를 가진 통악산, 이곳을 우리 건설자들과 지원자들이 선군시대에 들어와 더 새롭게, 웅장하게 꾸려놓음으로써 이번에 또다시 위대한 장군님께 크나큰 기쁨을 드릴수 있었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통악산은 산도 아름답지만 일만경치를 다 볼수 있어 더 좋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건설자들과 지원자들이 통악산을 인민의 유원지로 훌륭히 꾸린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이번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현지지도해주신 통악산에는 우리 선조들의 창조적지혜와 재능을 자랑하는 법운암이라는 절도 자리잡고있다.

법운암은 고구려시기에 처음 세우고 리조시기에 고쳐지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일찌기 이 유적을 찾으시여 절간을 원상대로 보수해서 인민들이 보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교시하시였다.

절간을 고구려때에 세웠다는것은 법운암비문이나 그밖의 역사기록외에도 그 밑단을 쌓은 돌을

정교하게 다듬은 수법이 고구려성돌과 꼭 같으며 그리고 이 근처에서 고구려의 수기와 막새들이 발견된것을 통하여서도 알수 있다.

우선 법운암의 본전은 높은 밑단위에 세운 정면 5칸(10.27m), 측면 3칸(6.2m)으로 되었는데 2익공두공을 엮은 14개의 흘림기둥이 합각지붕을 높이 떠받들고있다. 집안에는 마루방과 온돌방이 있다. 제공은 짧은 편이며 두공구조는 매우 섬세하고 또 세련되어있다.

또한 깎아지른듯 한 높은 벼랑을 배경으로 본전과 라한전, 산신각, 칠성각, 승방 등 다섯채의 건물로 이루어진 법운암은 통악산의 지형조건에 알맞게 잘 배치되어있다.

그리고 법운암은 특이하게 정면과 측면의 앞쪽 한간은 겹처마에 2익공바깥도리식으로 하고 나머지 측면 뒤쪽 2칸과 후면을 홀처마에 단익공 주도리식으로 하였다. 이로 하여 정면에는 화반을 놓고 후면에는 화반을 놓지 않았다.

대들보밑에는 초엽을 달아 보기에다 좋고 튼튼하게도 하였다.

우리 민족의 자랑인 법운암은 우리 선조들의 뛰어난 재능이 깃들어있는 귀중한 민족문화유산으로서 오늘날도 우리 당의 문화보존정책에 의해 나라의 국보로 잘 보존관리되고있다.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으로 오늘 통악산은 인민의 유원지로 훌륭히 꾸려졌으며 원상대로 보수된 법운암에는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찾아와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즐겁게 보내고있다.

우리는 숭고한 조국애를 안고 앞으로도 선조들이 이룩하여놓은 역사유적유물들을 잘 보존관리하여나가야 할것이다.

박 영 호

가 사

## 통악산은 멋이로세

김 응 회

인민의 유원지로 꽃피난 통악산  
선군의 이 세월에 높이도 솟았구나  
만경대고향집을 지척에 둔 산이어서  
통이 날아올랐다는 그 전설도 뜻이 깊네  
아 통악산 통악산은 멋이로세

어린시절 수령님 장수힘 키우시며  
오르내린 기암절벽 볼수록 장관일세  
대봉에 올라서니 한품에 안겨드는

우리 평양 그 모습이 천하제일 선경일세  
아 통악산 통악산은 멋이로세

인민의 기쁨 넘친 그 모습 그리시며  
장군님 오르시여 안아보신 일만경치  
락원의 이 강산에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 평양 자랑으로 더더욱 빛나리라  
아 통악산 통악산은 멋이로세

# 비약의 폭풍시대를 선도하는 총진군의 나팔소리

—가요 《폭풍쳐달리자 강성대국 향하여》의 가사형상을 두고—

전 이 련

강성대국건설의 힘찬 진군길에 들어선 천만 군민의 가슴마다에 강선의 뚝을 쇠물을 통채로 떠 안겨주고 새 세기의 령마루에 올라선 총진군대오의 발걸음마다에 새로운 천리마의 거세찬 나래를 달아주는 한편의 위력한 노래가 온 강산을 울리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시문학은 눈부시게 발전하는 현실을 민감하게 반영하여야 하며 시대를 선도하는 투쟁의 기치로 되어야 한다.》

가사 《폭풍쳐달리자 강성대국 향하여》(허일작)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펴주신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의 불길드높이 강성대국건설의 총공격전에서 대비약, 대혁신을 일으켜 조국번영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나가는 오늘의 격동하는 시대의 숨결과 정신을 가장 민감하고도 기백있게, 정론적으로 반영하고있는것으로 하여 비약의 폭풍시대를 선도하는 강위력한 고무적기치로 되고있다.

혁명투쟁의 첫 시기부터 시는 전장에 울리는 북소리나 진군의 나팔소리외에도 같이 만사람의 심장을 격동시키는 전투적무기로 되어왔고 천만자루의 창검을 대신할수 있는 투쟁의 기치로 되어왔다.

가요의 가사는 우리 조국이 강성대국의 문을 활짝 열고 승리의 만세를 부르자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며 투쟁해야 하는가 하는 시대적문제를 안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펴주신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의 불길드높이 전체 조선인민이 위대한 조선의 정신력으로 혁명과 건설에서 일대 비약의 폭풍을 일으켜나가야 한다는것을 심오한 사상정서로 무게있게 밝히고있다.

가사는 격변하는 오늘의 시대를 가장 민감하게 반영하는데서 강성대국의 문어구에 들어선 천만군민의 힘찬 투쟁을 선도하는 위력한 고무적기치, 투쟁의 기치로 되고있다.

그야말로 이 가요의 가사는 올해를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해로 빛내일데 대한 우리 당의 투쟁강령과 호소를 가장 민감하게 반영하였으며 그것을 고도로 집약하여 통속적이면서도 정론적으로, 호소적으로 노래한 총진군의 나팔소리외에도 같다. 가사가 거둔 성과는 바로 여기에 있다.

1. 천리마나래친 강선이 앞장섰다  
총진군대오가 발맞춰 따라섰다

(후렴)

장군님 지펴주신 대고조불길도 드높이  
폭풍쳐달리자 강성대국 향하여

...

가사의 1절에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령도의 길우에서 천리마의 고향 강선땅에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이 타오르고있으며 총진군대오의 앞장에 선 강선의 뒤를 따라 온 나라가 따라서고있는 오늘의 시대적흐름을 격동적으로 노래하고있다.

천리마나래친 강선이 또다시 붉은기대오의 맨 앞장에 섰다. 돌이켜보면 50여년전 눈내리던 12월의 강선땅에서 이제 강재 1만톤만 더 있으면 나라가 허리를 펴수 있다 하시며 천리마의 봉화를 지펴주신 어버이수령님의 그날의 절절하신 음성이 귀전에 그대로 들리는듯싶다. 우리 수령님의 호소를 받들고 6만톤의 분괴압연기에서 12만톤의 강재를 밀어낸 상상을 초월하는 눈부신 기적이 솟구쳤던 천리마의 고향—강선땅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있으며 또 잊지 못하고있다.

하다면 그 강선땅이 어떻게 되어 21세기 강성대국을 마중가는 력사의 분수령에서 또다시 진군의 맨 앞장에 설수 있었는가!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0돐이 되는 주체101(2012)년까지 강성대국의 대문을 기어 이 활짝 열어놓을 웅대한 목표를 내걸었다.

이제 불과 몇년밖에 없다. 과연 이 짧은 기간에 우리 조국이 강성대국의 문패를 달자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스스로가 정한 투쟁목표를 두고 우리는 그 방도를 생각하지 않을수 없다. 그 방도는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에 있다. 그것은 바로 비약의 폭풍을 일으켜 남들이 백걸음 걸은것을 한걸음에 뛰어넘는 력사의 기적을 창조해나가는데 있다.

그러자면 바로 전후 천리마대고조의 그때처럼 다시한번 비상한 정신력을 발휘하여 일떠서야 한다.

강선의 천리마를 타고 또다시 높이높이 날아야 한다.

하기에 우리 장군님 지난해 뜻깊은 12월 24일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를 찾으시여 강선이 뚫어야 온 나라가 뚫고 강선이 소리치며 내달려야 온 나라의 발걸음이 빨라질수 있다 하시며 새로운 혁명적대

고조의 불길을 지퍼주신것이다.

부글부글 끓기 시작한 조국의 벅찬 현실!

그 거세찬 투쟁속에서 조국은 어떻게 달라지고 있으며 또 달라질것인가!

## 2. 창조와 건설도 이 땅이 들썩하게 과학과 기술도 세상이 들썩하게 (후렴)

2절에서는 당이 부르는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부름따라 일떠선 총진군대오의 힘찬 투쟁으로 눈부시게 변모되어가는 조국의 휘황찬란한 현실들을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랑만적인 서정으로 노래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이 있기에 우리는 세계를 놀래우는 기적으로 강성대국을 건설하고있으며 또 하루빨리 앞당길수 있다는 확신과 담력, 충천한 투쟁기세가 격조높이 구가되였다.

이 땅을 들썩하게, 온 세상을 들썩하게 들었다 놓는 창조와 변혁의 힘찬 소식들이 귀전에 들려오고 이 땅의 곳곳에서 무수히, 폭발적으로 일떠서는 현대적인 과학기술에 의거한 위대한 창조물들의 모습이 눈앞에 안겨든다. 새로 일떠선 원산청년발전소와 그리고 금성프락토르공장,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와 김책제철련합기업소, 홍남비료련합기업소 등에서의 혁신적인 투쟁성과!

우리가 해나가는 창조와 건설은 그저 평범하고 보통스러운것이 아니다. 세계가 깜짝 놀라 경탄하여 바라보는 그토록 놀랍고도 거대한, 가속적인 창조와 건설인것이다.

과학과 기술발전도 최첨단의 절정에서 세상을 들썩하게 통장훈을 불러가는데는 오늘의 현실이다.

강선의 초고전력전기기로의 힘찬 동음이 온 나라, 온 세상에 메아리쳐가며 선군조선의 위용과 슬기를 누리에 떨치고있다.

가요의 가사에서는 강선에서 타오른 새로운 대고조의 봉화를 심장마다 받아안고 강선의 본때로 일터와 초소마다에서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나가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는 강렬한 호소를 확정적이면서도 긍지높은 서정으로 펼쳐주었다.

가사의 3절에서는 1절과 2절에서 축적된 감정을 더욱 승화시켜 조선의 위대한 정신력으로 강성대국의 문패를 이 땅우에 하루빨리 달기 위해 변영의 전성기 승리로 빛내갈 투철한 신념과 의지를 절절하게 노래하였다.

## 3. 조선의 정신력 총대와 함께 펼쳐 변영의 전성기 승리로 빛내간다 (후렴)

우리에게는 무궁무진한 불패의 힘, 우리 장군님 안겨주신 백절불굴의 위대한 정신력이 있다.

혁명적군인정신의 위대한 용광로속에서 강계

정신이 창조되고 라남의 열풍이 휘몰아쳤으며 성강의 봉화가 타올랐다.

그 정신력의 위대한 력사들을 더듬으며 우리는 자력강생의 위대한 전통을 계승한 강선땅의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더더욱 새삼스럽게 받아안게 된다. 가요의 가사에서는 바로 이런 조선의 정신력을 총대와 함께 펼쳐 강성대국변영의 전성기를 힘차게 열어나아가야 한다는것, 그것이 바로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기 위해 돌진하는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근본담보이며 또 그 정신력으로 기어이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어제껴야 한다는것을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의 분출로 서정화하였다.

가사는 매개 절의 내용을 집약적이면서도 논리적으로 체계성있게 전개함으로써 서정구조에서의 독특한 짜임을 보장하였다.

가요의 가사는 1절과 2절에서 강성대국을 향하여 우리 당이 지퍼준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은 어디서 어떻게 지퍼지고 타번지고있는가 하는것을 노래하였다면 3절에서는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일으켜나가는데서 밀천으로, 근본방도로 되는 내용을 밝혀줌으로써 가사의 주제사상적해명에 지향될수 있는 보다 명백하고 뚜렷한 서정구조를 이룰수 있게 하였다.

가사는 또한 정책가요의 가사로서의 특성에 맞는 언어표현들을 잘 살려씀으로써 그 예술적형상을 높은 수준에서 펼쳐보이고있다.

가사의 제목에서 볼수 있는것처럼 《폭풍쳐달리자》의 표현은 매우 정론적이면서도 호소성이 강하다. 강한 추김과 명령조로 된 이 표현은 그대로 새로운 천리마의 나래를 펼쳐주는 힘찬 채찍소리 와도 같은 박력과 기백을 안겨주고있다.

뿐만아니라 1절에서 《앞장섰다》, 《따라섰다》와 같이 과거형으로 표현된 언어형상은 총진군운동의 벅찬 현실을 강렬한 호소와 확신에 찬 서정으로 노래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고있으며 2절에서 쓰인 《들썩하게》의 표현 역시 가슴벅찬 오늘의 시대적호름과 숨결을 통속적으로 노래하는데서 매우 효과적으로 리용되였다.

가사의 예술적형상은 또한 행진곡조의 호소성이 강한 가사형식에 맞는 운물조성을 깊이있게 탐구하고있는것이다.

가사는 3·3조, 3·4조의 음수율로써 기백있고 약동적인 운물을 보장하고있으며 대구법, 되풀이법과 같은 표현수법도 유용하게 쓰고있다.

전후 천리마대고조시기에는 《천리마선구자의 노래》가 위대한 천리마시대를 이끌었다면 오늘에는 이 가사가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진군나팔소리로 총진군대오앞에 힘차게 울리고있다.

초소와 일터 그 어디에서나 울려퍼지는 이 노래와 더불어 강성대국을 향하여 폭풍쳐달리는 내조국의 발걸음은 더욱 빨라질것이며 노래와 함께 최후승리의 앞날은 바야흐로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 총 대 제 찬

—무산지구전투승리기념탑앞에서 부르는 노래—

김 형 준

아침이면...

백두산정에 솟아오른 태양이  
수령님을 보위하여 한밤 지샘 총에게  
감사의 첫 해발 비쳐주면  
수령님의 모습 그 해발에 실어  
강토삼천리 끝까지 비쳐주는 총

저녁이면...

백두산정의 찬란한 별들이  
수령님 옷자락에 어리광치며  
새날이 밝을 때까지  
조국의 안녕을 위해  
순간의 안식도 모르던  
무산지구전투승리기념탑 총대여

낮이나 밤이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순간 한치도  
수령님결을 떠남이 없이  
백두대지를 초석으로 삼고  
번개와 우뢰를 벗삼아  
만리창공에 우뚝 솟은  
총, 너는 선군조선의 모습

너의 총가목은

승리와 영광만을 년륜으로 새긴  
천년 자란 백두의 박달나무  
너의 총창은  
순간에 만리를 닫는  
백두의 번개에 달구고  
백두의 눈보라에 버리어  
백두의 천지에 썩 썩어 추켜든  
멸적의 푸른 번개

너의 총성은 백두의 퇴성벽력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  
인간의 삶과 죽음의 철학...  
세기를 두고 풀지 못한 숙제를  
우리 너의 명쾌한 총성으로 해답을 주었다  
—총대를 사랑하면 영원한 삶!

총대를 버리면 영원한 죽음!

인류의 공통언어로 된 백두의 총성  
인류의 좌우명으로 된 백두의 총성

총대여

너의 넓은 선군  
너의 성격은 진리  
불의에는 죽음을  
정의에는 사랑을  
세계에는 평화를  
인류에는 자유를  
때문에 이 나라의 천만군민은  
너를 배반을 모르는 혁명동지로 사랑하거니

너의 생명은 영원무궁

네가 안겨자란 품은  
만경대의 총대가문  
총대, 너의 진정한 첫 주인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총대, 너를 가장 사랑하는 영원한 주인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너는 평화수호의 상징

너의 총창의 끝은 예리하지만  
그우에 반석으로 받들리어  
우리 조국은 영원토록 무궁번영하고  
총대를 굳게 틀어준 우리 혁명은  
혁명의 길에서 탈선을 모르리

너는 만능창조의 상징

너를 떠난 창조물  
너를 떠난 행복과 미래는 없다  
총대바람 산기슭다락발에 불면  
대평야가 펼쳐져 오곡은 설레고  
총대를 강기슭 천막가에 세우면  
그 총대 사납던 강에 빗장을 질러  
언제라는 산악아래 바다를 펼친다

총대 너는 사랑과 힘과 아름다움의 모든것!  
이 나라 아이들은 너를 좋아한다

잠잘 때에도 장난감총을 쥐고자면  
하늘의 별도 골라뵙는 꿈만을 꾸고  
아름다움의 절정도  
끝모를 힘의 원천도 총 너에게 있어  
총메고 배낭진 이 나라 병사들 모두 선남선녀  
조국을 떠넌 그 어깨에 네가 있기에  
너의 힘 너의 모습 그리도 빛나거니

때문에 때문에 이 나라 젊은이들  
사랑의 첫 인연 너와 맺는다  
그러면 남녀청춘들의 사랑은  
행복의 천만년으로 이어지고  
총대가 보증한 그들의 사랑은  
총대마냥 끝나 꼭절을 모르고  
총알같은 날과 달로  
생활의 목표에 행복의 《우》를 새긴다

너는 가식을 모른다  
너의 가장 진실한 벗은  
손에 총탁פות이 박히고  
몸에 총기름내 배인 사람  
아, 죽어도 총을 베고 죽는 사람  
보라 대성산혁명렬사릉에는  
영생하는 투사들의 령혼을 지켜  
총대가 있나니  
혁명과 선군과 총은 하나의 운명

총에 낫과 정이 없다고 말하지 말라  
아! 신비로운 총의 세계여  
그것은 우리 장군님 주신 세계  
애젊은이 어깨에 총을 얹으면  
헌헌장부로 존경받고  
로병의 어깨에 총대가 없어지면  
애젊은 병사가 되어  
장령도 병사도 지배인도 노동자도  
한전호속 동지가 되는 총

그렇다  
부모가 준 생은 끝이 있어도  
운명을 총과 함께 한 생은 끝이 없거니  
60나이에 바늘귀는 흐려져도  
조문조성에 맞춘 파력은 편차없고  
비단치녀의 섬약한 손도 총대를 들면  
힘한 산벼랑도 복나들듯 하고  
원췌의 숨통 실끓듯 하는 총대

황금덩이로 갈아놓은 길엔

잡초가 뿌리내려 노란 꽃을 피워도  
총대로 열어난 혁명의 길엔  
삶은 꽃피여... 행복은 무르익고  
총대로 지켜가는 내 나라의 하늘은  
해도 달도 별도 지지 않는  
영원한 맑은 하늘이거니

항일혁명의 그날부터 시작된  
선군혁명의 천만리에  
수령님과 장군님을 위하여  
흔들림 모르는 총대여!  
세월의 눈비에 더 억세여지고  
세기의 광풍에 더 세련된 총대여!

내 무슨 말과 글로 더 례찬하랴  
내 옷깃 경건히 여미고  
백두령장께  
백두의 꽃 다발로 엮어 삼가 드리노라  
그 꽃도 백두령장의 총대가 피워준것!  
내 백두령장께  
감사의 노래 삼가 드리노라  
그 노래도 백두령장의 총에서 시작된 노래!

아, 강성대국으로 가는 그 길은  
총대로 이정표를 세우고  
총대와 함께 가는 길  
강성대국의 문패도  
총대로 새기고  
총대로 높이 받들어세워야 하거니

세기의 언덕에 우뚝 솟은  
선군조선의 총대탑이여  
백두령장의 슬기로  
너의 총창은 서슬푸르고  
백두령장의 담력으로  
너의 총탄은 만장탄되고  
백두령장의 숨결로  
세계를 호홉하며 세계를 굽어보는  
세상에 오직 하나인 승리의 탑

오  
총대로 혁명의 승리를 펼쳐온  
불멸의 총대 네가 있어  
이 땅엔 평화와 행복이 있고  
누리에 빛나는 존엄있어  
조선은 총대와 함께  
이 행성의 북판에 우뚝 솟아있도다!



## 영 원 한 대 답

리 성 식

대답.

대답이란 무엇이며 그 대답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물음을 제기하고보니 새삼스러운 느낌이 든다. 하지만 나에게는 우리 선군시대 사람들의 대답에 대한 립장과 자세라 할가 어쨌든 오늘날의 대답에 대한 새롭고도 심각한 생각을 갖게 된 계기가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현지지도하신 락원기계련합기업소 산소분리기공장을 찾았을 때의 나의 감정은 류달랐다.

공장은 들끓고있었다.

협동생산품들을 가득 싣고 줄지어 밀려드는 화물자동차들, 각종 각이한 규격의 철판과 철근을 현장으로 실어나르는 소형운반차들, 웃음과 희열이 넘치는 얼굴로 바삐 오가는 작업복차림의 사람들, 방송차에서 울려나오는 힘찬 행진곡소리...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신 과업, 대형산소분리기생산을 위해 온 공장이 떨쳐나선것이였다.

나는 장군님께서 다녀가신 산소분리기의 심장인 열교환기를 제작하는 열교환기직장부터 들렀다.

각이한 두께와 넓이의 늪판을 일정한 규격으로 절단해 쌓는 주름판제작기기대공들, 유연한 동작으로 철판이들을 순식간에 여러가지 모양새로 빚어놓는 채판프레스공들, 슛쿵— 슛쿵— 호함진 소음을 내며 거쿨진 몸통을 기백있게 움직이는 진공납땜로에 부지런히 일감을 먹여대는 기대공들...

희한하고도 놀라운 이 작업광경속에는 노동자들 속에 있는 작업복차림의 지배인도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을 몸가까이 모신데 대해 내가 축하의 인사말을 하자 지배인은 감격에 젖은 목소리로 대답하였다.

《정말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영광이고 행복이였습니다. 글썽 그날 장군님께서 우리 공장을 찾아주시길 줄이야...》

그의 말은 사실이였다.

그 누구인들 우리 장군님께서 그날 락원땅에 오실줄을 꿈엔들 생각이나 했으랴. ... 바로 하루 전날 그이께서 먼 동해북변의 홍남땅을 찾으신 소식이 신문과 방송을 통해 알려졌기때문이었다.

바로 그날 홍남비료련합기업소에서 비료생산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키기 위해 새로 건설하는 가스암모니아가스화공정을 돌아보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대형산소분리기가 절실히 필요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바로 그 문제를 푸시기 위하여 하루만에 천리강행군을 하시여 락원기계련합기업소 산소분리기공장을 찾아오신것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산소분리기공장의 현장을 돌아보신 후 대형산소분리기를 생산할 영예로운 과업을 락원의 로동계급에게 주시였고 그 관철을 위한 방향과 방도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으며 필요한 국가적대책도 취해주시였다.

공장을 떠나시며 장군님께서서는 자력갱생의 전통을 가진 락원의 로동계급을 믿고 간다는 크나큰 믿음과 신임의 말씀을 하시였다.

그때 공장일군들은 힘차게 대답올렸다.

《위대한 장군님,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꼭 해내겠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떠나가신 다음날 대형산소분리기생산을 위한 공장종업원들의 쫓기모임이 열렸다. 온 공장 아니, 온 락원땅이 떨쳐나섰다.

《나한테 더 많은 일감을 주십시오!》하는 웨침소리가 현장 여기저기서 울려나왔다.

장군님께서 공장을 다녀가신지 얼마 안되어 벌써 많은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대형산소분리기제작을 위한 기본직장과 련관직장들의 준비작업이 끝났고 필요부속품들이 가공되어 쏘아지기 시작했다.

깨끗한 옷차림으로 수자식조종선반기결에 붙어앉아 살짝살짝 조종단추를 눌러 기계부속을 가공하는 처녀선반공들의 《신선놀음》이며 슛쿵— 슛쿵— 장쾌하고도 우렁찬 음향을 내는 진공납땜로의 육중한 몸통을 취한듯이 바라보는 나에게 지배인이 정색해서 말했다.

《바로 이것이 경애하는 장군님께 올리는 우리 락원의 대답입니다.》

그 말은 쿵 하고 나의 가슴을 울렸다.

락원의 로동계급에게는 우리 당 력사에 뚜렷이 아로새겨진 대답의 전통이 있다.

수십년전 불비쏟아지던 전화의 그날 공장을 찾아오신 아버지수령님께 한 녀성당원이 올렸던 그 신심넘치고 확신에 찼던 대답소리 《수령님, 복구건설은 넘려마십시오!》의 메아리가 오늘 락원땅에서 울리고있는것이다.

《장군님, 강성대국건설은 넘려마십시오! 우리한테 어떤 과업이나 다 주십시오. 우리는 꼭 해

# 나도 참전자라오

안 명 애

용해공들 식당에 들어서며  
병긋 웃음담아 말하네  
—어머니, 밥주세요 빨리

잘 익은 쇠물내 확— 풍기는 목소리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열풍안고  
출강시간 앞당긴 그 목소리

몽클— 가슴속에 솟구치는 뜨거움  
이 마음도 출강인가 궁지로 뚫는다오  
요새는 사는 멋이 있다오

장군님 아끼시는 용해공들  
저런 보배들에게  
듬뿍 한가지라도 더 차려주고싶은 맘

—어머니, 빨리  
어허— 그 말 놓치면 어쩌랴  
내 아들들의 엄격한 《명령》인데야

어이 용해장에서만  
쇠물이 끓는다 하라  
나도 그들곁에 선  
강성대국건설의 참전자인데야

## 빈 집

송 명 근

비웃이랑 통장갑이랑  
불룩한 배낭에 챙겨넣으며  
발전소건설장으로 간다고  
박령감은 아침부터 분주탕을 피우네

—에그, 젊은이들한테  
집이나 되지 않겠는지 원...  
로친은 허를 차면서도  
등산가는 손자에 시중들듯  
미시가루랑 닭은 콩이랑  
쭈쭈이 배낭에 쑤셔넣네

어제는 아들, 며느리  
선참으로 발전소돌격대에 보내놓고  
날마다 건설장소식에 귀를 바짝 강구더니

장군님 다녀가신 소식 들은 날엔  
막돌 하나라도 제손으로 없지 않고는  
도리가 아닌듯

로친손목 한번 덩석 잡아주고  
박령감 프락을 나서는데  
령감을 바래우는 로친의 생각  
—령감없는 집이 빈집인줄 왜 모를가?

빈집  
한가정의 지붕을 발전소에 얹어보며  
로친은 저 멀리 마식령을 바라보네  
—두고보우  
나도 인차 령감따라 가지 않나...

내겠습니다.》

그렇다, 락원의 로동계급은 바로 그 대답을 말로써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실천, 뚜렷한 실적으로 하고있는것이였다.

《장군님, 우리는 꼭 해내겠습니다!》

어찌 그 대답이 락원사람들의 대답이라고만 하랴.

그것은 얼마전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 선거에서 보여준 우리의 일심단결의 모습에서 찾게 되는 대답이며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고 이 세상 끝까지 따르려는 천만군민의 심장에서 울리는 하나 같은 대답이다.

또한 오늘날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를 따라 강성대국건설의 총돌격전에 위대한 참전자로, 위훈자로 떨쳐나선 이 나라 전체 인민들의 심장의 맹세이고 결사의 호응인것이다.

어버이수령님의 령도를 받들어 이 땅에 사회주의를 건설한 혁명선배들의 후손들이 오늘은 위대한 장군님을 따라 강성대국을 일떠세우는 우렁찬 돌격전의 함성인것이다.

그렇다, 그것은 위대한 변혁, 변영의 시대, 선군시대에 경애하는 장군님을 받들어모시고 혁명하는 우리 인민의 영원한 대답의 메아리이다.

이 땅 방방곡곡에서 울리는 그 영원한 대답소리에 실려 강성대국의 대문은 열려지고있다.

## 은혜로운 태양의 품속에서 창작된 리용악의 시들

우리 시문단에 뚜렷한 자취를 남긴 시인 리용악〔주체3(1914)－주체60(1971)〕은 일제식민지 통치의 암담한 세월 창작의 첫걸음을 떼었다.

주체3(1914)년 당시 함경북도 경성군 경성면 수성동의 가난한 소작농의 가정에서 출생한 시인은 어려서부터 일제식민지통치의 포악성과 야만성을 목격하면서 성장하는 과정에 일제에 대한 증오심을 지니게 되었다.

그는 처녀작으로 발표한 시 《패배자의 소원》에서 나라 잃고 식민지노예의 처지에 굴러떨어진 우리 인민의 비참한 운명에 대한 동정과 일제에 대한 울분을 진실하게 반영한것으로 하여 문단의 주목을 끌게 되었다.

그후에도 시 《두만강 너 우리의 강아》〔주체27(1938)년〕, 《낮은 집》〔주체27(1938)년〕, 《오랑캐꽃》〔주체28(1939)년〕, 《다시 항구에 와서》〔주체29(1940)년〕를 비롯하여 수십편의 작품을 창작하였고 해방전에 두권의 시집을, 해방후 남조선에서 한권의 시집을 묶어 세상에 내놓을수 있었다.

그러나 해방전에 발표한 그의 시들에는 탁월한 수평을 모시지 못한 식민지청년의 몸부림이 반영되어있었으며 그것은 침울한 정서로 자기 작품들에 표현되게 되었다.

주체39(1950)년 6월 25일 조국해방전쟁이 개시되어 3일만에 서울해방과 함께 북조선으로 들어온 시인은 그때부터 창작의 나래를 활짝 펼칠수 있었다. 하기에 시인은 군복을 입고 종군작가로서 활동하던 나날에 시 《원췌의 가슴팍에 땅크를 굴리자》〔주체39(1950)년〕, 《피발선 새해》〔주체40(1951)년〕, 《평양으로 평양으로》〔주체40(1951)년〕, 시초 《싸우는 농촌에서》〔주체40(1951)년〕를 비롯하여 우리 군대와 인민을 전쟁승리로 힘있게 고무하는 수많은 작품들을 창작하게 되었으며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속에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시분과 위원장 겸 당세포위원장으로서 사업하게 되었다.

시인은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승리로 끝나고 이 땅위에 복구건설의 노래가 힘차게 울려퍼지던 그때에는 불편한 몸도 아랑곳없이 서정시 《봄》〔주체43(1954)년〕, 《어선 민청호》〔주체44(1955)년〕, 《석탄》〔주체44(1955)년〕, 《좌상님은 공훈탄부》〔주체44(1955)년〕, 시초 《어느 반도에서》〔주체44(1955)년〕, 《평남판개시초》〔주체45(1956)년〕와 같은 작품들을 창작하였다.

또한 우리의 사회주의건설시기에는 당의 혁명전통을 노래한 서정시 《우리 당의 행군로》〔주체50(1961)년〕를 시대의 명작으로 내놓아 우리 시문단을 빛나게 장식하였다.

그중에서도 서정시 《우리 당의 행군로》와 시초 《평남판개시초》는 리용악의 한생의 대표작이라고 볼수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진보적인 시는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한다.》

서정시 《우리 당의 행군로》는 주체50(1961)년 시인 리용악이 백두산혁명전적지, 사적지를 답사하면서 창작한 작품이다.

작품에서 시인－서정적주인공은 갑작스레 쏟아지는 모진 비방울을 뚫고 백두산혁명전적지, 사적지의 울울한 밀림을 걸으며 이 길을 우리의 혁명전통의 행군로로 뜨겁게 감수하였다. 더 나아가 이 길은 조국해방을 안아온 길이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열어주신 길이라고 격조높이 노래하였다.

바로 여기에 이 시가 가지고있는 높은 사상적의의와 철학적깊이가 있다.

시인은 우리 당의 행군로는 오직 이 한길을 따라 뻗어있다고 하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항일혁명전통의 행군로를 따라 혁명의 노래 높이 부르며 나아가리라는 굳은 신념을 노래함으로써 시를 높은 사상예술적경지에 끌어올렸다.

...

진주를 다듬어 천리에 깎다 한들  
이 길처럼이야 어찌 빛날가  
조국의 광복을 만대에 이으신  
**김일성**동지!  
그이의 가슴에서 시작한 이 길!

감사를 드리노라  
우리 당의 행군로를 한뼘으로 따르며  
투사들이 선창한 혁명의 노래  
온몸으로 부르고 또 부르며

시는 형상적비유의 수법과 수사학적부름법을 능란히 활용함으로써 불과 6개 련의 짧은 서정시에 심오한 사상적내용을 담고있다.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의 로정을 《넘고넘어도 가로막는 진대통/어깨에 허리에 발목에뿐이라/나

라의 운명에 뒤엉켰던 가시덤불/붉은 한뫼으로 헤쳐나간 길》이라고 노래한것이라든가 우리가 개척해나가는 혁명의 길앞에는 난관도 있으나 우리 당의 귀중한 혁명전통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혁명은 승리와 영광의 한길을 확신성있게 나아간다는것을 《저벅저벅 밟고 간 자국소리/아직도 가시밭은 그 소리에 맞추어》, 《막다른듯 엷히다도/앞으로만 내내 트이는구나》라고 노래한것은 그의 좋은례증으로 된다.

이 시는 1960년대에 창작된 혁명전통주체의 시들가운데서 전동우의 시 《크나큰 사랑》 등과 함께 선구자적역할을 논 작품일뿐아니라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칭송과 흠모의 감정을 깊이있게 형상한 서정시로서 이 시기 시단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고 볼수 있다.

이렇듯 시인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업적과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높은 사상에술적경지에서 격조높이 노래한 시들을 창작함으로써 수령과 당의 위대성을 칭송한 시창작에서 이 시기 시문학의 높은 위치에 올라섰다고 말할수 있다.

시인의 모습은 《평남판개시초》에서 더욱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이 시초는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기초건설시기 우리 시문학을 대표하는 대표작의 하나이라고 할수 있다.

10편의 주옥같은 시들로 이루어진 시초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펼쳐신 농촌수리화와 대자연개조사업의 웅대한 구상에 따라 완성된 평남판개에 대한 례찬으로 일관되어있다.

시초에는 어버이수령님의 은혜로운 손길아래 이 땅우에 거창한 자연개조, 위대한 천지개벽의 새력사가 펼쳐지게 된 력사적사실과 농민들의 세기적숙망이 풀린 행복과 걱정, 고마움과 감사의 정이 선명하게 부각되어있으며 현실생활에 대한 시인의 열정이 뜨겁게 노래되어있다.

...

물이며 어디를 내가 딛고 서서 발을 돋우면  
아득히 뻗어나간 너의 길을 다 볼수 있을가

로쇠한 대지에 영원한 젊음을  
지심깊이 닿도록 젊음을 부어주는  
물줄기여

...

물이며 굳었던 땅을 푹푹 추기며  
네가 흘러가는 벌판 한귀에  
너무나 작은 나의 입술을 맞추면서

쏟아지는 눈물을 막으려도 하지 않음은  
정녕코 정녕 내 나라가 좋고 고마워

—시 《전설속의 이야기》 중에서—

시초는 어버이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전변하는 사회주의농촌현실을 훌륭히 일반화하여 노래하였다.

시초는 우선 평남판개라는 시적대상을 소재로 하여 주제를 다양하게 설정하고 생활반영의 다양성과 진실성, 사상의 심오성을 보장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고마운 은덕과 현명한 령도에 대한 례찬, 우리 인민의 보람찬 창조적로동과 건설자들의 아름다운 정신세계, 물을 마중한 농민들의 크나큰 감격과 기쁨, 조국통일에 대한 열망과 사회주의한길로 승승장구하는 내 조국의 미래에 대한 확신 등 시의 사상주제적내용은 폭넓고 다양하다.

시초는 이처럼 각이한 주제를 해명하기 위해 생활의 본질을 드러낸 다양한 시적형상을 창조하였다.

시초는 또한 어버이수령님의 은덕아래 날로 변모되는 사회주의농촌의 현실에 대한 생동한 시적 묘사와 그를 감수하는 농민들의 체험의 세계를 다양한 시점에서 파고들어 소박하고 진실한 서정을 창조하였으며 땅냄새, 흙냄새가 진하게 풍기는 시어와 정제된 시운들을 통하여 형상성을 높이고있다.

시초는 그가 담고있는 생활반영의 진실성과 사상에술적우수성으로 하여 주체45(1956)년 조선인민군창건 기념 문학예술상 그리고 또 같은 해 시부문창작에서 1등상을 받았다.

시인이 이룩한 이러한 성과는 백두산위인들의 사랑의 품을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다.

해방전 탁월한 수령을 모시지 못하여 《울지 말라/웃지도 말고/내가 자살하지 않는 리유를/그 리유를 묻지 말라》고 한탄하던 시인, 《울줄 몰라 외롭다》고 자기 신세를 하소연하던 시인 리용악.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은혜로운 품에 안겨서야 비로소 참된 삶을 누릴수 있었으며 시대의 가수로서의 자기의 사명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었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57(1968)년 9월 공화국창건 20주년훈장이 제정되었을 때에는 그에게 이 훈장을 수여하도록 해주시였으며 위대한 수령님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공화국창건 55돛이 되는 주체92(2003)년 9월 조국통일위업에 바친 그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여 시인에게 조국통일상을 수여하도록 크나큰 사랑을 돌려주시였다.

참으로 리용악은 은혜로운 태양의 품속에서 오늘도 영생하는 시인의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있다.

문 학 민

# 한껏 아름다와지라

변창률

온갖 꽃들이 만발한 늦은 봄날의 어느 휴식날 아침 명절옷차림을 한 우리 가족은 갖가지 식료품이 든 구력을 들고 다층살림집현관앞에서 떠나지 못하고있었다.

이번 가족들놀이의 발기자인 막내딸 선희가 한 발 앞서나갔는데 떠날 시간이 되도록 나타나지 않았기때문이었다.

《고건 새벽부터 새 화장품을 먼저 터치며 달랑 해서 돌아가더니…》

늦잠을 자다가 삼면경대리용순서가 바뀌어 불이 약간 부엌던 딸이 하는 소리였다. 년년생이 여서인지 안해의 말을 빌면 화장품이나 그러루한 것을 가지고 《눈만 짜개지면》 싱갱이질인 딸들이다.

압록강가의 《좋은 자리》를 양보하게 될가봐 온 가족을 초조하게 만들던 막내딸은 얼마간 지나서야 네거리로 향한 길가에 나타났다.

진달래빛치마저고리를 입고나선 언니와는 달리 하늘색치마저고리에 곱게 화장을 한 막내가 손에 든 물건을 저으며 급히 달려왔다.

《아니, 온 가족이 기다리게 해놓고 넌 어딜 돌아가느냐?》

책망이라기보다 나날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번져가는 딸의 모습이 대견스러워 건네보는 안해의 말이였다.

막내는 대답대신 손에 든 물건부터 풀어보였다. 빨가닥거리는 비닐로 포장한 《봄향기》표 세수비누가 녀장 들려있었다. 연분홍색, 푸른색, 흰색… 색깔도 다양한 비누에서는 싱그러운 향기가 풍겼다.

《애, 넌 들놀일 가면서 생똥같이 무슨 세수비누니?》

동생을 시까스르면서도 딸은 비누 한장을 슬쩍 집어들었다.

《사실은 사진사를 데리러 갔됐는데 화장품상점에서 새로 생산한 세수비누를 판다기에…》

은근하면서도 우아한것을 좋아하는 딸이 흰색의 비누를 바꾸어들었다.

《비누야 들놀일 갔다와서도… 아침부터 속을 태우면서…》

막내의 눈이 샅쭉해지며 언니를 흘렸다.

《언니 이제 어떤 비누인지 알기나 하면서 그 래? 우리 장군님께서 이번에 현지도하신 신의주

화장품공장 비누직장에서 새로 생산한거란 말이야. 그걸 어서 써보고싶지도 않아?》

딸은 선뜻 대꾸를 못했다.

막내의 손에서 비누 한장을 집어드는 나의 가슴에 뜨거운 격정의 물결이 서서히 밀려왔다.

우리 장군님께서 서북단의 멀고먼 화장품공장까지 찾아오시여 보아주신 세수비누! 쓰기도 편리하고 사람들의 건강에도 리로운 최상의 수준을 보장한 화장품이라고 그토록 만족해하신 화장품!

문득 나의 눈앞에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다녀가신 신의주화장품공장에 취재했을 때 보았던 현대적인 비누직장정경이 떠올랐다.

다시금 현대적으로 개건확장되어 질 좋은 세수비누들이 흐름선을 타고 줄줄이 쏟아져나오는것을 보며 공장의 일군이 들려준 이야기… 군인들과 인민들에게 공급할 화장품들은 이 세상에서 최상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셨다는 우리 장군님!

우리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기 위해 현지도의 길을 걷고 또 걸으시는 우리 장군님! 인민들에게 질 좋은 필수용품과 화장품을 안겨주시기 위해 우리 장군님께서 이 공장을 찾으신것만도 몇번이나 되던가. …

나는 봄명절옷차림을 하고 아름다움을 한껏 펼치고있는 안해와 딸들의 모습을 새삼스레 바라보았다.

우리 인민들을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되길 바라시여 우리 장군님 《삼복철강행군》에 이어 《대소한의 강행군》 길을 걷고 또 걸으시는것 아니라.

《언니, 난 어쩐지 우리 장군님의 사랑이 깃든 이 세수비누를 쓰는것이…》

막내는 목이 메이느지 뒤말을 잊지 못했다.

막내의 그 심정이 나에게도 뜨겁게 전달되는가 싶었다.

오늘따라 별스레 더 아름다와보이는 딸들을 바라보며 나는 마음속으로 웨쳤다.

그래, 사랑의 그 비누를, 화장품을 어서 더 많이 쓰거라, 그래서 이 세상 그 누구들보다 싱싱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피어나거라.

너희들이야말로 아버지장군님의 축복속에 젊음과 행복을 마음껏 누리는 세대가 아니냐.

세상만물이 무색해지게 한껏 아름다와지거라!



# 뜨거운 심장들

조 인 영

휘익— 칼바람이 불어쳤다.

해발 1 300미터를 넘는 고개를 통채로 휘감고 뒤흔드는 사나운 눈보라에 전주대가 부르르 떨고 전기줄이 뒹뒹 울었다. 기온은 벌써 며칠째零下 30도계선에서 오르내렸다.

소대장 명대식은 침울한 낮빛으로 소대대렬앞에서 있었다.

털모자가 채 덮지 못한 고수머리가 세찬 바람에 흩날렸다.

싸락눈이 섞인 눈바람이 그의 퍼릿하게 얼어든 뺨을 후려쳤다.

사납게 몰아치는 눈바람에 숨쉬기가 다 가쁠 정도였다. 대식은 장갑낀 손으로 언 불을 힘껏 문질렀다. 뻗뻗한것이 도무지 자기 살갗지 않았다. 그는 푸— 숨을 내불고나서 자기앞에 정렬해선 대원들을 휘둘러보았다. 암만해도 눈에 차보이지 않는 신대원들...

원산청년발전소 건설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여섯명의 구대원들을 새로 조직되는 대오의 초급지휘성원들로 보내고 오늘 아침에 새로 보충받은 신입대원들이다. 기동감갈던 구대원들을 뽑아보낸 후 소대는 좀 의기소침했다. 부족되는 인원을 가지고 다른 소대 못지 않게 계획을 해내느라고 악전고투를 하다나니 맥이 빠졌다. 그러면서도 언제나 앞자리를 양보 안하던 소대의 작업실적이 하강선을 긋고있다.

려단에서는 제일 어려운 기초파기작업장에서 고생한다고 보충인원을 보내주었다. 그런데 그토록 목마르게 기다려온 보충인원들이라는게 언제 가야 제구실을 할지 모를 코아래에 숨털이 보르르한 애송이들과 아련하게 생긴 처녀가 아닌가. 그래도 소대장앞에서 축잡해보이지 않았다고 발뒤축을 고이고 어깨를 뒤로 젖히고 차렷자세로 서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니 절로 허거픈 웃음이 나왔다.

언제 가면 이들이 다른데로 간 구대원들처럼 제구실을 하게 되겠는지. 물론 이제 시간이 가고 세

월이 흐르느라하면 이들도 어엿한 기동감으로 자라날것이다. 그러자면 지금부터 신발을 잘 신겨야 한다. 군대식으로! 모든 일에서나 첫걸음이 중요 한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대식은 신입대원들앞으로 다가서며 차례로 물었다.

《동문 고향이 어대요?》

《철령, 철령 아래마을입니다.》

털모자의 귀덮개가 바람에 너풀거리는 대원이 발돋움을 하며 대답했다.

《그럼 동문?》

《351고지 뒤동네 월비산에서 왔습니다.》

《동문?》

《안변입니다, 감고장!》

키만 덜썩하니 큰 청년이 가슴을 내밀며 큰소리로 대답했다.

《틀렸소. 안변이라면야 감고장이라기보다 혁명적군인정신이 창조된 곳이지. 안 그렇소?》

《예, 그렇습니다.》

대식은 면구한듯 씩 웃는 그의 어깨를 두드려주 고나서 걸음을 옮겼다. 키가 대식의 어깨에까지밖에 오지 않아 애뒹보이는 청년이 묻기도 전에 여 무진 목소리로 웨치듯 말했다.

《전 법동에서 왔습니다, 마식령아래!》

모두 와— 웃었다. 흔히 《법동감자바우》, 《법동산팔내기》라고 놀려대는 말이 떠올라서 일것이다. 마식령이라는 이름은 옛적에 법동사람들이 말에다 소금을 싣고 오르다가 지치고 배고 파서 말을 잡아먹었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라던지. 법동내기가 억울한듯 불을 불구며 말했다.

《웃지 마십시오. 우리 증조할아버지가 〈법 동농민〉입니다.》

순간에 모두가 정숙해졌다.

《뭘요?! 그게 정말이요?》

《정말입니다!》

《음— 팬참아.》



대식은 고개를 끄덕이었다.

《동문 어디서 왔소?》

《속사리! 1211고지 아래마을입니다.》

허 이것 봐라, 모두들 하나같이 아버지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사적과 더불어 우리 조국 력사에 이름이 오른 고장들에 태를 묻은 청년들이 아닌가, 이진 정말 보배덩이들이 절로 굴러들었군. 대식은 답답하던 가슴이 확 트이는것 같았다.

신입대원들은 마치 저마끔 제고장이 제일이라는 듯 가슴들을 짹 펴고 서있었다.

대식의 눈길은 곤색솜작업복을 가튼하게 차려입고 마감에 서있는 날씬한 몸매의 처녀에게서 멎었다. 쌍까풀눈에 상큼한 코날, 연하게 화장을 한 등그스름한 얼굴, 밤색털수건으로 얼굴을 감싸서 그런지 어리다고만 보았는데 가까이에서 보니 어지간히 나이들어보이는 처녀였다.

《처녀동문 어디서 왔소?》

《〈해당화샘물공급소〉에서 공급원을 하다가 왔습니다. 강정희입니다.》

처녀는 묻지 않는 이름까지 뱉었다.

대식은 절로 고개가 기웃해졌다. 그 조용한 곳에서 일하던 처녀가 이 불꽃튀는 전투장에서 꽤 견디어낼가?

《정희동무, 후회하는 일은 없겠소?》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겁니다. 전 저의 심장을 시험해보자는겁니다.》

심장을 시험해본다?! 허, 보기와는 다른걸. 제법이야, 괜찮아. 대식은 처녀를 다시금 바라보았다. 그러던 그는 약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정기도는 쌍까풀눈이며 살짝 쳐들린 코마루가 몹시 낮아져보이는것이였다. 어디서 보았던가. 눈살을 찌푸려보았으나 얼른 떠오르지 않았다.

대식은 부질없는 생각이라는듯 고개를 흔들며 대오앞에 나섰다. 넓고 억센 가슴을 짹 펴고 신입대원들을 바라보던 그는 입을 열었다. 굵고 우렁우렁한 목소리가 지동치듯 하는 눈보라소리를 누르며 울려 퍼졌다.

《동무들! 저는 크나큰 포부와 희망을 안고 여기 발전소건설장으로 달려온 동무들을 우리 소대의 이름으로 열렬히 환영합니다.》

박수가 터졌다.

《동무들, 여기 원산청년발전소는 위대한 장군님의 원대한 구상에 따라 건설되는 발전소입니다. 나는 여기 성스러운 전투장에서 동무들을 낳아주고 키워준 고향의 이름을 더욱 빛내어나가리라 믿습니다.》

또다시 박수가 터지고 우렁찬 화답소리가 울려퍼졌다.

《저희들을 믿어주십시오.》

대식은 주먹을 흔들며보이고나서 계속했다.

《현재 우리 소대의 임무는 저기 칼벼랑과 맞은

편 대안을 편결하는 언제의 기초를 닦는것입니다. 우리가 닦은 기초우에 만년언제가 솟아오르면 여기 동무들이 선 자리는 저수지가 될것입니다. 물론 조건은 어렵습니다. 부족되는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뜨거운 심장이 있는 한 극복 못할 난관이란 있을수 없습니다.

전투임무수행에서 지휘관의 명령에 절대복종하며 모든 일과는 인민군대의 일과대로 한다.

공구는 함마와 정대, 곡괭이, 삽, 질통.

나의 대리인은 부소대장이요.

우리 소대의 기풍은 〈자기 힘을 믿으라!〉. 복창할것!》

《자기 힘을 믿으라!》

대식의 말이 끝나자 우렁찬 대답소리가 골안을 찌렁찌렁 울리었다.

대식은 생각난듯 물었다.

《가만, 동무들 가운데 누구 붓글씨를 쓸줄 아는 동무가 없소?》

《예, 제가 쓸줄 압니다.》

대렬끝에서 강정희가 한걸음 나서며 대답했다.

《중소. 강정희동문 이제부터 소대전투소보원의 임무를 수행해야겠소.》

그럼 대렬 우로 돌아! 앞으로— 갔!》

대오는 씩씩하게 걸음을 내짚었다. 신입대원들은 수군수군 소대장에 대한 인상들을 나누었다.

《소대장이 딱소리나는데. 군대맛이 나.》

《응, 쇠소리가 땡땡 울리는구나.》

《췌, 소대장이 들겠어.》

정대가 암반에 부딪쳐 탕탕 튀어올랐다. 곡괭이날이 무지러졌다. 물푸레나무자루가 부러져나갔다.

《…백 여든일고—옴, 백 여든여—넋…》

육중한 함마가 허공을 가르며 오르내렸다.

강추위속에서도 모두들 솜옷을 벗어던지고 함마와 곡괭이를 휘둘렀다. 누구도 함마와 곡괭이를 넘겨주려 하지 않았다. 사실 함마나 곡괭이를 놓으면 땀이 식어 선뜩거려 견디기 더 어려웠다.

《여, 빨리 교대하자구.》

《조금만 더, 좀 쉬라구.》

숨이 가빠 헉헉하면서도 선뜻 함마를 놓으려 하지 않는다. 옆에서는 선자리에서 땀박질을 하며 재촉한다.

《제길, 욕심쟁이같으니. 더 못 견디겠어, 빨리!》

옆대원의 성화에 못이겨 함마를 넘겨주고난 대식은 작업장을 둘러보았다. 땀발이 송골송골 내뿜은 그의 얼굴에 만족한 웃음이 피어올랐다. 소대의 실적이 어제에 비해 눈에 띄게 뛰어올랐던 것이다.

저쪽구석에서 신입대원 《안변》이 열성스레 함마를 휘둘러댄다. 그런데 아직 함마질에서 야무진

맛이 적고 거늬가 정확치 못하다. 하지만 괜찮아, 어찌 첫술에 배가 부르랴, 앞으로 나아지겠지. 보다는 남들한테, 구대원들한테도 뒤지지 않으려는 그 마음이 중요하거야.

대식은 《안변》 한테로 다가갔다.

《여 〈안변〉, 함마를 이리 내라구.》

《아니, 괜찮습니다. 아직...》

《안변》이 숨이 차 헐떡거리며 대답했다. 그 서슬에 정머리를 빗때리고 비칠거리는 그를 부축해준 대식은 함마를 앗아들었다.

《이것도 요령이 있어야 해. 그렇지 않으면 공연히 맥만 뺏거든.

자, 보오. 함마를 짝 잡고 먼저 정머리와와 간격을 맞추며 조절한 다음 자세를 바로잡아야 하오. 그다음 한두번 맥을 본 다음 휘둘러올렸다가 내릴 때 순간적으로 힘을 주면서 이렇게—》

챙— 쇠와 쇠가 맞부딪치는 소리.

《다음엔 함마가 내려가는 힘을 리용하면서 물동적으로 다시 휘둘러올리고 이렇게— 이렇게—》

몇번 시범동작을 해보인 대식은 옆에 서서 소대장의 함마질을 신기한 눈길로 지켜보는 《안변》에게 함마를 넘겨주었다. 그의 자세를 바로잡아준 다음 구령을 쳤다.

《자, 시작!— 그렇지, 그렇지. 아니— 틀렸어. 어깨의 긴장을 풀고 팔에다 힘을 주란 말이요. 그렇지, 그렇게—》

그리고 정머리를 함마대가리앞쪽으로가 아니라 뒤쪽으로 겨누다 하란 말이요. 그래야 함마대가리중심이 정머리를 때릴수 있소. 자, 다시—

좋아, 발전이 빠른걸. 오래지 않아 한다하는 함마명수가 되겠어.》

《안변》의 등을 두드려 고무해주고난 대식은 저쪽에서 전투소보를 붙이느라 애쓰고있는 정희에게로 걸어갔다.

《수고하누만.》

정희가 빨갛게 얼어든 두볼에 생긋 웃음을 지었다.

《소대장동지, 소보를 쓰긴 했는데 바람이 너무 세차서...》

《음, 이 날씨에 용케 썼구만. 색깔이 얼지 않았소?》

다른 대대로 소환되어간 이전 소보원도 이런 감추워때에는 색깔이 얼어서 드문히 애를 먹군 했었다.

《예, 그래서 제게 있던 굵은 마지크로 썼습니다.》

《마지크로— 어디 좀 보지요.》

정희가 내미는 전투소보를 받아든 대식은 바람을 등지고 서서 그것을 펼쳐들었다. 글씨가 큼직 큼직하고 활달한것이 눈에 확 안겨왔다.

첫장은 《청춘의 심장은 얼지 않는다!》라는 제목이었다.

《음— 제목이 정말 좋구만. 그래, 이만한 추위에 얼어서야 무슨 선군시대 청년의 심장이겠소. 이런 말은 어떻게 다 생각해냈소?》

정희가 수줍은듯 고개를 숙이며 이마에 드리운 머리칼을 쓸어 털수건밑으로 밀어넣었다.

《중학교때 문학소조엘 좀...》

허, 정말 재간둥이가 찾아들었군. 흐뭇해난 대식은 다음장을 번졌다.

《〈혁명적군인정신의 창조자답게! 소대장 명대식동무 대오의 앞장에서...〉 이건 또 뭐요? 누가 이런걸 쓰라고 했소?》

소보를 읽어내려가던 대식은 정희를 지름터 보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희가 놀란 눈길로 마주 보았다.

《틀렸소. 이건 치우시오.》

《아니, 그건 저...》

《치우시오.》

《안됩니다.》

《?!...》

《소대장동진 안변청년발전소 군인건설자였지요?! 그래서 우린 모두 소대장동지를 본받으려고...》

《됐소. 어쨌든 치우시오.》

《...》

《이건 명령이요. 동문 지휘관의 명령에 절대복종하여야 한다는 규률을 모르오?!》

고집스럽게 입술을 옥물고 서있는 처녀를 바라보던 대식은 자기에 대한 소보를 접어 주머니에 넣고는 나머지를 내밀었다.

《이것들은 저 녀적바위우에 퍼놓고 돌로 지질러놓으시오.》

《알았습니다.》

몇걸음 옮기던 대식은 돌아서서 물었다.

《가만, 〈해당화〉 처녀동무, 어떻게 나에 대해서 잘 아오?》

《다 아는 수가 있지요 뭐.》

정희는 생글 웃음을 지어보이고는 녀적바위쪽으로 달려갔다. 대식은 정말 모를 일이라는듯 의아쩍은 눈길로 정희를 지켜보다가 작업장으로 걸어갔다.

오후작업을 시작해서 얼마쯤 지났을 때였다.

갑자기 《샘이 터졌다!》하는 소리가 울리더니 대식이네 소대 작업구간으로 물이 팔팔 흘러들기 시작했다. 웃구간에서 그만 샘통을 잘못 건드렸던것이다. 물은 잠간사이에 기초작업장을 층층 메우며 차올랐다. 바께쓰를 총동원하여 물을 퍼냈으나 물은 조금도 줄어들줄 모르고 도리어 어느결에 무릎높이까지 차올랐다.

대대장이 그 소식을 듣고 달려왔다. 이마살을 찌프리고 작업장을 둘러보던 대대장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할수 없지. 작업을 중지하시오, 양수기를 가져다 설치할 때까지.》

《양수기는 언제쯤 오게 됩니까?》

《그건 나도 모르겠소. 러단에 제기해서 해결받는 수밖에.》

《그럼 양수기가 올 때까지 세월없이 기다려야 한다는 소리가 아닙니까. 물량이 줄어든 겨울철중으로 기초공사를 끝내지 못하고 봄이 와서 눈석이 물이 흘러들기 시작하면 그때...》

대대장의 이마의 주름살이 더 깊어졌다.

《그건 나도 모르는바 아니요. 하지만 이 강추위속에서 대원들을 저 물속에서 작업시킬수야 없지 않소. 그러다 모두 동상을 입으면 어쩔려고 그러오?》

대식은 무어라 할 말을 찾을수 없었다. 대대장의 말이 너무도 옳았기때문이었다. 하지만 기초공사를 중지할수야 없지 않는가. 대식은 저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다.

《어쨌든 우린 작업을 중지할수 없습니다.》

대대장은 놀라운 눈길로 대식을 바라보더니 한 팔을 뻗 내리거었다.

《무조건 중지하시오. 이건 명령이요.》

칼로 베듯이 말을 맺은 대대장은 두말할것 없다는듯 돌아서 가버렸다.

물이 차오르는 작업장을 바라보는 대식의 생각은 착잡했다. 대대장앞에서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라고 무슨 뽀족한 수가 있는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명백한것은 결단코 기초공사를 중지할수는 없다는것이였다. 어떻게 할것인가. ...

누군가가 공구를 틀링 펄구며 주저앉았다.

《이젠 다로구나. 하필이면...》

대식은 뻐 돌아보며 소리쳤다.

《이자 그렇게 말한게 누구요?》

《아니, 전 그저...》

방금 말한 대원이 얼굴을 붉히며 얼버무렸다. 그 대원을 뚫어질듯 쏘아보던 대식은 구령을 내렸다.

《소대 정렬할것!》

소대앞에 나선 대식은 한동안 말없이 대원들을 바라보기만 했다. 대원들도 엄숙해진 눈길로 소대장을 바라보았다.

《동무들, 소대앞에 닥친 정황에 대하여 길게 말하지 않겠소. 그렇지만 우린 물러설수 없습니다. 누구의 방조를 청할데도 없습니다. 그래 우리 소대의 기풍이 됩니까?!》

《자기 힘을 믿으라!》

소대원들이 한결같이 목소리를 합쳐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우린 자기 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승리의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난 오늘 우리의 심장을 한번 시험해보자는겁니다. 자기 힘을 믿는 청춘의 심장은 얼지 않는 법이요. 안 그렇소, 동무들!》

《그렇습니다.》

대식은 자기가 저도 모르게 정희가 한 말을 외우고있다는것을 느끼지 못했다. 정희의 그 말이 가슴속에 새겨졌다가 불쑥 튀어나온것이였다.

《그럼 소대를 두개 조로 가르겠소. 1조는 내가 책임지고 물을 뽑기 위한 돌과구를 내겠소. 2조는 부소대장이 책임지고 물을 퍼낼것. 어떤 수를 써서든지 현재높이이상으로 물이 차오르지 못하게 해야겠소.

강정희동무, 동무는 녀성동무들과 신입대원들을 책임지고 불을 피워서 교대로 몸을 녹일수 있게 하시오.》

강정희와 신입대원들이 대렬앞으로 달려나오며 소리쳤다.

《우린 왜 빼놓습니까?!》

《우리도 할수 있습니다!》

대식은 눈곱이 시큰해났다. 우리 시대가 얼마나 훌륭한 청년들을 키워냈는가. 하지만... 대식은 부러 눈을 부릅뜨며 목소리를 높였다.

《안된다면 안되는줄 아오. 이젠 명령이요.》

뻐 돌아선 대식은 땀도는 물뿔을 쏘아보다가 《날 따라 앞으로!》하고 웨치며 함마를 틀어쥐고 물에 뛰어들었다. 소대장의 뒤를 따라 대원들도 저저마다 뛰어들었다.

단번에 심장이 멎는듯 했다. 뼈속까지 스며드는 차가운 기운에 온몸이 떨리고 숨이 꺾 막혔다. 대식은 애써 웃음을 지으며 소리쳤다.

《샘물이어서 그런지 생각보다는 견딜만 하구만. 자, 작업시작!》

챙, 챙, 쇠부딧치는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송곳으로 찢려대는듯 한 아픔은 어느새 사라지고 점차 감각이 없어갔다. 아랫도리가 뻗뻗해왔다. 사지가 가드라 들어왔다. 극한점이 오는듯 견디기 어려웠다.

...백 신하나, 견디여내야 해. ... 백 신두-을, 조금만 더... 백 신세-엿, 조금만 더 견디자... 백 신네-엿...

속으로 뇌이며 함마질을 하던 대식은 《소대장 동지, 교대합시다.》 하는 소리에 뒤를 돌아보았다. 순간 그는 놀라서 눈을 크게 떴다. 강정희가 자기앞에 서있지 않는가. 대식은 숨이 차서 헐떡거리며 소리쳤다.

《동문 뭐요? 누가 들어오라고 했소? 명령을 잊었소?》

《불은 명령대로 피워놓았습니다.》

저쪽 안침진 곳에서 우등불이 활활 타오르고있었다. 하지만... 하지만 그결에서 몸을 녹이는 대원은 한명도 없었다.

대식은 이발을 뚝뚝 맞췄으며 소리쳤다.

《어쨌든 당장 나가시오. 이젠 명령이요. 알겠소? 〈해당화〉 동무.》

정희는 대식의 손에서 함마를 앗아내며 맞받아

웨이였다.

《이건 저의 심장의 명령입니다.》

그리고는 세관게 함마를 휘둘러대었다. 열결에 옆으로 밀려난 대식은 작업장을 둘러보았다.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철령》이며 《안변》, 《법동》 신입대원들모두가 물속에서 함마를 휘두르고있는것이 아닌가.

《여 〈철령〉, 동문 뭐야? 당장 나가시오. 〈안변〉, 〈법동〉, 〈351〉, 동무네도 나가시오. 못 들었소? 못 들었는가?!》

대식은 철버덕거리며 물속을 달려갔다. 《안변》이 웃음지어보이며 소리쳤다.

《소대장동지, 저의 심장은 든든합니다.》

당달아 《법동》이 소리쳤다.

《제 심장은 소대장동지보다 더 든든합니다.》

저쪽에서 《1211고지》가 웨치는 소리—

《1211고지가 물러설수 있습니까?》

《철령두요.》

《351고지두요.》

대식은 그만에야 목이 짹 막혀버렸다. 이런 볼같은 심장을 지닌 청년들을 그 어떤 난관이 막아나설수 있으랴. 대식은 젖어드는 목소리로 뜨겁게 불렀다.

《동무들, 고맙소.》

저쪽넙적바위우에서 정희가 쓴 전투소보의 글발이 눈에 확 안겨왔다.

《청춘의 심장은 열지 않는다!》

눈보라는 계속 사납게 휘몰아치고있었다.

해질무렵, 드디어 돌파구가 열렸다. 고였던 물은 깊이 패인 물홈을 따라 빠져나갔다. 돌격대원들은 서로서로 부둥켜안고 환성을 울리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었다. 뜨거운 심장의 열기로 시련을 이겨낸 환희의 눈물이었다.

작업장에서 철수하면서 대식은 정희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정희동무, 동무를 꼭 어디선가 본듯 한데...》

정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다.

《소대장동지, 강정덕이라는 이름이 생각나십니까?》

《강정덕?!》

《저의 사촌오빠입니다.》

《그럼...》

대식은 놀랐다. 강정덕, 안변청년발전소 건설장에서 물길굴이 붕락되는 위기일발의 순간에 분대원들을 구원하고 희생된 그의 병사시절 분대장이었다. 언젠가 건설자재수송때문에 나갔다가 그의 삼촌네 집에 들렀을 때 만났던 사촌녀동생, 그가 정희란 말인가. 그때는 중학생복차림의 애 어린 소녀였었는데...

《전 오빠의 영웅적인 희생소식을 듣고 정말 큰 충격을 받았답니다. 공상에만 잠겨있던 철없는 문학소녀의 꿈에서 깨어나 우리 시대 청춘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깨달았어요. 전 벅찬 현실속에서 저의 시를 찾고싶었습니다. 그래서...》

정희는 말끝을 맺지 못했다. 대식은 다음말을 재촉하지 않았다. 더 들어 무엇하랴. 오늘 정희는 자기의 행동으로써 자기가 써야 할 시가 어떤것인가를 증명해보이지 않았던가.

...그날 저녁 대식은 대대에서 보내온 대렬명단을 보다가 다시한번 놀랐다. 신입대원들이 모두 자기의 고향을 《위조》한것이였다.

아, 사랑스러운 《거짓말쟁이》들!

아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사적이 깃든 땅과 인연을 맺고 살고싶어하는 그들의 기특한 그 마음을 어찌 탓할수 있으랴. 이런 뜨거운 심장들에 기초를 박은 우리 발전소의 언젠는 천년만년 세월이 흘러도 끄떡없이 솟아있을것이다.

뜨거운 심장을 지닌 훌륭한 청년들이 사는 우리 강원땅, 하기가 어찌 강원땅뿐이랴. 온 나라 가는 곳마다에 그런 뜨거운 심장들이 수없이 있는것이다.

대식은 창공을 떠받들고선 거연한 메부리처럼 자기의 마음이 든든해지는것을 느꼈다.

## 경 구, 격 언

· 시간은 지나가고 세월은 흘러도 진리는 영원하다

· 진리는 각종 의견들의 충돌속에서 나온 것이다

· 진리는 궤변들가운데 포위되어있어도 쓰레기속에 파묻혀있는 금강석처럼 빛을 뿌린다

· 진리는 시간의 산물이지 권세의 산물이 아니다

· 진리는 통행증이 없어도 국경을 넘나든다

· 진리는 휘방을 당할수 있어도 없어지지는 않는다

· 진리는 언제나 사물의 가장 깊은 곳에 간직되어있다

· 진리를 굳건히 지키는 사람은 단두대에 서서도 자기의 신념을 버리지 않는다

· 진리는 입이 무겁고 거짓은 다사스럽다

· 진리에 대항하는것은 닭알로 바위를 치는 격

# 산 중 호 수 풍 경

오 재 신

고미탄천마을은 어디로 갔나  
산골마을 그 모습 어디에 있나  
사라진 물밀마을 찾지나 말라네  
호수가에 솟은 새집들 물결우에 실렸지

산봉우리우엔 산매들  
나래펴고 유유히 떠도는데  
령 넘어온 동해의 물오리떼  
푸르른 물결우에 깃을 내렸지

세 고개 박달령 서로서로 다투며  
철쭉꽃 피워안고 호수가에 나앉으니

물결이 울긋불긋 온통 꽃바다  
마식령이 빙 둘러 구경을 왔지

취수구로 흘러드는 물줄기  
천지개벽이 좋아  
어깨 덩실 춤을 추며  
동해로 가지

물결치없는 산촌 그 무슨 선경이라  
빛과 열을 품어안고 설레는 물결  
원산청년발전소 구룡저수지  
장군님 선경으로 펼쳐주셨지

## 내 가 아 는 녀 인

유 영 하

×

우리 옆집 젊은 녀인  
슬하에 두 자식 친정에 맡기고  
돌격대원남편이 섰던 그 자리  
언제건설장을 찾아왔네

연약한 어깨우엔 색날은  
돌격대원배낭을 지고  
늘씬한 허리엔 병사시절 그때처럼  
땀결은 혁띠를 졸라매고...

×

언제나 무거운 질통을 지고  
땀 흘리며 앞장서 달리는 녀인  
아기를 들쳐업듯 한집 또 한집  
장군님의 전선길 따라서며 한집 또 한집

보고싶은 아기의 얼굴보다  
언제우에 밝아올 새날이 더 그리워  
키를 넘는 폭설도 웃으며 헤쳤네  
사품치는 물속에도 서슴없이 뛰어들었네

아기의 행복한 패일을 축복하며  
장군님의 크나큰 기쁨을 꽃피우며  
어깨의 쓰림은 웃음으로 감췄네  
남편잃은 마음의 아픔은 노래로 이겼네

돌집우에 덧쌓이던 녀인의 마음  
청춘언제의 기초로 다져지고  
흙집우에 덧쌓이던 녀인의 소원  
만년대계기념비로 솟아올랐네

×

돌격전을 벌리던 녀인의 자옥  
차오르는 물속에 잠기였어도  
기발이 되어 달리던 녀인의 모습  
푸르른 물결우에 어리어오네

호심보다 깊은 녀인의 마음  
언제보다 높은 녀인의 정신  
선군시대 꽃이 되고 향기 되어  
장군님의 추억속에 길이 남았네

조선속담

### 일 , 노력

- 사람은 일을 해야 입맛이 난다
- 일이 년장노릇 한다
- 거저 먹을것이라고는 하늬바람밖에 없다
- 고기가 탐나거든 그물을 떠라
- 개천에서 나도 제 날타

- 논 자취는 없어도 공부한 공은 남는다
- 물속의 콩도 찌야 먹는다
- 미꾸라지 천년에 통이 된다
- 재주는 장에 가도 못산다
- 하루밤 자고나면 수가 난다
- 앓은 량반보다 빌어먹는 거지가 낫다

# 하늘이 내린 호수

박 성 일

높이 솟은  
원산청년발전소 언제  
노래소리, 발파소리 드높던 곳에  
푸르른 호수가 출렁이네

거울같이 맑은 수면위에  
황홀히 비껴내린 높은 하늘  
하늘이 온통 물위에 앉으니  
물이 설레이네  
하늘이 설레이네

이 언제에 안긴 물이  
물길굴을 따라 소리치며 흘러

우렁찬 행복의 동음 터치고  
거리마다 마을마다 별천지 펼치거니

아 우리 쌓아올린것이  
언제였다면  
우리 안아내린것은  
저 하늘이 아니었던가

발밑을 굽히는 물결  
소중한 추억으로 감싸안으니  
언제든 호수도 저 높은 하늘도  
벅차오르는 이 가슴에 다 안겨 웃고있네

# 굴뚝 없는 마을

오 정 로

날아갈듯  
나래편 기와집이랴오  
내 어릴적 소학교시절  
굴뚝을 그리지 못한채  
그림숙제 바쳤다가  
너선생의 꾸지람을 듣던 일 생각하며  
꿈같이 들어서는 집이랴오

우리 장군님께 기쁨드린  
자랑많은 집이랴오  
전기로 밥짓고 방을 덥히는  
굴뚝이 없는 마을이랴오  
부엌엔 아궁도 없고  
아래목 옷목도 없는  
내 자라던 시절엔 상상도 못한 집이랴오

아 조상대대  
나무집 지고 들어서던 초마가리

저적문 열고 까마득히 둥근달 바라보며  
계수나무 찍어다 초가삼간 지어놓고 살자던  
그 소원의 하늘가에  
처마를 높이 쳐든 집이랴오

우리 장군님  
내리는 눈비 다 맞으시고  
힘한 령 다 넘으시며  
가꾸어주시는 행복의 상상봉에  
날아오른 집이랴오

날개없는 집에  
장군님 달아주신  
사랑의 날개를 펴고  
사회주의선경에 날아올랐건만  
그 은정 못 잊어  
차마 그 나래 접지 못하는 집이랴오  
굴뚝없는 발전소마을이랴오

# 불빛에 대한 생각

주 경

멀리 가까이  
창가마다에 흐르는  
아름다운 불빛을 바라볼 때면  
내스스로 묻는 말

내 불빛의 소중함을 알고 살았던가

내 철없던 그 시절  
꺼질줄 모르던



고마움의 불빛속에 커가며  
반생을 넘어 살면서도  
불빛이 그리운줄 몰랐거니

하나, 둘 집집의 창가마다  
불빛이 꺼지던 시련의 나날  
내 나서 처음으로 불빛의 귀중함을  
심장깊이 깨달았구나

그 누가 가져다주는것이 아니어서  
언 땅을 파헤치고 천년암반을 열던  
그 치열한 낮과 밤속에

불빛은 어디에 있었던가

없는것은 찾아내고  
부족한것은 만들어내며  
맨주먹으로 발전소를 일떠세우며  
나는 알았노라

아, 황홀한 불빛이 흐르는  
불야성 이론 이 땅을 바라보며  
내 한생 조국의 빛으로 살  
창조의 불빛을  
나는 심장에 먼저 켜다!

## 아 는 가

김 정 곤

아는가  
마식령 깊은 골바닥  
돌 하나 들치면 산가재가 기여다닌 실개울자리  
너 한삽 나 한삽 파올러  
동해를 떠울긴듯 물이랑 일쿠며  
꿈같이도 대인공호수가 출렁이고있음을

아는가  
만년대계 장엄한 언제  
막돌을 끌라 돌기지를 땀 허리아래 오던것이  
네 힘 내 힘 합쳐 바위도 맞들어 쌓아올리니  
저렇듯 하늘을 치받으며 솟아오른것을

아는가  
장군님 결심하시면 우리는 한다  
이 신념 하나면

무에서 유가 생겨나고  
서편으로 부정세월처럼 흐르던 고미탄줄기도  
동편으로 휘잡아 돌려세워  
광명으로 두리를 눈부시게 하는  
락원의 불야성으로 황황 불불게 된다는것을

아는가  
일판을 벌릴 때 첫삽자리는 작아도  
일을 마무리한 오늘에 바라보니  
놀랍구나  
천지개벽한 저 엄청난 창조물에  
너와 나 우리들 손때가 묻어있다는것이  
돌격대모자에 자꾸만 빠져지는 앞머리칼  
쓸어올리며 다시 또 쳐다보니  
그사이 우리 가슴도 산악같이 커져  
저 높은 언제도 다 내 어깨아래 선것 같구나

## 자 갈 을 입 니 다

강 승 계

발전소를 건설하며  
우리 눈이 밝아졌어요  
무심히 보아오던  
저 강변의 자갈들이  
그리도 귀한것임을

굽이 빠진 소랭이를 바뀌가며  
한소랭이  
옷을 흠뻑 물에 적셔가며  
또 한소랭이 모으는 자갈이  
우리에게 창조의 보물이고

흔하디흔한 그 자갈도 모자라  
강변을 다시 파고  
강바닥을 다시 긁어 파올리며  
모으고 모으는 그 자갈이  
우리에게 량심의 채부여서

그 자갈에 티묻어  
언제에 틈이 생기면 어찌랴  
그래서 우리 녀인들  
쌀을 일듯  
자갈을 일며  
애국의 그 마음도 함께 입니다



# 그가 바란 것은

김 동 호

바람 한점 없는 잠풍한 날씨가 구룡천골짜기에 찾아들었다.

하늘중천에 정반같은 보름달이 두둥실 떠서 숲과 골짜기와 줄줄이 뻗어간 길가에 그리고 돌격대병실의 창가에 푸르스름한 은빛광채를 뿜어던지었다.

하많은 사연을 안고 나와 속삭이려고 손저어 부르며 반기는것은 아닐가.

준공식을 끝낸 이밤은 얼마나 감회가 깊은것인가. 출판사기자인 나와 한고향내기인 원산청년발전소건설돌격대 불도젤책임운전수는 나를 마주보며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원산청년발전소건설장에서 위훈의 창조자들이 수많이 나왔어. 그들을 만나보면 감동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을수 있을텐데 나한테서야 뭘 들을게 있겠나.》

《그들에 대한 이야기야 이미 지상에 많이 나갔구 보도에도 널리 소개되지 않았나. 돌격대지휘부 정치부장의 각별한 권고도 있는데다 한고향친구이구 군사복무의 나날도 함께 보낸 자네의 이야기를 꼭 듣고싶었네. 얼마나 보람찬 위훈의 나날을 발전소건설장에서 수놓아갔겠나.》

《정 그렇다면...》

그는 내가 권한 담배를 한가치 받아 피우며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원산청년발전소건설이 한창 진행되고있던 어느날 해질무렵에 곱살하게 생긴 녀성동무가 우리 중기계대대에 찾아왔었네.

100여리 험한 산구배길을 걸기도 하고 화물자동차를 잡아타기도 하면서 웅근 하루품을 들여 언제건설장이 지척에 바라보이는 지휘부에 도착했는데 길세가 어찌나 사나운지 길바닥이 온통 질적질적한게 발도 옮기기가 힘들었다고 하지 않겠나.

지휘부에 들어서니 허우대 큰 일꾼이 자기를 반겨맞아주며 《로정옥동무란 말이지. 매번 지원물자를 많이 보내온 녀성이 바로 동무였됐구만. 우리 청년돌격대원들이 동무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나 없을거요.》 하더라는거네. 그러면서 자

원해은 사연을 말하자 한동안 찬찬히 여겨보더라는거네.

《동문 배우였다지. 여긴 무대가 아니라 건설장이요. 대자연과 맞서 싸우는 전투장이란 말이요. 총포성이 울리지 않구 화염이 없을따름이지. 겨울에는 평평 언 강냉이밭덩이를 씹어삼키기도 하면서 흙을 등짐으로 저나르구 밤엔 기껏 네댓시간 눈을 붙이고나서 얼음을 녹여 세면을 하고 가파로운 산밭을 뚫아올라야 하오. 괜히 후회하지 말구 어서 돌아가시오.》 하더라는게 아니겠나. 그래서 이겨내겠다고 배심 좋게 뻗치었다는거네.

《말처럼 쉬우면 얼마나 좋겠소.》

《저는 마음먹고 못한 일이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제일 어렵고 힘든 중기계대대에 배치해주십시오.》

이렇게 끈덕지게 매질을 찼다면서 우리 중기계대대에 와서 대대장동무보고 불도젤운전수로 배치됐었다고 당돌하게 말하는것이 아니겠나.

우리 운전수들은 모두가 놀래며 입을 하 벌리었네.

《불도젤을 운전할줄 아오?》 대대장의 어이없어하는 물음에 《이제 배워가지구 운전대를 잡겠습니다.》 이렇게 버젓이 대답하더군.

그 말에 대대장은 물론 우리 운전수들이 모두가 아연해졌더랬네.

대대장은 이미 러단지휘부에서 전화를 받은 뒤여서 그가 예술단에서 성악배우로 있었다는것을 알고있었네.

《소원이 정 그렇다면 후방부에 가서 일하십시오. 내가 후방부러단장한테 전화를 해줄테니...》

《전 후방부에서 일을 하려고 찾아오지 않았습시다. 남자들도 감당해내기 힘들어하는 그런 일을 맡겨주십시오. 불도젤 말입니다.》

그러자 대대장은 말을 못하고 껄껄 웃는것이었네.

《동문 불도젤을 아이들 완구처럼 생각하는게 아니요? 군대로 말하면 땅크나 다름없는 무쇠철마란 말이요. 그래서 불도젤을 중기계대대에 당라시켰는데 운전수들이 모두가 억대우같은 장사들이요. 그런데 비둘기처럼 곱살하게 생긴 동무가 뭐 불도젤운전수가 되겠다구. ... 동무의 심정을 알

만한데 후방부에 가셔도 일단 잘하면 응당한 평가를 받을수 있을게 아니요. 수많은 지원물자를 보내온것만으로도 당당하지.》

《예?! 그래 내가 그런 녀성으로 보입니까. 제가 지원물자를 마련해보낸것은 량심이 가리킨것입니다. 정말이지 강원도사람치고 여기 원산청년발전소건설장에 지원나오지 않은 사람은 머리를 쳐 들고 살수가 없지요. 량심이 허락치 않아 준공된 다음에 전기스위치를 어떻게 누르겠습니까. 전 그래서 달려나온겁니다.》

그러면서 그 처녀는 제일 급수가 높고 오랜 운전수한테서 견습을 받게 해달라고 떼를 쓰며 내 이름을 딱 찍는것이 아니겠나. 어느 누구도 그를 맡겠다는 운전수가 나서지 않았으나 대대장은 그의 요구를 나한테 내려먹이는것이였네. 이렇게 되어 우리 소대에 소속된 그 처녀는 며칠간 대대지휘부와 중대병실에 벽지도 바르면서 자질구레한 일을 하였네.

그리고 남자들의 손이 미처 가지 못한 구석들을 찾아다니며 알뜰하게 손질해놓았고 운전수들의 작업복도 말끔히 빨아주었네.

그때부터 씩씩하게 대하며 말조차 건네지 않던 운전수들이 그와 우스개소리도 하려들었네.

그 처녀의 견습을 맡은 나는 별로 달가와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별반 나무라지도 않았네.

그저 그 처녀보고 처녀가 하필 불도젤운전수가 되려고 그다지나 안달이 나서 그러는가고 몇번 엇드레질을 했을뿐이네. 그때마다 그 처녀는 이렇게 말하는것이 아니겠나.

《나는 승벽이 매우 센 여자예요. 그래서 남들이 못한다는 일은 기어코 하겠다는 배심을 가지고 접어들곤 해요. 책임운전수동지를 비롯해서 모든 운전수동지들이 하나같이 저보고 불도젤운전은 절대로 못한다고 하기때문에 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기어이 해내고야말겠다는 생각을 더욱 굳히게 되었어요. 저는 한달이면 운전면허증을 받을수 있게 기술을 배우겠습니다.》

그 처녀는 이에만 그치지 않고 곰살궂게 바싹 달라붙었네.

《책임운전수동지, 저를 친누이동생처럼 생각하구 도와주세요.》

《진짜 동무가 내 누이동생이 돼줬으면 얼마나 좋겠소. 우리 집안은 조상대대로 여자가 그리운 집안이여서 누이가 없는게 얼마나 한스러운지 모르겠소. 동문 지금 나이가 몇이나 됐소?》

《어디 맞춰보라요.》

《시집갈 나이쯤 됐을것 같소. 맞지!》

그러자 처녀는 웃으며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네.

《꼭 맞혔어요. 책임운전수동진 진짜 척 보면 삼천리구만요.》

처녀는 쌍꺼풀진 까만 두눈에 정기를 담으며 미소지었네.

《더 이틀데 있소. 내 눈은 결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까지도 다 들여다보는 투시경이란 말이요.》

《예, 그런것 같아요.》 하며 살짝 불우물을 짓는것이 아니겠나.

그날부터 그 처녀는 노상 《풍년》 호불도젤에 나와 붙어있었네.

기계부분품청소와 기름넣는것은 인차 익숙되었지만 운전기술만은 좀처럼 몸에 배지 않아 애를 먹었네.

육체가 도저히 따라서지 못했던거네. 가뜩이나 녀성의 몸인데다 몸매가 여리고 키가 작아서 그 육중한 불도젤을 드다루기에는 어린애가 바위돌을 굴리려는 격이었었네. 체동기를 한번 밟재도 온몸의 힘을 깡그리 한쪽발끝에다 집중해야만 하는데 그러자면 자리에서 반쯤 일어나야만 했네.

《보라구, 남자들도 베차하는걸 동무가 그 어린 몸으로 어떻게 감당해내겠다구 그러나. 육망만으론 안돼. 동무의 그 정신력에는 나도 머리숙어지지만 육체가 따라서지 못하는걸 어떻게 하겠소. 대대장의 말대로 후방부에 가서 일하는게 어떻소?》

그런 말을 너무도 많이 들어와서인지 처녀는 귀밖으로 흘러보내며 총알처럼 아무지게 들이대는것이 아니겠나.

《책임운전수동지, 제가 아무리 애써도 불도젤을 몰지 못할것 같습니까?》

《한두번만 말해줬소? 육망을 앞세운다구 될것 같으면 이 세상에 못해낼 일이 없지. 우리 운전수들이 나보구 뭐라는줄 아오.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됐다구 견습을 주느라구 귀중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는거요.》

《그래서 뭐라구 면박을 주었나요?》

《면박이라니... 그들도 나를 생각해서 그런거구 동무를 소중히 여겨서 동정한 말이지. 동문 성악 배우가 아니요. 처녀배우가 불도젤운전수가 되겠다니 놀라운 일이 아니요?》

《책임운전수동진 자존심도 없나요. 그게 어디 책임운전수동지를 위해서 한 말이구 나를 동정해서 한 말이예요! 모욕한거지. 저에 대한 모욕은 참을수 있어도 저때문에 책임운전수동지가 모욕당한것만은 참지 못하겠어요. 그들이 책임운전수동지앞에 와서 귀잡구 절을 하도록 하지 않나 두고보세요.》

그가 분격해서 내뿜은 말을 나는 유치원아이의 한갓 어리광처럼 느끼었더랬네.

그즈음 건설장에서는 별의별 억측이 구름장처럼 떠돌았네.

《…그 처녀는 알다가도 모를 녀자야.》  
《…이제 두고보라구. 한달도 못돼서 물러나지 않나. 온실안의 화초가 설한풍을 이겨낼게 뭐야. …》  
건설장의 젊은 친구들이다보니 무슨 말인들 오가지 않았겠나.

했어도 나를 그림자처럼 끈덕지게 따라다니며 성화를 먹이었네.

《책임운전수동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누이동생처럼 생각해줘요. 혹시 집에 가시면 우리 집에도 찾아오세요. 해방1동 12반이예요. 책임운전수동진 해안동 12반이라구 하셨지요. 신통히도 반은 똑 같군요. 저도 찾아가겠어요.》

《내가 친누이동생처럼 생각하겠다고 하지 않았소. 그래서 앞으로 대상자감도 내가 정할 생각이여서 더욱 권고하는거요. 아무리 곱게 생겼어도 처녀불도젤운전수한테 누가 장가들자 하겠소. 발전소에 몸을 잠글 생각이면 대대장의 말대루 후방부에 가서 마음드는 일을 잡으라니까! …》

《설사 책임운전수동지가 지레대로 나를 든장질을 해서 떠밀어보내자 해두 난 불도젤결을 절대로 떠나지 않을래요.》

《저를 생각해서 그러는데… 원 고집두… 꼭 하늘소발통같다니까…》

《좋아요. 누가 이기구 견디나 보지요.》

그 처녀는 악을 품고 내가 잠든 밤이면 혼자 불도젤을 드다루곤 했었네. 그러다가 글썽 한번은 밤중에 불도젤을 수렁탕에 빠뜨리지 않았겠나. 그래서 소대를 동원시키다니니 그날과제를 엄청나게 미달했었네.

우리 불도젤은 경쟁에서 항상 웃자리를 차지했더랬는데 그 처녀가 온 다음부터 견습에 시간을 바치다보니 뒤지기 시작했지.

식당마당에 대형경쟁도표판이 세워져있었는데 그걸 볼 때마다 기분이 처지곤 했어.

하지만 처녀가 얼마나 기특하게 보이던지. 그 정열과 이악성에 눈곱이 저려든 때가 한두번이 아니었었네.

그러던 어느날 대형경쟁도표판앞에서 그가 눈물을 흘리며 흐느껴울던 일이 오늘까지도 잊혀지지 않네.

자기가 오기 전까지만 해도 책임운전수동지의 붉은 줄이 제일 높이 뻗어가던것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해서 마지막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터지는것 같다는것이였네!

《책임운전수동지, 제가 책임운전수동지를 도와주진 못할망정 저때문에 작업설적이 자꾸 떨어지구 경쟁에서 뒤지니 전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할수 없지. 견습기간이 아니요. 앞으로 보충하면 되지. 그런데 문제는 동무의 몸이 감당해낼것 같지 못해 그게 안타깝소.》

그 말이 너무도 고맙게 생각되었던지 눈물을 머금으며 《책임운전수동지, 이겨내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하는것이였네.

《그랬으면 오죽 좋겠소.》

그때부터 그 처녀는 불도젤의 구조작용과 운전 에 관한 책들을 연구하면서 이를 악물고 불도젤운전에 달라붙었네.

그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처녀가 나한테 양털장갑을 주며 인정깊은 책임운전수에게 자기가 도와줄수 있는 일이 무엇일가 하고 마음을 달리던 끝에 양털장갑을 떠주리라고 마음먹었다는게 아니겠나.

나는 그가 떠준 양털장갑을 손에다 꺼봤네.

처녀의 따스한 마음이 내 가슴을 후더욱게 덥혀주었지. 처녀가 자기를 누이동생처럼 생각해달라던 말을 마음속에 깊이 되새기었네.

그런데 글썽 그렇게도 명랑하고 낙천적이던 처녀가 갑자기 입을 꼭 다물어버리구 하루종일 말 한마디없이 그저 묻는 말에나 건승 대답하는게 아니겠나. 그러면서도 내앞에서는 조금도 흐린 낯색을 짓지 않았네. 그러는 그를 보니 내 마음은 더욱 괴로왔네.

혹시 익살을 잘 부리는 젊은 친구들이 처녀의 가슴에 못이 박힐 말을 희뻘게 췌친건 아닐가?

그 처녀가 우리한테 온지 한달이 가까와오던 때여서 운전기능이 어지간히 숙련된 때였네. 그가 한달동안에 운전기술을 완전히 터득하겠다고 결심이 이루어지게 된셈이지. 물론 아직도 서툰데가 있었지만 인젠 가겠다고 해도 붙잡아두리다 마음먹었더랬네. 그러자면 빨리 처녀의 마음을 돌려 세워야 할게 아니겠나.

나는 처녀의 가슴에 언제부터 얼음장이 서리기 시작했는지 알아보고 한시바삐 녹여줘야겠다고 마음을 다잡았네.

때마침 대대전투속보원이 내 마음을 짚어보았던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것이 아니겠나.

며칠전 해질무렵에 그 처녀가 자기를 찾아왔더라는거네.

《경쟁도표판에 표시한 우리 책임운전수동지의 <붉은줄>을 제일 높이 올라가게 하고 속보에도 이름을 크게 내줘요. 저때문에 <붉은줄>이 처졌는데 내가 인차 운전기술을 만능으로 터득해가지구 밤을 패면서 보충할게요.》

《어처구니없이 놀지 말구 진정으로 책임운전수를 생각하는 마음이면 결심을 달리했어야지. 책임운전수가 하두 착하구 마음이 고우니까 동무를 맡아가지구 고생하면서도 일체 내색을 안하지만 언제 동무가 눈을 뜨고 별을 보게 되겠소. 더 끝지 말구 일찌감치 물러서는게 좋을거요. 새움처럼 애리애리한 처녀가 불도젤을 몰다니… 허참…》

《좋아요. 동무가 내 의사를 받아들이지 못한 책임을 꼭 질줄 알아요. 이제 두고보라요. 후회할 때가 오지 않나. 〈풍년〉 호불도젤은 말해줄거예요.》

하고는 머리를 곧바로 쳐들고 돌아서서 불도젤 앞으로 뛰어가더라는거네.

그날부터 처녀는 그 누가 뭐라고 하든 눈섭 한 오리 까딱하지 않고 이악스레 접어들며 《풍년》호에서 잠시도 떠나지 않았네. 화살이 뚫지 못한 바위를 락수가 구멍 뚫는다고 끝내 처녀는 자유자재로 불도젤을 몰수 있게 되었네. 도양성기관 일군들이 현지에서 자격을 검토하고 운전자격증을 주었지.

그가 운전대를 잡은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언제 중심강토진흙보강경쟁이 벌어졌네. 각 대대들에 불도젤 한대씩 배정되었는데 로정옥동문 2대대에 망라되었네.

이것을 알고 언제려단 2대대장이 부리나케 뛰어와서 벌칙 성을 내며 우리 중기계대대장한테 들이대는것이 아니겠나.

《우리 대대는 경쟁때마다 한번도 1등을 해보지 못했는데 이번 경쟁에서도 뒤전을 차지하는걸 보자구 그러나! 이번 경쟁이야 명절을 기념하여 진행하게 되는 매우 의의깊은 경쟁이 아닌가. 그런데 하필 햇병아리같은 처녀불도젤운전수를 우리 대대에 보내자는건 뭐야! 바꿔달라구. 1등을 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건 전적으로 불도젤에 달려있단 말이요.》

《하지만 어쩔수 없네. 이건 로정옥동무가 스스로 제기한거네. 자기를 제일 뒤떨어진 대대에 망라시켜달라구 말이야. 그 동무가 한번 다진 결심은 그 누구도 꺾지 못하네.》

대대장은 억이 막혀 입을 하—벌리고 돌아섰네. 처녀는 전혀 주저하는 빛이 없이 사나이들 찹찹 먹게 운전대를 짊어잡고 밤낮을 이어대군 했네. 때로는 폐식도 운전칸에서 했고 운전대를 잡고 쪽잠에 들기도 했었네.

남자운전수들이 담배를 피우며 휴식을 할 때조차 이 처녀운전수는 운전대를 잡고있었으니 남자들보다 앞서 달릴수밖에... 어디 그뿐인줄 아나. 자기가 속해있는 대대전투원들이 지쳐하면 불도젤을 몰면서 문을 열어젖히고 선동구호를 웨치며 격조높은 노래로 사람들을 불러일으키곤 했네.

결국 로정옥동무가 속한 대대가 1등을 했지.

대대장은 더 말할것도 없고 온 대대에 그에 대한 소문이 자자했네. 숙보원은 그에 대한 《특보》를 대문짝만 하게 써붙이었네.

그 며칠후 이 처녀가 한밤중에 집채같이 쌓인 흙을 밀고나가다가 무한궤도가 벗겨져 여간만 고생하지 않았네.

벗겨진 무한궤도를 녀성의 힘으로 혼자서 씌운

다는것은 참으로 힘에 부친 일이 아닐수 없지. 힘센 사나이들이 적어도 두명은 있어야만 했는데 그때 그 처녀는 무슨 정신으로 혼자 할 생각을 했던지 모를 일이었다고 하지 않겠나. 거의 열기로 중량이 나가는 리테판을 혼자 련결하려다가 종식 쇠덩이에 발등을 찔렀네.

내가 그를 업고 군의소에 달려가서 구급대책을 세워주었지.

군의협의회에서는 그를 도인민병원으로 후송하기로 했네. 렌트겐촬영을 해보고 수술을 받아야 했던거네.

그는 발등이 좀 부었을뿐이지 아프지 않으니 걸을수 있다고 우기며 뻘치였으나 청년돌격대 군의소장은 엄하게 눈살을 찌프리며 구급차를 불러들였네.

《정옥동무, 치료받고 그냥 집에 떨어지오.》

군의소장이 후송차에 실린 그를 보고 마지막으로 한 당부였네.

어쩔수없이 로정옥동문 도인민병원에 입원했었네.

그는 그때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이렇게 이야기하더군.

...발전소건설돌격대원들이 매일이다싶이 면회를 왔었는데 그날은 별로 더 많이 찾아왔었다.

집에는 알리지도 않았는데 어머니가 불쑥 나타났다. 어머니를 보는 순간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성미가 불덩어리같은 어머니가 생야단을 피울가봐 두려웠던것이다.

아닐세라 어머니는 부산을 피우기 시작했다.

《내가 뭐라던! 그 연약한 몸으루 건설장에 가서 불도젤을 몰겠다니... 그건 말도 안돼. 상상이나 할수 있는 일이니. ...》

나는 어머니의 그 말을 탓하지 않았다.

그런데 면회왔던 돌격대원들이 뜻밖에도 어머니의 말을 이렇게 받아들이며 자기 생각들을 터놓는것이였다.

《어머닌 정말 훌륭한 딸을 두었습니다. 이 동무는 건설장의 〈설죽화〉로 소문이 뜨르르하구 우리 대대의 자랑으로 되고있습니다. 얼굴 고운데다 마음 또한 얼마나 고운지. 걸불안이란 바루로 정옥동무같은 처녀를 두고 나온 말일겁니다. 총각들이 하나같이 반한답니다.》

《예구, 녀자불도젤운전수를 좋아할 젊은이가 어데 있겠수. ...》

어머니는 더이상 부산을 피우지 않았다.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몰랐다.

어머니가 눈물이 나도록 고마왔다. ...

그때만 해두 그게 무슨 소린지 미처 가늠하지

못했더랬네. 그 일은 후에야 알게 됐지.

잠시 동안을 두고 책임운전수가 담배를 한모금 깊숙이 빨아들이는것이였다.

나는 담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따라피우며 생각을 몰아갔다.

(이 친구가 자기가 해놓은 일은 덮어놓고 마지막까지 교대운전수처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는건 아닐가.)

그의 이야기는 나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키게 했다.

그는 내 마음을 짚어보았는지 이야기를 다시 이어갔다.

준공식을 얼마 앞둔 어느 휴식날이였네.

성벽처럼 쌓은 언제가 하늘을 치뚫을듯이 솟아올랐네. 이제 장마가 시작되던 구룡천에 흘러드는 물을 언제안에 채우게 되네. 그렇게 되면 대인공호수가 바다처럼 펼쳐질걸세. 그래서 물을 채우기 전에 바다에서 오락회를 벌이였네. 중기계대대장이 직접 오락회를 집행했는데 지명되면 가차없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곤 했지.

바로 이때였네. 보호색안경을 낀 낮설은 젊은이가 돌격대원들속에서 척 나서는게 아니겠나.

어쩐지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러웠네.

《오락회에서 제가 지명은 받지 않았지만 이처럼 흥겨운 자리에서 노래를 부르지 않는다면 먼 후날에도 후회가 될것 같아 노래 한곡 부르려고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의아히 쳐다보면서도 건설장이 떠들썩하게 박수를 쳤네.

《동무들, 나는 이 언제에 흠 한삽, 막돌 한개 얹어놓지 못한 앞 못 보는 영예군인입니다.》

순간 웅성거리던 오락회장이 물뿌린듯 조용해졌네. 모두의 눈길이 그한테로 쏠리였지.

《허나 언제가 보입니다. 산악처럼 일떠선 언제가 보입니다. 동무들의 숨결이 어려있고 구슬땀이 뿌려져있는 조국의 만년대계인 원산청년발전소 언제가 보입니다.》

순간 나는 그가 시인인줄 알았네.

또다시 박수가 터졌네.

어느덧 박수갈채의 열기가 가라앉자 그의 입에서 시가 뿜어져나왔네.

알지 못해라 언제부터  
나의 가슴에 깃들었는지  
아마도 그것은 나의 첫삶과 함께  
이미 조용히 자리잡은것이리

...

그렇다, 조국은

수령님 찾아주신 우리의 삶

수령님 안겨주신 우리의 궁지

영원한 영원한 그이의 품

그 품이여라!

조국이여 나의 조국이여

시 《나의 조국》이였네.

시랑송이 끝나자 또다시 박수가 건설장을 휩쓸었네.

《이번에는 제가 혼성2중창을 부르려고 합니다. 같이 부를 녀성동무를 지명해도 되겠습니까?》

그 말에 한동안 장내가 웅성웅성했네.

처녀들의 눈길이 그한테로 쏠리였지. 그중에는 자기가 지명되길 은근히 바라는 처녀도 있었는지 모르지. 난 그가 정옥이를 꼭 짚기 바랬네. 뜻밖에도 그가 내 마음을 알아주더군.

《그럼 제가 지명하겠습니다. 발전소건설장의 녀성불도젤운전수 로정옥동무하구 함께 부르겠습니다.》

그가 이렇게 지명하기 바쁘게 미리 준비하고 있던것처럼 아무런 구김새없이 정옥동무가 척 나서질 않았나.

이미 서로 약속이나 한듯 인차 노래를 불렀네.

...

빛난 혼장 가슴팍에 내 집으로 돌아가면

사랑하는 부모처자 두팔로써 안기리

사랑하는 부모처자 두팔로써 안기리라

글쎄 《전호숙의 나의 노래》의 후렴구부터 똑같이 먼저 부르는것이 아니겠나.

노래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오르는 속에 네댓살에 났음직한 어린 총각애가 넋뻑 《아버지-》하고 그 젊은 영예군인한테 쿵쿵 뛰어가서 안기였네.

(아-니, 그럼?!...) 못사람들의 입에서 감탄의 목소리가 울려나왔네.

그가 아이를 덥석 끌어안자 《아버지, 나 목마래워달라, 저-길 보게.》 하며 언제쪽을 손짓했네. 그러자 곁에 서있던 정옥동무가 《청송아, 아버지가 힘들어하셔.》하고 아이를 달래어 안았네.

그런데 그한테 안긴 어린것이 이마우에 흘러내린 그의 머리칼을 쓸어넘기며 《엄마가 오늘은 고와줬어.》 글쎄 이러질 않았나.

《넌 정말 못하는 소리가 없구나.》

《정말이야! 엄마, 앵무새가 새끼를 짖어. 얼마나 고운지 몰라, 엄마처럼!...》

그러자 그가 어린애의 빨간 볼에 입술을 꼭 가

저다대더군.

정옥동문 그 애가 왜서 그런 말을 하게 되었는데 그날 밤에야 나에게 사실대로 다 이야기해주었네.

...내가 한창 기세를 올리며 성수가 나서 일하던 어느날이었습니다.

기발을 든 신호수처녀가 불도젤을 물고있는 내 앞으로 달려와서 어떤 어머니가 손자애를 데리고 찾아왔다고 언제쪽을 가리키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날 책임운전수동지가 처음으로 나에게 불도젤을 통채로 맡겨주고 급한 일이 제기되어 집으로 내려간 후에 있는 일입니다.

나를 믿어주는 책임운전수동지의 그 마음이 너무도 고마워 실컷 일해보리라 마음먹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일에 몰혀 주위에는 전혀 무관심했었습니다.

나는 발동을 끄고 불도젤에서 내리기 바쁘게 언제쪽을 향해 장달음쳐갔습니다.

저만침에 서서 이쪽을 지켜보고있던 시어머니가 다섯살난 어린 청송이를 가볍게 떠밀며 《저기에 어머니가 오지 않니. 어머니한테 가자고 그렇게 조르던 이 애가 어떻게 된거냐, 어머니야! 어머니가 맞아.》 하고 말해서야 어린것은 타박타박 내앞으로 걸어오는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멈춰서는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고는 손가락을 입에다 물고 머루알같은 두 눈을 크게 뜨며 나를 말뚱말뚱 쳐다보더군요.

아들애를 보는 순간 잠든 애를 그냥 두어두고 집을 나서던 일이 눈앞을 가리우며 목구멍이 꺾 막히는것을 어쩔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덥석 끌어안을 생각조차 못한채 한자리에 굳어져버렸습니다.

《애야, 청송아, 어머니다!》  
했으나 아들애는 그냥 손가락을 입에 문채 도리머리를 저었습니다.

무춤 멈춰선 나는 눈물이 왈칵 쏟아질것 같은게 정말 참기 어려웠습니다.

(저 애가 어머니를 알아보지 못하는구나. 피약별에 까맣게 탄 얼굴과 폭 눌러쓴 싸리안전모와 작업복...)

나는 눈물을 삼키며 뛰여가서 아들애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목메여 불렀습니다.

《청송아, 나 엄마야, 엄마!》  
나를 말뚱말뚱 쳐다보던 청송이는 그제서야 《엄마》 하고 나의 품에 얼굴을 묻는것이었습니다.

그 광경을 바라보고 서있던 시어머니가 다가서며 손수건으로 눈굽을 짖어내고있었습니다. ...

로정옥동무가 처녀가 아니라 아들애를 가진 어머니라는걸 이야기하다보니 도중에 이야기가 좀

빚나갔는데 량해하라고.

그날 오락회장에서 아들애를 안은채 잠시 생각에 잠겼던 정옥동무가 《어머니가 우리 청송이를 비행기태워줄게.》 하고 아이를 하늘높이 추켜올리는것이었네.

《자—봐라, 저—기 보이는게 언제야!》

그 순간 그에 대한 감탄의 목소리가 사람들의 가슴가슴에서 뿜어져나오며 박수가 터졌네.

로정옥동문 다섯살난 아들애의 어머니였구 김려수라고 부르는 영예군인은 그의 남편이었네.

그가 그때까지 왜 자기를 드러내보이지 않았는가 하는것은 구태여 설명하지 않으려네.

전에 그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찾아온 어머니도 친정어머니가 아니라 시어머니였네.

그날 시어머니가 면회온 돌격대원들앞에서 《애, 며늘애야.》 《청송 에미야.》 하고 부를가봐 속이 한줌만 했더랬다는거야. 다행스럽게도 시어머니는 《비밀》을 지켜줬더랬지. 건설자들 모두가 처녀로 알고있다는데 절대로 로출시키지 말라고 어머니한테 신신당부하며 《비밀》을 받기 한것이 려수동무였다고 하네. 어머니가 무척 고마웠지만 그의 마음을 알아주는 려수동무가 더없이 고마왔다는거네.

하긴 그가 발전소건설장에 나가겠다는 마음을 먹었을 때 적극 지지해준것이 려수동무였고 그를 진심으로 떠밀어준것도 역시 남편인 그였다고 하더군.

그때 시어머니는 그를 이렇게 달래려들었다고 하네.

《며늘애야, 네가 발전소건설장에 자원해가겠다니 그건 정말 장한 일이다. 그러나 네가 집에 없으면 애가 너를 얼마나 찾겠니. 그리구 네가 늘 곁에 있어 밝은 웃음속에 살아가는 너의 남편이 아니냐.

나라에서는 특류영예군인을 잘 돌봐주라고 영예군인안해들에게 온갖 배려를 다 돌려주고있지 않니.》

그러자 려수동무가 어머니의 마음을 따뜻이 덤혀주었다고 했었네.

《어머니, 이 사람이 그렇게 결심을 내린것은 내가 그걸 바라서 그런겁니다. 내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 나는 전적으로 찬동입니다.》

사실 정옥동무가 원산청년발전소건설장으로 자원해가리라 마음먹은것은 려수동무가 바라본것이 무엇이었구 그가 지금 기대하는것이 무엇인가를 가슴에 새긴 순간부터였다네. 그때까지도 그의 마음을 미처 몰랐겠지. 그는 무척 대범하면서도 그 심연을 가늠하기 어려운 내성적인 사람이라는거야.

그렇게도 밝고 명랑하던 그가 그즈음에 점차 말이 적어지며

《여보, 지금 원산청년발전소언제가 얼마나 높

이 올라갔는지 알아봤소?》하고 때아니게 묻곤 하더라.

그가 미처 대답을 못하자 려수동문 무겁게 한숨을 내그으며 언제가 완공되면 인차 준공식을 하겠지 하고 혼자소리처럼 뇌이더라네.

그 말이 그의 가슴을 뿌듯하게 적셔주었더랬지. 결코 려수동문 자기가 특류영예군인이라고 해서 안해가 자기 하나를 돌보며 집에 불박히 있을것을 바라지 않았네.

그러던 어느날 저녁 안해를 가까이 부르더니 이렇게 말했다네.

《여보, 오늘 아침 장군님께서 원산청년발전소건설장에 찾아오시었다는 보도를 들었을테지.》

《예, 들었어요.》

그러자 그가 눈물을 머금고 이렇게 목메어 말했다는 것이었네.

《우리 장군님께서 화물자동차도 겨우 다니는 100여리 진창길을 토폴아가시다니… 길세가 얼마나 험하던지 20대의 젊은 나이에 군관이었던 나도 겨우 찾아갔겠소.》

《…》

《그이의 걸음을 털어드리는 길은 우리 군인들과 청년들, 우리 인민모두가 제구실을 똑바로 하는거라고 보우. 그런데 나는…》

그 순간 그의 가슴에서 불뭉치같은것이 솟구쳐올랐다는거네.

그래서 자기 마음을 비쳤더니 그가 자기 손을 꼭 부여잡으며 《고맙소.》 하더라.

《태일 당장 떠나오. 난 오래전부터 그걸 바랐지만 당신을 너무 고생시킬것 같아서 차마 말하지 못했던거요.》

《그런데 막상 당신결을 떠난다고 생각하니 발걸음이 떨어질것 같지 않아요.》

《무슨 소릴 하오. 나 하나의 존재가 무엇이랴구… 발전소언제에 돌 한개도 없어놓지 못하는게 더없이 가슴아픈데 당신마저 그 결심을 포기하고 주저앉는다면 우리가 조국과 시대앞에 무슨 면목으로 뗏뗏이 숨쉬며 살아갈수 있겠소. 내 걱정은 말고 태일 꼭 떠나오.》

이렇게 끝날같은 마음을 다잡고 큰걸음을 내짚었지만 자식을 가진 어머니의 마음이란 체 살볼이를 잊기가 결코 쉬운것이 아니었다는거야.

남편생각, 자식생각, 집생각… 이런 잡념에 빠지다나면 처음에 품었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는 드물지 않는 《강철기둥》이 가슴에 꽂 박혀있어 웅근 다섯달을 불도젤에 붙어있었지만 잊자 해두 잊혀지지 않는것이 아들애의 생각이였다고 하였네. 그래서 부속품 가지러 가던 길에 집에 들렀었다며 이렇게 말하더군.

책임운전수동지도 생각나실겁니다.

제가 왜 갑자기 《부속품타령》을 했는지… 책임운전수동진 번연히 저의 속마음을 들여다보시면 서도 현현히 승인해주셨지요. 얼마나 고맙던지…

집에 발을 들여놓자 아이를 잠재우느라고 누워있던 애아버지가 《아니, 당신이 아니요?!》 하며 자리를 차고 일어나는것이였습니다. 글썽 내 발자국소리를 듣구 대번에 알아맞히더군요.

나는 눈곱이 시큰해지는것을 어쩔수 없었습니다.

나는 잠든 아들애의 입을 꼭 맞춰주며 두볼을 마주 비비였습니다. 했어도 장난꾸러기녀석은 어데 가서 놀다가 녹초가 되였는지 업어가도 모를상 싶었습니다.

《여보, 애가 깨어나겠소. 조용조용 말하오.》

그 말이 얼마나 뜨겁게 내 가슴을 울려주던지. … 내가 극력 목소리를 낮추었는데도 점점 더 말이 크게 울려나오자 《여보, 옷방에 올라가지요.》 하는것이였습니다. 했어도 나는 아이가 보고싶어 그 자리에 눌러있었습니다.

《정말 당신이 견뎌내기 힘들었을거요. 아이와 반년가까이 떨어져있지 않았소.》

그 말이 더욱 가슴을 허비여 점도록 아이를 지켜보며 코등에 내뺨 땀을 살며시 씻어주었습니다.

《불도젤운전을 배운다는게 말처럼 쉬운게 아니였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힘겹구 견디기 어려운것이 귀여운 청송이를 보고싶은것이였어요.》

내가 이럴수록 그의 가슴이 더 아프리라는 생각이 들어 어서 자리를 떠나 하리라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자는 아이라도 보고나니 한결 마음이 가벼워져요.》

내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는것을 보고 《하루밤이라도 쉬다 가오. 어머님이 당신이 오면 닭곰을 해주겠다구 집에서 키운 감장암닭이 얼마나 살이 피둥피둥 졌는지 모르오. 단너삼도 구해다 놓은지 한달이 넘었소. 어머니 잠시 어데 나가실때도 당신이 집에 오면 닭곰을 해서 먹여보내겠다구 신신당부하셨소. 상점에 갔으니 인차 오실거요.》 하시더군요.

그 마음이 가슴에 찌르르 젖어들었습니다.

《어머님께 잘 말씀드려줘요. 일감이 밀려서 내가 한시도 자리를 뜨면 안된다구… 부속품 가지러 왔다가 얼핏 들렀다구 잘 리해시켜줘요. 청송이한테는 어찌했어요. 어머니가 오지 않았댔다구 말하는수밖에…》

나는 아이가 께세라 발을 저겨디디며 문을 나섰습니다. 그이도 뒤따라섰지요. 아이결에 눌러앉아 있으라는데도 어디 말을 들어야지요.

프락을 벗어나 길가에 나서기까지는 열발자국도 못되었지만 천리길같이 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차라리 아이를 깨워서 한마디라도 말해주고 가야 하지 않을까. 어머니가 다섯밤 자고 오겠다고 한 약속을 왜 안 지켰는지 네가 크면 알게 될거야! 그냥 가자, 이대로 내쳐 가는 길이 아들과와의 약속을 더 잘 지키는 길이구 만나는 길을 앞당기게 될것이 아닌가!

건설장에 돌아온 그날부터 나는 불도젤과 함께 밤과 낮을 이어왔습니다.

진짜 용감한 사람은 쓰러지지 않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천백번 쓰러지더라도 천백번 꺾끗이 일어나서는데 있다는 철리를 다시한번 가슴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

불도젤책임운전수는 나에게 물었다.

《자네 원산청년발전소건설지휘부에 도착했을 때 몸집이 체소한 책임일군을 만났다고 했지.》

《그렇네. 정치부장이 그에 대해 칭찬하더군. 강원도인민위원회 로부위원장이 원산청년발전소 건설을 책임지고 도내 인민들과 함께 밤낮을 이어대며 전투를 벌린 결과 오늘 이처럼 큰 영광을 지니게 되었다고 하면서 인사시켜 만났됐네. 칠십고령에 이르렀더군.》

《그게 누군줄 아나. 로정옥동무의 아버지네. 로력영웅이야!》

순간 나는 걱정의 파도가 온몸에 굽어쳐흐르는 것을 느끼었다.

그 아버지께 그 딸!

오늘 얼마나 아름다운 인간들이 우리 시대의 대하를 이루며 강성대국의 려명을 향해 도도히 전진해가고있는것인가!

《로정옥동문 남들이 넘겨줬었던것처럼 그 어떤

〈명예〉를 바라서 원산청년발전소건설장에 달려나와 사나이들도 다루기 어려워하는 불도젤운전대를 잡은게 절대로 아니였네. 하다면 그가 바란것이 무엇이였겠나.》

불도젤책임운전수인 나의 친구는 감격에 젖은 목소리로 이렇게 묻는것이였다.

나는 별로 오래 생각지 않고 느낀바를 그대로 터놓았다.

《글쎄 무엇이라고 할가. 그에 대해서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말했구 또 얼마나 많은 글을 썼됐나. 문제는 우리모두가 그걸 심장에 깊이 새기구 한생을 티없이 깨끗하게 끝바로 걸어가는 길이라고 보네.》

나의 친구는 묵묵히 나의 손을 꼭 끌어잡더니 천천히 일어나서 창문가로 다가가는것이였다. 그리고는 창문을 활짝 열어제끼고 산악같이 일떠선 언저아래 바다처럼 넘실거리는 대인공호수를 바라보며 이렇게 당부했다.

《참으로 잊을수 없는 동무야. 그에 대해 꼭 써주게.》

마치 그의 모습은 큰일을 치르고난 사람처럼 숨엄해보였다.

그의 이야기는 나에게 너무나도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그래서 나는 기사를 쓰자던 생각을 단념하고 소설을 쓰리라 마음먹었다.

달아오른 우리 두사람의 가슴을 식혀주려는듯 호수에서 생긴한 물냄새를 실은 서늘한 바람이 불어왔다.

이제는 밤도 퍼그나 깊었음을 말해주듯 달도 어지간히 기울어지였다.

## 천막친구들

하영수

발전소건설장에서  
처음 만났어도  
우리는 낯설지 않은 천막친구들  
모여앉은 이밤  
밤은 깊어가도 잠들수 없구나

중학교교문을 나선 걸음으로  
달려온 친구  
망망대해를 주름잡던 어로공총각  
기계공장 선반공...  
이렇게 모여앉으니 한집안같구나

태어난 고장과 나이를 두고  
서로 나누는 이야기도 유별해  
나는 형  
너는 동생  
또 너는 막내이라  
혈육의 정으로 깊어가는 밤

위훈을 안고 자랑을 안고  
고향에 가리  
두고온 일터의 벗들에게  
안해에게 아이들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처녀에게  
안겨줄 기쁨 가슴가득 채워가는 밤

아 창조의 희열을 안고  
선군시대 기념비를 일떠세운 그날  
친구들이 우리 추억하자  
이 천막의 첫밤을

밤은 깊어도  
마음속에 간직한 생각 하나같이  
건설의 새 전투장에 보급자리 펴고  
우리 천막에서 나는 우정  
위훈으로 이어갈  
원산청년발전소 건설장의 밤이여

# 아홉살 꽃망울 향기에 대한 감동깊은 형상

— 중편실화문학 《나도 아홉살》에 대하여 —

백진향

중편실화문학 《나도 아홉살》(리준길 작)은 선군시대에 태어난 소녀영웅 유향림렬사를 형상한 작품이다.

유향림은 평양시 대성구역 영예의 붉은기평양미산소학교 2학년생이었다. 9살밖에 안되는 어린 소녀는 뜻밖의 정황에서 얼마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할 수 있었으나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정신을 과감히 발휘하고 또하나 아홉살 꽃망울로 사람들의 가슴에 영생의 향기를 그윽히 풍기고있다.

지난 세기 1930년대 항일무장투쟁시기에 9살의 금순이가 가장 나 어린 혁명가로 세계를 진동시켰다면 력사의 광풍속에서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강성대국으로 솟구치는 선군시대에 또 하나 9살의 소녀영웅이 태어난것은 얼마나 의미심장한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선군시대 우리 어린이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높이 평가하시고 그에게 《김일성소년영예상》을 수여해주시였고 미산소학교를 《유향림소학교》로 명명해주시였으며 학교에 그의 반신상을 세워주시였다.

작가는 선군해님의 품속에서 영생의 삶으로 피어난 9살 소녀영웅의 모든것을 알고싶어하는 독자들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실화문학양식을 택하였다.

이 작품의 문학적탐구에서 의의있는것은 무엇보다도 종자의 탐구이다.

작품의 종자는 절정인 6장의 제목그대로 《꽃망울향기》이다. 주인공의 성격도, 이야기줄거리도 이 종자를 형상의 씨앗으로 하여 꽃피웠다.

작품의 첫 부분(1장)에서 아버지는 향림이에게 이렇게 말한다.

《내가 네 이름을... 온 나라에 향기 풍기는 숲이 되라고 그렇게 지었다단다.》

《사람두 향기를 풍긴단다. 네가 오늘 경애하는 대원수님과 아버지장군님의 초상화를 잘 모실 준비를 해가지구 학교에 간전 정말 좋은 일이다. 그렇게 바로 향기란다.》

이렇게 종자는 암시되기 시작한다.

조국의 운명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흠모심과 결사옹위정신은 우리 시대 인간들의 가장 고결한 아름다움이고 향기이다. 미적이고 감성적인 향기는 어린 독자들에게도 쉽게 납득되는 진리이다.

부모의 소원과 기대를 나타내는 이름자에 담

놓은 사상적의도는 애 어린 주인공의 형상에 매우 적중하다.

탐구된 종자는 주인공의 성장을 보여주는 이야기줄거리속에 깊숙이 뿌리박고 철부지 어린 소녀가 선군시대 꽃망울로 향기 풍기게 되는 전반형상을 규제하고있다.

종자—꽃망울향기가 이야기줄거리를 펼치는 형상의 씨앗으로 되는것은 6개의 장구성과 제목들이 잘 보여준다.

《제1장 신입생 유향림》, 《제2장 유치원시절의 이야기》는 사건발생, 환경전개로서 부모의 보살핌속에 주인공의 가슴에 티없는 깨끗한 신념의 씨앗이 심어지는 과정이다.

사건발전을 이루는 《제3장 룡남산언덕에서》 주인공은 《새벽소녀》에게 공감되어 은방울꽃을 키워낼 결심을 지니며 《제4장 자라는 마음》, 《제5장 은방울꽃》에서는 아동단원 금순이처럼 살려는 불타는 지향을 안고 몰라보게 성장하면서 은방울꽃을 끝내 아름답게 피워낸다.

《제6장 꽃망울향기》는 타래치는 불길속에서 백두산3대장군의 초상화를 구원하고 향기 풍기는 절정과 해결이다.

영생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 주인공의 반신상은 그대로 수백수천 새 세대들에게 수령결사옹위의 그윽한 향기를 내뿜는 종자의 집중적구현이고 해명이다. 이 대목에서 토로되는 자연의 꽃은 활짝 피어야 향기 풍기지만 선군시대 인간들은 애 어린 꽃망울시절부터 향기 풍긴다는 작가의 말은 작품의 예술적형상에 대한 총화로 설득력이 크다.

이처럼 작품은 수령결사옹위의 숭고한 높이에 오르는 주인공의 성장과정을 은방울꽃을 활짝 피워 향기 풍기게 하는 이야기줄거리와 밀착시킴으로써 성격과 사건을 통일시키고 작가의 의도가 형상적화폭속에 스스로 안겨오게 하였다.

종자, 꽃망울향기에는 심오한 생활의 진리가 담겨있다. 우선 꽃망울도 생의 절정에 오를수 있다는것, 인간의 아름다움은 나이나 생활경험에 관계되는것이 아니라 수령에 대한 순결한 흠모심과 수령결사옹위정신을 지니는데 있다는것이다.

중편소설 《그는 아홉살이었다》는 아홉살 금순이와 예순나이 변절자와의 대조적인 형상을 통하여 나이가 아니라 혁명적지조를 지키는데 인간, 혁명가의 참된 삶이 있다는것을 밝혔다면 중편실

화문학 《나도 아홉살》은 순결하고 절대적인 충정을 지닐 때 애 어린 꽃망울도 수령결사옹위의 고결한 향기를 풍기며 삶의 절정에 오를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

현시기 일심단결의 위력을 강화하는데서 근본적인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에 관한 사상으로 작품은 새 세대들을 힘있게 불러일으켜준다.

수령결사옹위의 위훈은 순간에 저절로 발휘되지 않으며 어려서부터 가정과 학교에서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티없고 절절한 흠모심을 키워야 한다는 사상을 밝히어준다.

작품의 종자가 체현한 깊은 뜻은 또한 꽃망울도 향기 풍기는 기적적사실은 선군시대에 경애하는 장군님의 품에서만 있을수 있는 일이라는것, 경애하는 장군님은 영생의 품이라는것이다.

유향림의 빛나는 삶은 경애하는 장군님을 높이 모시여 영생의 언덕에 오르게 된다.

이처럼 종자는 선군혁명의 시대에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정신을 삶의 진리로 밝히고 영생의 품—경애하는 장군님을 모신 무한한 행복과 긍지감, 불타는 충정으로 이끌어줌으로써 독자들에게 안겨주는 사상미학적감화력이 비상히 큰것이다.

동시에 동심에 맞게 성격과 사건, 형상과 의도를 통일시킨 형상의 씨앗으로 종자를 탐구해명한 것은 실화를 아동문학의 웅대한 높이에 끌어올린 비결로 되었다.

작품이 거둔 성과는 다음으로 수령결사옹위정신을 핵으로 하는 선군시대 참된 소년단원의 전형을 창조한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아동문학은 마땅히 우리 어린이들의 높은 정신상태에 맞게 형상을 창조하여야 한다.》**

작품은 주인공의 사상의식의 성장과정을 세 단계로 형상하였다.

첫 단계는 부모와의 관계를 기본으로 일찍부터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흠모의 마음이 심어지는 과정이다.

보고 듣는 모든것을 순진하게 받아들이는 어린 아동들의 교양상태는 전적으로 교양자들에게 관계된다. 따라서 작품에서 부모, 교원과 같은 성인형상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향림이의 첫 교양자는 부모 특히 조선인민군 군관인 아버지이다.

아버지는 향림이의 훌륭한 거울이었다. 사랑의 햇복숭아를 맛있는 과일로만 먹는 향림이에게 아버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을 새겨주고 초상화앞에서 함께 인사올리게 한다. 자기의 생일날에도 생화꽃병을 초상화앞에 놓고 자식들에게 오늘의 행복을 새겨준다.

아버지의 일거일동은 의식적인 교양이기 전

에 수령에 대한 충정이 생활화, 도덕화된 그자신의 사고방식, 생활방식이다.

향림이는 일상생활의 거울인 아버지를 통해 것처럼 티없는 흠모의 마음을 지니게 된다.

아버지는 또한 지극한 사랑과 풍부한 지성미를 지닌 다심하고 세련된 교양자였다.

아버지는 향림이가 방안을 휘휘 쓸며 먼지를 날리거나 잡지를 구기는 작은 잘못도 놓치지 않고 일깨우지만 그의 모습은 조금도 따분하지 않다. 아버지는 향림의 모든것을 따듯이 포섭하고 지지하면서 그의 작은 세계를 세상에서 제일 크고 아름다운 세계— 경애하는 장군님을 알고 티없이 따르며 우러르도록 이끌어준다.

아버지는 의식이 어리고 행동이 앞서는 그의 준비정도에 맞게 초상화를 정중히 모시는 정치도덕적행동에 관습되게 하는데 큰 관심을 돌린다.

향림이와 아버지의 관계가 초상화를 모시는것을 놓고 다양하게 펼쳐진것은 우리 식의 사회주의생활속에서 성격을 형상화한 의의있는 탐구라고 본다. 군인인 향림이 아버지의 형상을 창조하여 선군시대 혁명의 기둥인 인민군대의 숭고한 사상정신적, 문화도덕적풍모를 잘 보여주었으며 혁명적 군인정신이 가정과 후대교양에 깊이 침투되어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정신력이 비상히 강화되는 시대의 본질을 예술적으로 일반화하였다.

향림이 형상의 둘째 단계는 주인공의 마음에 움트는 충정의 싹이 학교교육의 영향밑에 훌륭한 모범에 이끌리면서 적극적인 지향성으로 뚜렷해지는 과정이다.

어린 아동들의 사상의식은 총동적으로 체험된 낮은 단계의 단순한 싹이다. 그것은 학교교육교양과 훌륭한 모범에 이끌리면서 보다 뚜렷한 의식으로, 지향적인 사상감정으로 심화된다.

작품은 향림이가 룡남산언덕에서 본 《새벽소녀》의 모범에 이끌리어 은방울꽃을 피워낼 결심을 품고 가족의 방조속에 끝내 제 손으로 꽃을 피워내면서 크나큰 기쁨과 감격을 체험하는 성장과정을 풍부한 생활속에 진실하게 보여주었다.

향림이를 격동시킨 또하나의 모범은 아동단원 금순이었다.

교과서와 선생님의 이야기에서 자기와 다름없는 9살의 금순이가 혁명가로 희생된 영웅적생애앞에서 큰 충격을 받고 것처럼 영웅이 될 불타는 지향을 간직한다.

향림이의 형상은 우리 혁명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뿌리로 하여 역세계 성장하는 선군시대 새 세대들의 때 이른 각성과정을 잘 보여준다.

셋째 단계는 향림이의 마음속에 싹터 자라난 숭고한 정신이 어려운 정황에 부닥쳐 수령결사옹위정신으로 유감없이 발휘되는 부분이다.

타래치는 불길, 공포감, 불을 꺼보겠다고 물

을 끼었었으나 더 세계 이는 불길, 알려야 한다는 뒤늦은 자각에 문을 나서려던 순간, 바로 그 순간에 향림이는 지금까지 제일 소중히 모셔온 백두산3대장군 초상화를 생각하게 된다.

문을 열고 나오면 뜨거운 열기도, 공포도 다 없어지겠으나 어린 주인공은 초상화를 보위해야 한다는 하나의 생각으로 키가 모자라 받치개를 찾아놓으면서 끝내 안전하게 모셔낸다. 이처럼 향림이는 생사판가리의 위기속에서 상상못할 용감성을 발휘하여 수령결사옹위정신을 떨치는 어린 투사의 높이에 오른다.

9살 소녀의 영웅성은 놀라우면서도 진실하다. 그것은 불의의 정황이 가져온것도, 남다른 기질도, 순간적인 충동도 아니었다.

작품은 향림이의 성장과정을 통하여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의 위훈은 어려서부터 티없고 절대적인 힘모의 마음을 키울 때 이루어진다는 진리를 밝혀준다. 그리고 이 과정에 《일등갑쟁이》로부터 용맹한 어린 투사로 자라나고 부모에게 의존하던 철부지로부터 스스로 꽃을 피우고 단순한 욕망도 이겨낼 줄 아는 의지적이고 실천적인 어린이로 성장하는 것을 통하여 충실성교양이 새 세대들의 사상과 의지, 도덕과 품도전체를 가장 아름답게 이끌어준다는 것을 보여준다.

작품이 거둔 성과는 다음으로 동심적성격을 진실하고 매력있게 창조한것이다.

작품에는 독자들이 이끌릴만 한 특이한 사건선, 인물선이 없다. 가정과 학교에서의 평범한 생활의 흐름을 따라 나 어린 주인공의 모습만을 외출거리로 펼치었다. 그러나 독자들은 이야기에 쉽게 이끌리고 매력을 느낀다.

이 작품이 독자들을 이끄는 중요한 비결은 주인공의 동심세계에 대한 진실한 형상이다.

작품은 은방울꽃을 피우는 사건을 중심으로 다양한 일화들의 묶음으로 구성되었다.

가정과 학교에서의 주인공을 보여주는 모든 사건, 장면들은 천진란만한 동심에서 흘러나온 성격적인 세부들로 충만되어있다.

입학 첫날에 류다른 준비품으로 선생님을 놀라게 하고 동무들이 목을 빼들고 부러워할 큰 칭찬을 받은 향림이를 보자.

노래부르며 팔을 휘젓고 몸을 기울떡거리며 집으로 온 향림이는 칭찬받은 기쁨을 참을수 없어 어머니를 찾아간다. 하지만 유치원앞에서 세간 놀이하느라 장난에 말려들어 《발전소》며 《물길》을 《건설》하느라 개학날 입은 옷을 온통 어지럽게 한다. 입을 내밀고 어머니의 욕을 들으면서도 불쑥 선생님의 칭찬이 생각나 엄마의 목을 그려내고 자랑하며 향기 풍기는 숲이 되라는 아버지의 말에 두눈을 반짝이고 큰 칭찬을 받을 마음으로 밥을 맛있게 먹는다.

발랄하고 동적이고 정서성이 강한 유년아동의 모습이 방불하다.

아동들은 미래에 대한 지향성이 강하며 생각과 행동에서 환상과 랑만이 풍부하다.

한편 지향은 강하나 실현능력은 미숙하다. 때문에 지향과 실천, 의도와 현실사이에 불일치가 조성되며 여기에 아동문학에 고유한 극이 있고 해학의 원인이 있다.

향림이의 매력은 훌륭한것에 대한 강한 지향성이며 적극적인 활동성이다.

빨간별을 타기를 열렬히 지향하며 누구보다 크고 좋은 꽃을 제일먼저 드리고싶어하고 소학생 《새벽소녀》가 되기를 희망하며 아동단원 금순이처럼 영웅적인 삶을 지향한다. 뿐아니라 일단 욕망을 지니면 즉시에 행동에 옮기는데 이때 미숙한 준비정도로 하여 엉뚱한 일을 저지르기도, 해학적 주인공이 되기도 한다.

작품은 주인공의 동심세계의 극을 형상하는데서 과장의 수법을 널리 리용하였다. 꽃뿌리를 구하겠다고 당장에 등산을 떠나느라 부산피우고 소낙비가 퍼붓는 속을 혁명가요를 부르며 《무시무시한》 위험을 맞받아나간다.

단순하고 충동적인 어린 주인공의 특성에 따르는 형상이다. 지향성에 기초한 극단적인 행동들은 일정한 기준과 불일치를 조성하면서 극성을 야기시키고 가벼운 웃음속에 주인공에 대한 애착을 불러일으킨다.

작품은 특히 주인공의 랑만적성격을 꿈으로 특색있게 부각하였다.

지향과 꿈의 불일치, 꿈과 현실의 불일치는 주인공에게 극적체험을 야기시키며 독자들을 이야기애로 끌어당긴다.

은방울꽃을 심은 화분에서 꽃이 어서 피기를 바라는 지향이 꿈으로 펼쳐진다. 설날 아침 꽃화분을 들고 학교에 갔는데 동무들이 놀려준다. 화분을 보니 은방울꽃이 아니라 호박꽃이 아닌가.

커다란 실망과 괴로움이 주인공을 휩싼다. 그런데 어머니가 깨워 일어나니 다행히 꿈이었고 대신 그토록 기다려온 은방울꽃이 활짝 피어나 기뻐 어쩔 줄 모른다.

현실과 꿈, 꿈과 현실이 충돌하면서 주인공이 불행과 기쁨의 두 극단을 체험하는 가운데 독자들은 이야기에 이끌리고 주인공의 모습은 아동고유의 해학적정서와 함께 진실하다.

절정부분의 꿈장면도 탐구적이다.

영웅적소행을 발휘하게 될 바로 직전에 어린 주인공은 겁쟁이가 되는 꿈을 꾸고 더없이 실망해한다. 지향성이 강한 주인공에게 매력을 느껴온 독자들도 주인공과 공감하면서 그에 대한 애착을 더 크게 해주는 극적정황조성이다. 또한 꿈세계는 주인공으로 하여금 용감성에 대한 지향과 의지를

돌구면서 수령결사옹위의 위훈에로 맞받아나가  
게 함으로써 주인공의 영웅적성격창조에 이바지하  
였다.

참으로 작품에서 꿈의 형상은 영웅적이고 훌륭  
한 세계를 지향하면서 혁명적으로 성장하는 주인  
공의 성격적본질을 동심적으로 특색있게 드러낸  
우수한 개성화형상수법이다.

이처럼 작품은 주인공의 강한 지향성과 동심적  
미숙성으로 인한 불일치를 잘 탐구형상하여 성격  
호상간의 충돌이 없이도 이야기를 극적으로 펼치  
고 해학적양상으로 동심세계를 진실하게 그리었으  
며 흥미를 보장하였다.

작품은 이밖에도 높은 문학성을 담보한 세련된

동심적묘사기교, 성인형상을 통한 지성도보장 등  
우수한 창조경험들을 보여주었다.

한편 인물들사이 형적연계가 약하고 다양한 성  
격들의 호상관계로 생활을 보다 풍만하게 형상하  
였으면 하는 요구도 가지게 된다.

새해 당의 부름따라 전인민적인 총공세로 강성  
대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력사적인 비약을 이  
룩하여야 할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해에 창  
작가들이 선군시대의 참된 주인공들을 더 많  
이 찾아 새 세대들을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  
신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실화문학, 아동문학창작에서 더 큰 성과를 이룩  
하여야 할것이다.

## 전국가사문학현상모집요강

위대한 선군의 기치따라 총진군의 나팔소리 높  
이 울리며 강성대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  
는 우리 군대와 인민은 그 어느때보다 혁명적  
신념과 랑만, 희열에 넘쳐 부를수 있는 가요들이  
더 많이 창작되기를 바라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의 노래가 혁명투쟁과 대중교양의 힘있는  
수단으로 되게 하기 위하여서는 가사문학에서부터  
근본적인 혁신을 일으켜야 한다.》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는 혁명적대고조의 위  
대한 전통을 계승하여 선군조선의 빛나는 전성기  
를 펼쳐나가는데 적극 이바지하는 명가사들을 더  
많이 창작하기 위하여 전국가사문학현상모집을 다  
음과 같이 조직진행한다.

### 1. 현상모집작품의 사상주제적내용

- 백두산3대장군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불멸의  
령도업적, 숭고한 위인상을 노래한 작품
-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선군정치와 그 불  
패의 생활력, 우리 혁명무력의 백승의 전통을  
노래한 작품
- 일심단결의 위력을 높이 떨치며 주체의 사회  
주의조국을 목숨처럼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애국적헌신성과 열정을  
노래한 작품
-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로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  
어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굴의 정신력  
과 영웅적투쟁을 노래한 작품
- 우리 군대와 인민의 혁명적랑만과 문화정서생  
활을 다양하게 노래한 작품
- 우리 인민의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고 더  
욱 빛내이기 위한 작품과 반제반미계급교양,

조국통일위업에 이바지하는 작품 등 주제령역에서  
제한이 없다.

### 2. 현상모집 참가대상

조선작가동맹 맹원들을 포함하여 공화국공민  
은 누구나 다 참가할수 있다.

### 3. 현상모집기간

- 1단계  
주체98(2009)년 3월 9일~6월 19일
- 2단계  
주체98(2009)년 6월 20일~12월 31일

### 4. 현상모집작품을 보낼 곳

평양시 대동강구역 의암동 조선작가동맹 시문  
학분과위원회

※현상모집작품을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통신  
으로 보내며 우편통신을 리용할 경우 결봉에 반드시  
《전국가사문학현상모집작품》이라고 밝힐것.

### 5. 현상모집 총화사업

- 총화사업을 전문가(작가동맹 맹원)와 비전  
문가(군중문학통신원)로 구분하여 한다.
- 사상예술적으로 우수한 가사는 현상모집총  
화에 관계없이 작곡에 넘기거나 《조선문학》,  
《청년문학》, 《문학신문》 등 동맹기관지  
와 중앙출판보도물에 발표한다.
- 현상모집작품 최종심의회는 조선작가동맹 국  
가문학작품심의회에서 하며 1단계 현상모  
집 심사결과는 공화국창건기념일을 계기로, 2  
단계 현상모집 심사결과는 위대한 장군님의  
탄생기념일을 계기로 작가동맹중앙위원회 기  
관지들과 중앙출판보도물들에 발표한다.
- 현상모집 입선자들에게는 해당한 시상을 한다.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량 정 수

1

칠봉벌에 봄이 왔다. 장수산에서 남쪽으로 뻗어 내리면서 점차 낮아지고 경사가 완만해지던 산줄기가 수양산을 가까이 한 여기에 이르러 급작스레 솟구쳐 일곱개의 아담한 봉우리를 이룬것이 그대로 지명이 되었다. 저기 광명저수지에서 시작된 관개물이 칠봉산아근에 층층으로 펼쳐진 무연한 논배미를 적시며 흐르다가 여기 리소재지어구의 칠봉중학교앞에서부터 자그마한 시내물을 이루었다. 지금같은 영농절기엔 제법 소리치며 흐르다가도 한가울이 되면 거의 말라버리곤 한다.

이름도 없는 그 실개천 량쪽에 낮은 구릉을 이루며 펼쳐진 칠봉벌은 앞서거나 뒤서거나하면서 논을 갈아번지는 트랙터들의 통탄소리로 떠나갈 듯 한데 군데군데 방풍나래를 빙 둘러친 모판주위는 점심때여서 이따금 농장원들이 한둘씩 오갈뿐 한적한감을 자아낸다.

논벌 한가운데로 곧추 뻗어간 논두렁을 따라 나란히 걸어오는 한쌍의 남녀, 들구경이라도 하는가 싶을만큼 천천히 걸어오다간 역시 심심풀이나 하는듯이 광명저수지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잔뜩 먹고 흐드러지게 풀어진 논판에 내려서고 그랬다간 또다시 논두렁을 타고 걸음을 잇곤 하는 그들은 도농업대학 연구사 김금희와 이곳 칠봉협동농장 작업반장 림봉석이다.

모르고보면 이미 농번기에 들어선 영농계절에 어울리지 않게 산보라도 하는듯 보이지만 실상은 엇그제 뿌린 새로운 영양소의 효과를 돌아보러 나온 그들이었다. 논벌에 나설 때까지는 세명이였었다. 함께 따라나섰던 관리위원회 부원은 1작업반 림집인 8작업반 시험포전에서 이미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명백한 실패였던것이다.

10여개가 넘는 매 작업반들마다 자그마한 시험포전을 하나씩 정하고 그새 심혈을 기울여 만들어

낸 영양소를 뿌렸는데 결과는 신통치 못했다. 이제 남은것은 1작업반의 마지막시험포전, 여기서까지 효과가 눈에 띄지 않으면... 봉석이가 조심히 삽질하여 떠낸 벼모뿌리를 류달리 까만 눈섭을 쪼프린채 지켜볼뿐 금희는 손에 든 확대경을 가까이 가져다댈 생각을 못했다. 1년가까이 씨름질해보는 과정에 이젠 너무나 눈에 익어서 맨눈으로 쳐 보기만 해도 성공과 실패를 가늠할수 있었기때문이었다.

《연구사선생, 시험영양소가 작용할수 있는 유효시간이 아직 더 있지요?》

속이 상해 그린듯이 서서 움직일줄 모르는 금희의 안타까운 마음을 풀어주려는듯 봉석이 둘사이 에 가로놓인 침묵을 깨뜨렸다.

바위같이 단단한 체격에 들바람을 맞아 검붉게 탄 얼굴에서 어디라없이 완강한 인상이 느껴지는 봉석이였다. 그 역시 이제는 이 시험에 대하여 어지간한 기초를 닦은터여서 꼬치꼬치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나이는 금희보다 두살우였고 군대에서 제대된지 네해째 접어든 일군이였다. 일하면서 농업대학에 다니는 그는 등교때 금희의 강의를 받은 적도 있었다. 그때문인지 그는 금희를 언제나 《연구사선생》이라는 존칭으로 부르곤 했는데 그와 마주설 때마다 금희는 그를 대학의 강의실에서가 아니라 어디 다른 곳에서 본듯 한 느낌이 들곤 하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금희가 처음으로 그 느낌을 받은것은 봉석이네 숙소를 찾아갔을 때였다. 숙소라야 금희네 실험실 창문과 마주한 방이였다. 원래 리합숙에서 독신생활을 하던 봉석이가 반장이 되면서 자기보다 두해 늦게 제대되어온 작업반기술원인 우철이와 함께 옮겨온것이였다.

어느 휴식날, 갑자기 남자들의 손을 빌려야 할 일이 생겨 그들을 찾아갔던 금희는 그들한테서 이상한 감촉을 받았었다. 그들의 재산이래야 벽에다

붙여놓은 책상이 각각 하나씩에 사물함이 둘, 큼직한 책상에다 어느 이름있는 시인의 시집에서 본적이 있는 표현대로 《벽에다 똑딱 대못을 박고》 나란히 걸어놓은 병사배낭이 전부였다.

그런데 둘이 봉석의것으로 생각되는 조금 큰 편수책상우에다 자그마한 주머니를 놓고 무슨 이야기인가를 나누며 눈물이 글썽해있는것이였다. 그러다 뜻밖에 들어서는 금희를 보자 어찌선지 흠칫 놀라더니 몹시 당황해하며 앞에 놓여있던 주머니를 열린 책상배람에 넣어버리는것이였다. 그리고는 금희를 돌아보며 애써 빙긋이 웃는데 나란히 웃는 그 모습이 어디선가 꼭 본듯 한 생각을 번개치듯 불러냈다가 사라져버리는것이였다.

(어디서 본 모습일까? 그리고 배람에 넣어버린 주머니 뭘까? 왜 날 보자 놀라며 그것을 치웠을까?)

동시에 뇌리를 치는 의문이였으나 아직까지 풀지 못한 금희였다. 그후에 다시한번 숙소를 찾아갔을 때엔 무엇이 들었는지 불룩하고 묵직해보이는 그 주머니가 벽 한가운데 나란히 걸려있는 두 배낭짬에 한자리 차지하고 걸려있었다. 금희는 참지 못하고 물었다.

《저건 웬 주머니입니까?》

금희의 물음에 주머니를 쳐다보며 대답을 피하는 두사람의 눈엔 따뜻하면서도 어딘가 비장감을 자아내는 서늘한 빛이 번쩍하고 지나가는것이였다. 그 빛은 순간이고 두사람 다 금희를 돌아보며 반기는듯 밝게 웃었는데 순간 금희는 이렇게 나란히 웃는 두 얼굴을 꼭 어데서 본듯 한 느낌을 두번째로 강하게 받았었다.

지금도 금희는 내가 이 사람을 어디서 봤던가 하는 생각이 드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그러나 역시 기억을 되살려낼수가 없었다. …

《원인이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 움해버린 금희의 눈을 끈추 바라보며 봉석이 안타까운 어조로 파고들었다. 그제서야 현실적인 생각으로 돌아온 금희는 눈물에 해말쑥하게 씻긴 벼모의 뿌리를 들여다보며 대꾸했다.

《좀더 분석해봐야 하겠지만 〈人〉 촉매제의 첨가에 문제가 있는것 같아요. 그리고 영양소의 량자가 큰데도 원인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나도 연구사선생의 견해에 공감합니다. 결국은 초미분기의 회전속도와 촉매제 첨가라는 숙제를 풀어야겠구만요.》

《미분기의 〈뿔〉도 해결해야 합니다.》

금희는 봉석의 웅글은 목소리에 덧붙였다. 심중한 표정으로 흠을 한줌 또 한줌 눈물에 개여 논쪽에 매달릴하던 봉석은 무슨 결심이 된듯 와락와락 손을 씻더니 짹막하게 대답했다.

《그래야 할것 같습니다.》

금희는 남달리 작고 도톰한 입술의 양귀를 오무

라뜨리며 그에게 손수건을 내밀었다.

《괜찮습니다. 자, 이젠 점심때도 훨씬 지났는데 그만 들어가보지 않겠습니까? 배가 출출한데요.》

그는 두손의 물기를 닦고나서 금희에게 권했다.

《먼저 들어가보세요. 난 좀더 돌아볼가 합니다.》

《그럼 제 먼저…》

봉석은 사양없이 삽자루를 들고 논두렁을 따라 걸어갔다. 점차 멀어져가는 그의 뒤모습을 바라보느라니 금희는 저도 모르게 고독감이 엄습함을 느꼈다. 금희로서는 실패한 이 시각의 고독이 뼈저릴만큼 아픈것이였고 그때문인지 누군가의 관심이나 동정, 하다 못해 말동무라도 있었으면 하는 심정이였다. 그러다나니 《그럼 제 먼저…》라는 외마디소리를 남기고 떠나버리는 반장이 이 시각엔 무척 섭섭하게 생각되였다. 이러구러 한해가까이 고락을 함께 해온 처지에 가란다고 하여 어쩌면 그렇게 훌쩍 가버릴수 있단 말인가. 워낙 말수더구가 적은 사람이긴 하지만 곁에 함께 있어주기라도 한다면 한결 위안이 될상싶는데… 그러고보면 확실히 난관과 좌절앞에서 의지할 사람, 도움이 될 사람을 그리는 마음이 녀성들인 경우 남자들보다 더 강한듯싶다.

금희는 힘없이 쪼그리고앉아 칠봉산을 덮치려는듯 폐를 지어 낮추 물려드는 매지구름을 쳐다보았다.

약자의 첫번째 선택은 주저앉는것이였다. 하지만 주저앉거나 물러선다는것은 금희로서 생각조차 할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농번기가 당장 눈앞에 온것만큼 작업반들에 만들어놓은 시험포전을 갈아엎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가 곧 제기될것인데 그것은 어찌하며 시험을 계속하자고 해도 당장 필요되는 시약과 자재설비문제는 어떻게 푸는가?

이런 때 리당비서동지가 있었으면 어떻게든 힘을 주고 방도도 마련해주겠지만 그는 도당에 가고 없다. 당장 관리위원장한테로 달려가고싶지만 영농자재때문에 어제는 군으로, 오늘은 도로 경황없이 뛰어다니는 그다. 금희가 얹혀살다싶이하는 큰아버지는 몸이 편찮아 봉석에게 반장일을 넘겨준 뒤로 병원에 왔다갔다하며 치료중이니 이런 안타까운 속을 터놓을 형편이 못된다.

잠병—

도랑창에 발이 빠지는 바람에 고개를 든 금희는 자기가 어느새 칠봉중학교앞에 와있는것을 알고 새삼스러운 놀라움을 느꼈다. 아니, 별로 새삼스러운것도 없었다. 일하다 혼자서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 제기되면 이리로 향해지군 하는 금희의 마음이였고 낯이였으며 결음이였다. 오늘이 처음이 아니였다. 심신에 얹혀진 짐이 무거워 모지름을 쓸 때에도 금희의 걸음은 저도 모르게 여기로 향

해졌고 매번 이 자리에서 멈춰지곤 하였다.

이젠 심은지 스무해나마 되는 뽕뿌라나무들이 소소리높이 키돋움하며 줄지어 서서 반기듯 푸른 잎새를 흔드는 저 곧고 넓은 정문길너머 2층짜리 청사앞에 한 영웅의 반신상이 서있다. 바로 금희의 사촌오빠인 정철의 반신상이다. 금희는 지금 마음속의 괴로움을 나누려 그를 찾아온것이였다.

금희는 건늬길을 넘어설념을 얹고 오도카니 선 채 봄물이 금시 오르기 시작한 뽕뿌라나무가로서 들쭉으로 깊숙이 들여다보이는 오빠의 반신상을 점도록 바라보았다. 한동안 그렇게 꼼짝않고 서서 마음을 가다듬느라니 군관복을 입은 오빠가 산 모습으로 눈앞에 나타났다.

《금희야, 네가 대학을 최우등으로 졸업하고 박사원에 다닌다니 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구나. 우리 소대동무들도 네 소식을 듣고는 모두 훌륭한 농학박사가 될거라며 기대가 대단하다. 그런 즉 네 한생의 목표는 과학탐구로 정해졌구나. 좋다. 이 오빠는 전적으로 지지한다.

그 목적을 향하여 끝까지 완강하게 돌진하기를 바란다. 내가 지켜가는 조국에 사랑하는 나의 고향땅과 너의 과학탐구도 있다는것을 나는 오늘 새삼스러운 감정으로 새겨안게 되는구나. 부디 내 뉘까지 합쳐 우리 고향 칠봉땅에 세세년년 풍작만을 안아다주렴. 내 한생토록 이 군복을 입고 너의 과학농사를 지켜갈테니...》

언제인가 오빠에게서 받았던 편지의 구절구절이 새삼스럽게 되새겨진다. 그리고 오빠와 더불어 이 땅에 찍은 자기의 어린시절 발자취가 자욱자욱 안겨왔다.

금희는 도에 소환된 아버지를 따라 도소재지로 옮겨가기 전까지 열두해동안 여기서 살았다. 그러다보니 몇년전까지 반장사업을 맡아본 큰아버지네 두 아들형제는 금희와 4촌이라는 촌수를 넘어 친형제처럼 자별한 사이로 자랐다. 금희가 잠자리를 잡아달라고 응석을 부리면 《잠자리 뽕뽕 내 손가락에 뽕뽕》하며 온종일 손가락을 곧추 펴들고 잠자리를 쫓아다니던 오빠들이였다. 금희가 잡아달라는 호랑나비를 붙잡으려고 유치원꽃밭을 엉망으로 만들어놓고는 선생님한테 된욕을 먹곤 하였다.

자기보다 몇살우인 만오빠와는 그렇게 자별하게 지내면서도 동갑나이인 둘째오빠와는 마주서면 싸움을 하곤 하던 금희가 그 《싸움》에서 패하고 울때면 그의 역성을 들어 제 친동생을 쫓박아주고는 금희에게 하모니카를 불어주곤 하던 오빠... 헤어지는 날엔 아침일찍 실안개 피어나는 개울가에 데리고나가 세면을 시켜주고 서투른 솜씨로 머리까지 빗겨주던 잊지 못할 그 오빠가 썩 후날 군관령장을 달고 불쑥 찾아왔을 때 금희는 얼마나 반가웠던가.

하루밤을 금희네 집에서 묵고 떠날 때 금희는

말했다.

《오빠, 사진 한장 있으면 주고 가세요. 보고싶을 때마다 볼수 있게 말이예요.》

오빠는 수첩을 꺼내더니 그 갈피속에 끼여있던 사진 한장을 금희에게 주었다. 스무나문명나마 되는 군인들과 서로 일싸안고 좋아라 웃으며 찍은 사진이였다.

《우리 소대 동무들이란다. 얼마나 좋은 동무들인지 몰라. 여기 이 친군 황해도 산골이 고향인데 앞으로 시인이 되겠다구 늘썩 시를 쓰지. 그리구 이쪽 친군 앞으로 농학박사가 되어 버나무를 만들겠다구 꿈이 대단하지. 나처럼 아버지, 어머니가 농사를 짓는데. 참, 넌 꼭 박사가 돼서 칠봉땅에 해마다 금나락이 설레이게 할수 있지?》

금희는 그만 까르르 웃었다. 오빠는 박사라하면 뭐나 척척 마음먹은대로 할수 있는줄로만 아는것 같았다. 그제 작별을 아쉬워하는 동생을 웃기려는 웅심깊은 마음인줄 그땐 미처 몰랐었다.

오빠는 기적소리를 울리며 천천히 떠나는 기차를 타고 오래도록 손을 저어주며 멀어져갔다. 그것이 마지막으로 될줄은... 오빠가 터지는 수류탄을 가슴으로 덮어 병사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은 날 금희는 몹시 울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최후의 순간에 오빠 무엇을 생각했을까, 고향?... 아버지와 어머니?... 그속에 나도 있었을가. 있었다면 어떤 모습이였을가. ...

그후 모교에서 오빠의 반신상제막식이 진행되던 때 금희는 먼 북방의 연구분원에서 그토록 고향을 사랑하고 자기 병사들을 사랑했던 오빠를 추억했었다. 그리고 큰아버지가 둘째아들도 군대에 내보냈다는 소식을 듣자 곧장 이리로 달려온 금희였다. 오빠의 념원이 깃들어있고 자기의 어린시절 발자취가 어려있는 이 땅, 이 벌을 더욱 기뻐지게 만들어 자기 뉘까지 다 합쳐 사랑하는 고향땅을 세세년년 풍작드는 고장으로 만들어달라던 오빠의 그 부탁을 꼭피우고저...

(오빠, 정철오빠라면 이런 때 어떻게 하겠어요?)

금희는 학교정문길사이로 들여다보이는 오빠의 반신상을 바라보며 조용히 읊조렸다. 했으나 바람결에 설레이는 뽕뿌라나무잎새들의 속삭임소리만 들려올뿐...

(지금껏 함께 다니며 떠밀어주고 같이 애를 써주던 봉석동무마저 가버리고보니 어쩐지 겁이 나요. 《그럼 제 먼저...》 하던 그 목소리가 귀전을 떠나지 않아요. 그것이 승산이 얼마 내다보이지 않는 이 일에서 손을 떼겠다는 소린 아닐까요? 예, 오빠! 이런 때 오빠가 곁에 있었으면...)

금희는 눈앞이 흐릿해졌다. 어느결엔가 눈곱이 척척해졌다. 힘들 때마다 오빠의 반신상을 찾아 저도 모르는 사이에 몇번 걸음을 하면서도 이



렇듯 눈물을 흘려본적은 아직 없었다. 바로 이 정문길앞에서 마음을 다잡고는 분연히 돌아서 일터로 가군 하던 금희였다. 성공하기 전에는 오빠의 반신상앞에 절대로 마주서지 않으리라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그런데 오늘은 왜? 지금은 어째서…

봉석이의 별로 신심없이 들리던 그 목소리때문이라는것을 금희는 모르지 않았고 그것을 되새기자 곧 반발심이 일어났다.

(오빠, 걱정말아요. 제 어떤 일이 있어도 오빠와의 약속을 꼭 지키겠어요. 조금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오빠!)

금희는 자꾸만 젖어드는 눈굽을 꺼칠해진 손잔 등으로 훔치며 돌아섰다. 우선 기사장부터 만나봐야겠다는 생각이 든것이였다. 그래서 시험포전을 갈아엎지 않도록 들이대야겠다는 생각이 그 어떤 절박감처럼 그의 발걸음을 떠밀어주는것이였다.

얼마쯤 걸었을까, 불현듯 배고픈감이 느껴졌다. 이것은 어려운 난관에 포로되어 배고픈 생각마저 까마득히 잊었던 금희가 자기를 되찾았다는것을 의미했다. 금희는 그것이 다행스러웠고 기뻐다. 그리하여 큰어머니가 주머니에 넣어준 꽃감을 꺼내어 입에 넣고 씹었다.

아! 들큰하면서도 쫄깃쫄깃 씹히는 이 맛, 이 재미란… 길을 걸으며 꽃감을 씹던 금희는 무뎌져버렸다. 배가 고프다면서 《그럼 제 먼저…》 하던 봉석의 모습이 돌연히 떠오른것이였다.

(그때 꽃감 권할 생각을 왜 못했을까? 주머니에 있으면서… 그랬으면 그가 가버리지 않았을지도 몰라. … 정말 꽃감이라도 있었다면 자리를 뜨지 않았을까? 아니, 아니야. 그는 배고파 간계 아니야. 신심이 없어 내결을 떠나간거야!)

금희는 다시 꽃감을 잘근잘근 씹으며 걸음을 땀다. 관리위원회가 가까와오자 자기를 홀로 두고 가버린 무정한 봉석에 대한 반발인듯 그의 걸음은 더욱 빨라졌다.

## 2

나지막한 둔덕아래 널찍하게 자리잡은 관리위원회는 인적이 없었다. 아마 작업반, 분조들의 영농준비를 도우려 모두 펼쳐나간 모양이였다. 혹시 헛걸음하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복도에 막 들어서는데 어느 방에선가 기사장의 늘어진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이보라구, 반장. 내가 언제 한가스레 연구요, 시험이요, 시약이요 하는걸 생각할새가 있는줄 아오? 조금만 있으면 관리위원장동지가 도착할게요. 그럼 즉시 긴급회의를 해야 한단 말이요. 동무도 참가해야 하니까 그때 들어보우.》

뒤미처 봉석반장의 침착한 목소리가 울렸다.

《글쎄 한번만 더 밀어주시시오. 이번엔 꼭 성

공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일이야 기사장동지의 뉘이 아십니까?》

(아니, 그럼?)

금희는 그에 대하여 도사려먹었던 고까운 마음이 급기야 풀어지는것을 느끼며 귀를 강구었다.

《차, 이 사람 보게, 물론 내 뉘이지. 그래서 군 말없이 이때껏 밀어준게 아닌가. 자재, 로력, 설비… 안 대준것 있나? 그리구 동문 여기 와서 고작 삼년을 살았지만 난 그 처녀가 제비쫓지머리 흔들던 소꿉시절부터 한마을에서 살았어. 그의 오빠를 생각해서라도 도와주고싶은 마음은 열갑절 더해. 하지만 생각 좀 해보게. 우린 농사군이야. 자넌 광산에서 나서 자랐구 또 군사복무뒤끝에 공장 농촌엘 왔으니 농사문제를 잘 모를수 있는데 이 봄철이 일년농사를 결정한단 말이야. 연구라는건 늘썩 한번만 더, 한번만 더, 다음번엔 꼭 성공, 이렇게 이어지는거구… 그렇게 한생을 보낼수도 있지. 그래 온 농장 농사일을 내쳐놓고 나까지 시험이요, 연구요 하는델 달라붙으란 말은 아니겠지.》

금희는 금시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 당장 돌아서 가든지 아니면 기사장앞에 뛰어들어가 무슨 말이든 하고싶었지만 왜서인지 두발은 얼어붙은듯 움직여지질 않았다.

《동무두 일하면서 농업대학에 다니더니 별나게 번져지는것 같은데 리론과 실천간에는 언제나 넘기 힘든 장벽이라든가 계곡이 가로놓여있다는걸 언제면 깨닫겠는지… 대학강의대로만 된다면 농사걱정을 안하게? 반장이라는 사람이 농사일때문에 뛰어다닐대신 판데 헛눈을 팔고다니니, 원. … 점점 별나게 돼가거든.》

《별나게 돼가는게 아니라 이제야 제궤에 들어선겁니다.》

《뭘 제궤?!… 그럼 지금까지진 우리가 원궤에서 흘렀단 말인가?》

기분이 상한듯 기사장이 껍해서 소리쳤다. 금희의 눈앞에는 화끈 달아오른 상고머리에 뾰족한 턱의 기사장얼굴이 금시 보이는듯싶었다.

《반장동무, 연구는 올해 못하면 내년엔 해도 되지만 농사는 제 철을 놓치면 다야. 내 솔직히 말하는데 그 연구사처녀의 나이가 지금 얼마지 아나? 우리 딸은 그또래인데 벌써 두번째 아일 낳게 됐어. 안할 소리갈네만 임자 혹시 금희연구사를 마음에 두고있는건 아니겠지. 글쎄 그렇게 된다면 나야 작히나 좋은가? 든든한 반장에 기술높은 농사전문가를 앉은자리에서 얻는셈인데…》

금희는 시험을 달가와하지 않는 기사장의 빨래줄같은 푸념이 예상외의 험한데로 번져지자 더 들어내지 못하고 그 자리를 땀다. 그다음 내쳐 걸었다.

어디로 가는지 또 어디로 가려는지는 그자신도

알지 못했다. 그저 습관대로 실험실을 향하여 갈 뿐이었다. 그러면서 마디마디 가시돋힌 말끝에 생각만 해도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는 역측을 갖다붙이는 기사장에게 귀먹은 욕을 퍼붓다 말고 문득 걸음을 멈추었다. 별말을 다 한다고 욕은 하면서도 그 역측이 싫지 않게 생각되는 자기의 속마음을 읽은때문이었다.

(아니, 그럼?!...)

방금전까지만 해도 실패가 확정적인 시험포전에 자기를 혼자 버려두고 매정하게 가버린 봉석이를 두고 고까운 마음을 도사려먹던 금희 자기가 아니었던가. 그랬는데 이젠 무슨 변덕이람? 그에 대한 곡해된 생각과는 반대로 자기의 연구사업을 지켜주려고 뒤에서 《언쟁》까지 벌리는 그의 모습을 본때문인가. 그것때문만이 아닌것 같았다. 벌써 오래전에 깃들은 《싫지 않은 마음》 같았다. 언제? 어디서부터?!

금희는 설레설레 도리머리를 저으며 걸음을 옮겼다. 알수도 없거니와 굳이 알고싶지도 않았다. 연구외의 다른 문제, 다른 생각은 금희에게 있어서 허튼 문제, 허튼 생각이었다. 오직 연구밖에 몰라야 할 금희였다. 봉석이와의 관계가 어찌어찌 되였다 하더라도 금희에게겐 실험을 위하여, 실험의 성공을 위하여 어찌어찌해진 관계일뿐 아무것도 아니었으며 영원히 아니어야 했다.

《참 연구사동무, 마침 만나러 가던 참인데.》

마주오던 통계원녀인이 팔을 붙잡는 바람에 금희는 머리속을 어지럽히던 생각에서 빠져나왔다.

《무슨 일이 생겼게요?》

《오후 4시부터 관리위원회에서 회의가 있는데 연구사동무도 꼭 참가하래요.》

《알겠어요.》

그때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었다. 금희는 영양소의 효율이 높아지지 않는 원인을 다시한번 따져볼 결심으로 실험실로 향했다. 소재지의 유촉진 곳에 자리잡은 봉석이네 작업반 탈곡장안에 그의 자그마한 실험실이 있었다. 금희는 만사를 잊고 실험 지표들을 검토해보기 시작했다. ...

금희가 정신을 펴 찰린것은 퍼그나 시간이 흘러간 뒤였다. 서둘러 관리위원회마당에 들어서니 회의실에 빼곡이 들어앉은 사람들의 모습이 창문너머로 보였다. 금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뒤문을 열고 조심조심 회의장뒤켠으로 들어가앉았다.

기계화반장이 관리위원장에게 트랙트르들의 가동상태와 수리정형을 보고하고있는중이었다. 사업수첩에 무엇인가를 적어넣고난 관리위원장은 장내를 둘러보다가 계획부원을 불렀다.

《부원동무, 그다음에 뭘 더 제기될건 없겠소?》

작은 키에 어울리게 체소한 몸매의 계획부원은 잠시 갑자르다가 자신없이 대답했다.

《한가지 심중한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어서 말해보요.》

《1작업반이 올해 100프로 영양모를 부엌습니다. 그런데 그게 꽤 100프로 성공하겠는지... 늦기 전에 이제라도...》

계획부원은 뒤말을 흐렸다. 금희는 얼핏 시선을 들어 봉석을 찾아보려 했지만 술한 사람들의 뒤모습을 봐선 좀체로 알아볼수 없었다. 장내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좀 똑똑하게 말하요. 〈이제라도...〉 라니 그건 무슨 소리요? 문제를 제기했으면 웅당 대책적 방도두 내놔야 할게 아니요.》

기사장의 목소리가 자리에 앉았던 계획부원을 다시 일으켜세웠다.

《갈아엮구 늦은대로 일반모를 붓던지 아니면...》

부원의 목소리는 여전히 자신이 없었다.

《그건 안됩니다.》

누군가의 부르짖음에 가까운 목소리가 갑자기 터져나왔다. 그러면서 번쩍 몸을 일으킨 주인공이 다름아닌 1작업반의 기술원 우철이라는것을 금희는 보지 않고도 알수 있었다.

그는 봉석이와 한부대에서 함께 복무한 제대 군인이었다. 반장의 뒤를 따라 지난해 이곳 농장에 배치되어왔다. 꺽충한 키에 어울리게 자기 심정을 그대로 내뿜는 팔팔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바로 그가 예돌줄 모르는 그 성격으로 금희를 연구소 연구실로부터 여기 칠봉농장으로 내려오게 만들었다고 할수 있었다. 나이를 따지면 금희보다 한살아래로서 입대전에 농업전문학교를 졸업한 경력으로 하여 오자마자 작업반기술원이 되었다.

봉석반장은 만년광산마음이 고향이고 우철은 금야가 고향이었지만 부모형제가 있는 그곳이 아니라 여기 칠봉농장에 눌러앉은것을 두고 사람들속에서는 이런저런 제나름의 소리들이 더러 있었다.

《방도가 있소?》

기사장이 우철이의 후리후리한 키꼴을 뜯어보며 물었다.

《가만, 이왕이면 거 작업반장의 말을 들어보지요.》

관리위원장은 침착하게 우철이를 손짓하여 앉히고 봉석을 지적했다. 회의장 중간쯤에서 일어서는 봉석을 지켜보며 금희는 지그시 입술을 깨물었다.

《전 절대로 영양모를 그만둘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봉석은 총이 센 머리카락을 천천히 쓸어넘기며 손에 들었던 학습장을 접어 주머니에 찔러넣더니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자기에게 집중된 눈길을 끄떡없이 맞받아보며 외운 그의 첫 말마디는 무게가 있었다.

《그래, 그럼 어디 들어봅시다.》

관리위원장은 원주필뒤등으로 사업수첩을 다독이며 자세를 편안히 했다.

《우린 새로운 영양소를 자체의 힘으로 만들어 내자고 합니다.》

그의 대답이 기사장을 성급하게 만들었다.

《어디서 무엇을 가지구?... 혹시 또 그 실험에 기가 아니요?》

금희는 다소 신경질적인 기사장과 침착한 봉석을 엇갈아 지켜보며 가슴을 조였다.

《그렇습니다.》

《여보, 벼는 말을 먹구 크는게 아니라 비료를 먹구 자란단 말이요.》

기사장이 팽팽하게 잘라 말했다.

《압니다. 알아도 잘 압니...》

《가만, 좀 차근차근 말해보오. 뭘 어떻게 하겠다는것인지...》

관리위원장이 성급하게 무엇인가를 말하려는 기사장을 제지시키며 봉석이에게 물었다.

기사장은 생콩깍은 인상으로 찹소리가 나게 입을 다셨다. 하지만 봉석을 바라보는 관리위원회 일꾼들의 눈에는 기대와 선망의 빛이 어려 있었다. 농사를 시작한 년한은 얼마 되지 않아도 밭이 닳도록 뛰여다니며 선진재배법을 받아들이 성공시킨것이 누구였던가. 지난해에도 영양모를 도입하여 높은 소출을 올리는것으로 두각을 나타낸것도 바로 봉석이라는것을 누구나 다 알고있었기때문이었다.

《기술적인 문제이기때문에 우리 기술원동무가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자는것을 제기합니다.》

우철이가 기다렸던듯 앞으로 걸어나가더니 미리 준비했던듯싶은 큼직한 두장의 종이를 걸개에 걸어놓았다. 이어 그의 자신만만한 목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작업반의 토양분석자료, 금희와 함께 연구하고있는 영양소의 과학적조성, 소석회와 진거름을 비롯한 다섯가지의 필요되는 원료량과 구입방도, 요구되는 로력과 자재, 시간까지 딱딱 짚어가며 조리있게 설명하는품이 앉은자리에서 생각해낸것이 아니라는것이 대번에 알렸다.

《그게 모내기전까지 가능할가?... 현실성이 있는가 하는거요. 그것도 기껏해서 달포가량밖에 시간이 없는데...》

기사장의 목소리에는 질은 우려가 비껴있었다.

《이건 과학입니다.》

우철이가 단마디로 대답했다.

《과학?!... 옳소. 그런데 그 과학이라는데 땅에 밭을 붙이면 도움이 되지만 훨훨 나래가 돌하면 1년농사를 망칠수 있거든.》

여전히 확신을 못 가지는 기사장이였다. 장내에 사람들의 수군거림소리가 퍼져갔다.

《연구사선생이 어디 있습니까?》

갑자기 관리위원장이 좌중에 대고 물었다. 못사

람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속에 금희는 조용히 일어섰다.

《어떻습니까? 연구사선생! 반장, 기술원동무들은 해내겠다고 욱옥하는데...》

관리위원장의 눈길과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다. 그러나 금희는 그 물음의 뒤에 깔려있는것이 어떤것인가를 너무도 잘 알고있었다. 책임적인 대답을 해야 했다.

《성공은 확정적입니다. 하지만... 결린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저는 연구사로서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금희는 연구에서 결린 문제를 솔직하게 말하고 싶었다. 그러나 회의장성격을 봐서 그럴수 없는것이 안타까와 입술을 감빨았다. 관리위원장은 생각깊은 눈길로 그를 지켜보았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문제는 기사장동무에게 제출해주시오.》

결국 회의는 관리위원장의 무거운 목소리로 끝이 났다. 금희는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고 장내가 텅 비었을 때야 회의를 나섰다. 황혼무렵이었다. 이때껏 가문 봉창을 하려는지 무겁게 드리운 막장구름에서 비방울이 툭툭 떨어지고있었다.

### 3

다음날 아침 금희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가쁜한 작업복차림으로 기사장을 찾아 집을 나섰다.

그의 손에는 밤새워 타산하고 타산한 실험용자재명세가 들려있었다. 반드시 관리위원회가 풀어주어야 할 자재와 촉매제들이었다.

관리위원회에서는 방금 사업조직이 끝났는지 사람들이 흩어져가고있었다. 사무실에 들어서는 금희를 띄여본 기사장은 알은체를 하며 손짓으로 결상을 가리켜보이더니 그냥 어딘가 전화를 했다. 잠시 망설이던 금희는 앉기를 그만두고 창밖의 영농준비경쟁도표에 눈길을 주었다.

《...야, 아무리 긴장하다 해도 그렇지 우리 칠봉을 쑥 빼놓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섭섭합니다. ... 예, 예,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솔직히 말해서 요새야 비료없구 농약없으면 농사짓기 힘들다는거야 다 알지 않습니까. 처장동지만 믿구 있겠습니다. 그러구 상품 실을 차는 어제 저녁 편락을 받자마자 출발시켰습니다. 우리 회계장하구 봉석반장이 함께 갔습니다. ...》

기사장의 전화는 지루하게 길고길었다. 금희는 인내성있게 경쟁도표의 붉고 푸르고 노란 줄들을 더듬었다.

《교환, 교환이요?... 거 관리위원장동지가 어디 있소?... 그래!... 그다음 리당비서동지는 없으니 부원이라도 찾아보오. ...》

기사장은 마치도 금희가 기다리다못해 스스로

물러가기를 바라는 사람처럼 그냥 말을 이어가다가 퍼그나 시간이 흘러서야 송화구를 손으로 막은 채 물었다.

《결과가 또 시원치 않다지. 안됐구만. 그래, 무슨 일로 왔나?》

상고머리에 반쯤 벗겨진 이마가 반들거리는 길쭉한 얼굴가운데 큼직한 느낌표를 편상케 하는 불그스레한 코가 인상적이었다.

《영양소시험생산때문에 왔습니다.》

금희는 밤새워 준비했던 말마디를 생략해버리고 손에 든 명세표를 내어밀었다. 기사장은 안경을 찾아끼고 고개를 끄덕끄덕하며 종이를 받아들고 들여다보았다.

《여기다 두고 가오. 내 해결해주지.》

금희는 고집스레 움직이지 않았다.

《걱정말라니까 그래. 그러구 얼마만이라도 폭 휴식하는게 어떨가. 몸이랑 많이 축났는데 좀 보양도 하면서 말이요.》

금희는 아리송한 표정을 짓고 얼빠한 약속과 말마디를 늘어놓는 기사장이 얄밟게 생각되었다.

《기사장동지, 한두마디의 약속이나 제 한몸의 보양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과학과 농사를 별개의것으로 대하지 말구 하나의 운명적인 문제로 생각하고 시급히 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희는 어렸을 때부터 잘 알고있는 사이라고 하여 어물쩍 지나쳐버리려는 기사장에게 공식적인 말투로 꼭꼭 짊어 이야기하였다.

가볍게 고개를 숙여보이고 돌아선 금희는 도고하게 걸음을 내짚었지만 마음속은 허전했다.

얼마간 폭 쉬라구?... 자재는 그 다음에야 《걱정없이》 해결해주겠다는건데 실상은 도와줄수가 없으니 떠나라는 소리를 에둘러 한샘이었다. 게다가 더욱 온몸지 않게 생각되는것은 무슨 경쟁상품을 실으러 갔다고 하는 봉석의 처사였다. 알다가도 모를 사람, 힘을 잃고 물러섰는가 했는데 뒤에서 떠밀어주고 그래서 좀 의지해볼가 하면 왕청같은 일로 떠다니고...

금희는 탈곡장결의 자기 실험실문앞에 어떻게 와닿았는지 몰랐다.

우철이가 긴 허리를 굽석굽석하며 시료무지를 종류별로 섞고있는데 그옆에서는 4분조장 영선이가 몸을 기울여서 서서 무슨 얘기인가를 늘어놓고있었다.

《일찍 나오셨습니다.》

틈나는대로 봉석이와 함께 금희의 일손을 도와주다가는 모를것이 있으면 허심하게 배우기를 좋아하는 우철의 인사를 받으니 한결 마음이 안정된다.

그도 봉석이와 함께 일하면서 농업대학에 다니고있다. 마주서면 키가 어방없이 커서 금희는 얼굴을 뒤로 젖혀야 했다.

《반장동진 어딜 갔는가요?》

금희는 아차했지만 말은 벌써 입밖에 나간 뒤였다. 금방 기사장의 방에서 들었으면서도 괜히 옥맏힌 속마음을 꼬집어본것이었다.

《반장이 도에 경쟁상품을 실으러 간줄 모르나.》

남의 속은 알지도 못하면서 영선분조장은 이야기를 가로막아 사기를 올렸다.

《우리 작업반이야 농장적으로 1등이니 아마 평장할거야. 아무럼, 두말하면 잔소리지. 우리 분조엔 무엇이 차례질가?》

우철이가 골살을 찡그리며 핀잔을 주었다.

《그 분조야 지난해 참깨, 들깨 술금술금 부업해서 현금수입이 1등이었지요. 그런데두 뭘 그리 욕심을 내면서...》

《이 사람아, 임잔 뿌리없는 물박달방치같이서 아직 잘 모른다니. 우리 분조에 당장 자식들을 시집장가 보내야 할 사람이 몇이나 되는줄 아나? 임자두 장가를 가보라니.》

《좌우간 분조장으로서 너무 외곬만 밝히지 말란 말입니다. 반장동지가 떠나면서 돌아오면 곧 영양모판김잡이정형을 돌아보겠다구 하질 않았습니까.》

어지간히 무뚝뚝한 우철의 말에 영선은 고개를 흔들며 《글쎄?!... 영양모를 하겠는지 말겠는지...》 하고 중얼거리다가 기술원의 부름 뜬 눈썹에 흠칫 놀라며 쫓기듯 사라졌다. 우철은 한심하다는 표정을 짓고 흔들흔들 떨어지는 영선의 뒤모습을 지켜보다가 금희에게 시선을 돌렸다.

《아 참, 반장동진 불일이 생겨서 어제 저녁 차편으로 부랴부랴 떠나갔습니다. 혹시 작품지도를 받으러 간것 같기두 하구...》

의외의 뒤말에 금희는 자기의 귀를 의심하며 반문했다.

《예?...》

《평양에서 시인선생이 내려온것입니다.》

분명 봉석을 녀두에 두고 하는 소리였다.

《시인선생이요?!》

《시쓰는줄 몰랐습니까? 발표된것만 해두 열편은 잘될겁니다.》

《열편씩이나요?》

거듭거듭 말꼬리를 받아외우는 금희의 두눈이 그러지 않아도 약간 놀란듯 해보이던 평소의 눈보다 곱절은 더 커져보였다. 우철은 여태 그렇듯 가까이에서 지내면서도 그걸 모르고있었느냐고 제쪽에서 오히려 놀라와하는 표정을 짓고 금희를 바라보며 한수 더 뻘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금희는 대답이 나가지 않아 그냥 보기만 했다. 우철은 그것을 동의하는것으로 생각했는지 제법 진지한 표정을 짓고 목청을 가다듬었다.

...

목숨과도 바꿀수 없는 땅이어서  
심장처럼 품고 떠난 투사도 있었더라

금희는 제법 시정에 취해 시구를 읊조리는 우철을 지켜보며 이렇다 할 반응을 나타내지 않았다.

어느때 같으면 어딘가 무뚝뚝해보이는것이 늘 불만스럽게 생각되었던 봉석이한테 그런 정서가 있다는것에 몹시 놀라 환성을 올렸을지도 몰랐을 그였다. 더우기 마디마디 깊은 뜻을 안고 심장에 마쳐드는 그 시어들에 찬탄을 던졌을런지도 몰랐다. 하지만 지금은 그 반대였다. 봉석이 시를 쓴다는 사실이 놀라울수록 그리고 그가 썼다는 시구가 훌륭할수록 금희의 심장은 점점 더 싸늘해졌다. 앞에선 도와주자고 열변을 토해놓고 돌아앉아서는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

금희는 가까스로 지탱해섰던 다리맥이 순식간에 매시시 풀려나는것을 몽롱한 속에 의식했다.

《아니, 왜 그런니까? 너무 무리하더니 혹시 어디 말썸데라도 있는게 아닙니까?》

폴짝 물러앉은 처녀의 몸을 함부로 다칠수 없어 괜히 옷자락만 붙잡고 어쩔바를 몰라하는 우철의 목소리가 먼데소리처럼 아득하게 들려왔다.

《괜찮아요. 그저 좀...》

금희는 속으로 이를 앙다물고 일어섰다.

기사장은 듣기 좋은 말로 모양을 하라지만 실은 떠나가라는 암시가 뻔하다. 게다가 지금껏 오빠같이 의지해오던 봉석이마저 제 낮을 낼 《시》를 위해 훌쩍 사라져버린것이다.

그것도 그 어느때보다도 자기에게 도움이 필요한 때에...

《오늘중으로 어떻게 하나 돌아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날더러 연구사동지를 도와 시험생산 준비를 꼭 끝내놓으라고 지시하고 갔습니다.》

우철은 점점 더 파릿해지는 금희의 낯색을 제편에서 달리 인식했는지 황황히 설명했다. 하지만 금희에겐 그 말이 한갓 횡설수설로밖에 들려오지 않았다.

만사람이 지켜보는 긴급회의에서 《우리는 자체의 힘으로 영양소를 꼭 만들어내자는겁니다.》라고 사람들을 놀래우더니... 《시공부》하러 가? 그러면서 시험생산준비를 해놓으라? 《시공부》가 끝난 다음 휴가분한 마음으로 시험생산을 돕겠단 말이지...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흥!

금희는 속에서 격분한 말마디들이 번쩍번쩍 뒤번져질수록 태연해지려고 애쓰면서 조용히 앞머리카락을 쓸어올렸다. 그리고는 금시 울음이 터지던가, 비수같은 말마디들이 튀어나올것만 같은 입술을 꼭 앙다물고 천천히 실험실문을 향해 걸었다. 그러지 않았다간 녀성으로서의 자기를 유지해낼것

같지 못했던것이다.

금희가 금시 터져나오려는 마음을 조심조심 가다듬으며 몇걸음 옮겼을 때였다. 말없이 뒤에서 지켜보던 우철이가 달려오더니 금희의 팔목을 덥석 잡아챘다.

《어딜 가는겁니까?》

《놓으세요.》

《반장동지가... 우리 분대장동지가 시험생산 준비를 갖춰놓고 기다리랬다질 않습니까?》

《됐어요. 오면 필요없다더라고 말해주세요.》

《예?!》

외마디반문과 함께 우철의 두눈이 금희의 눈을 찌를듯이 쏘아보며 딱 굳어졌다. 그 눈을 두려움없이 마주보던 금희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오게 되면 내 걱정은 말고 시도 쓰고 상품들도 골고루 나눠가지라고 하세요.》

《뭐, 뭐라구요?!》

뜻밖의 타격에 입술이 푸들푸들 떠는 우철의 얼굴을 바라보며 무슨 말인가 쏘아보던 금희의 눈에서 방울진 눈물이 굴러내리더니 이어 두방울, 세방울... 줄지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가슴에 가득찼던 격한 말마디보다 억한 감정의 눈물이 먼저 동을 허물어버린것이었다.

처녀의 눈물을 차마 마주볼수 없어 돌아선 우철의 땀에 화락하니 젖은 잔등에 눈물범벅이 되어버린 눈길을 박은채 금희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동문 혹시 잊어버렸을지도 몰라요. 북방의 연구분원에서 새로운 영양소를 만드는 일을 끝낸 난 휴가를 받고 고향을 찾아왔었어요. 그때 금방 반장이 되었다는 봉석동무와 기술원으로 새로 배치받아왔다는 동무들은 옛 반장의 조카인 날 보고 다짜고짜 이렇게 따지고들었지요.》

《농업대학 연구사라니 좀 물읍시다. 전번에 대학에 갔을 때 보니까 술한 박사, 교수선생들이 있던데 다 뭘 연구합니까? 글썄 뭘 연구를 했기에 박사가 됐겠지요. 그런데 무얼 연구했다, 성공했다는 소린 자주 들려오는데... 까놓고말해서 그런 종이장우의 논문이 백천건이면 무슨 필요가 있는가 하는겁니다.》...》

금희는 우철에게 되새겨볼 여유를 주려는듯 문득 말을 끊고 고개를 숙였다. 아니, 금희는 지금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침착하고 여유있는 성격의 처녀가 못되었다. 조용한듯 하면서도 일단 불이 당기면 확 타버리고 마는 그런 화약같은 성격의 처녀였다. 그는 억이 막혀 더 말을 이을수가 없었다.

한편 우철은 처녀의 말을 부정할수가 없었다.

금희가 금방 인용한 말은 그날 우철이 자기가 한 말이었던것이다. 농업과학자가 될 꿈을 안고 전문학교를 졸업했으나 《고난의 행군》, 강행군

길에 오른 우리를 어찌보려는 놈들의 전쟁도발책동이 극도에 이르자 생각을 돌려 군대에 나갔던 그였다.

그때 그는 앞에 선 처녀가 연구사라는 말에 그만 혈기가 되살아나는 바람에 한마디 던진 것이었다. 모진 말을 뱉아놓고 우철은 곧 후회했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과학자일반에 대해서와 그들의 고심어린 탐구결과에 대해서 모두거리로 비난을 퍼붓는 자기에 대하여 거의 분노에 가까운 반발이 일어나는 것을 처녀가 가까스로 참고있음을 새파랗게 질린 그의 표정을 통하여 느낀 것이었다. 그러나 이미 늦은 후회였다.

팩하여 금시 돌아서려는 처녀를 봉석이가 막아서지만 앉았더라면 처녀는 고향땅에 채 들어서지도 않은채 돌아가버렸을런지도 몰랐다.

《이거 안됐습니다. 초면에...》하고 대신 처녀에게 공손히 사죄를 하고난 봉석이가 불손하게 군 우철에게 우박치듯 세찬 편찬을 쏟아부었다.

《동문 뭐요? 동무가 군사복무를 할적에 후방에선 다들 손털고 나앉아있을것 같아 그러오? 동문 부끄럽지도 않소? 그래 동무의 눈엔 과학자, 기술자들이 다 쓸데없는 공일을 하고있는것으로 보이오? 천만에, 이제 두고보오. 지금같이 어려운 때 그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며 연구한것들이 짱짱 은을 낼 때가 올것이요.》

옆에서 반장의 말을 잠자코 듣고있던 처녀의 큰 어머니가 누구에게라없이 말했다.

《웁으이, 반장 말이. 우리 금회도 삼년나마 저 추운 북방땅에 묻혀 살면서 새로운 영양소를 연구해냈다네. 머지않아 덕을 보게 될걸세. 안 그러냐, 금회야?!》

우철은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몇곱절 가슴아프게 깨달았고 그러자 처녀의 손을 덥석 잡고 용서를 비는겸 한마디 했다.

《연구사선생님, 선생님이 연구했다는 그 새로운 영양소를 우리 농장에서 쓸수 있게 해줄수 없겠습니까? 내 그럼 선생님에게 버릇없이 군 죄를 비는 심정으로 선생님의 심부름군이 되어 선생님을 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180도로 급전한 우철의 갑작스런 행동에 어리둥절해진듯 어쩔바를 몰라하던 처녀는 이윽고 자기를 다잡고 큰어머니네 집쪽으로 향했다. 그랬는데 휴가를 마치고 돌아간지 두달도 못되어 처녀가 그의 부탁대로 다시 울줄이야...

그때 일을 돌이켜보던 금회는 또박또박 말했다. ... 《그래서 난 왔어요. 아직은 실험실적발견에 불과한 연구성과를 생산공정을 걸쳐 현실에 도입하자면 허다한 난관과 시련에 부딪칠것이고 어쩌면 동무가 비난한 그대로 종이장우의 발명에 머무르고말수도 있겠지만 태를 묻은 고향도 아닌 이 벌에 와서 고생하는 동무들이 고맙고 또 동무들과

함께 이 땅, 이 벌을 가꾸고싶어 왔단 말이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

금회는 갑자기 복받치는 설움에 목이 꺾 막혔다. 했으나 일단 시작한 이상 할 말은 해야 했다.

《역시 흘러온 물은 흘러가기 마련이군요. 가세요, 이 땅은 우리가 가꿀테니...》

《뭐, 뭐요?!》

잠자코 듣고만 섰던 우철이 버럭 고향을 질렀다. 그 바람에 제 감정에만 빠져 마음속을 토로하던 금회는 흠칫 놀라기까지 했다. 그러거나말거나 우철은 그냥 큰소리로 웨쳐댔다.

《본토배기 흙은 흘러가버리지 않지만 흘러온 물은 언제든지 흘러가버린다?! 아니요, 그렇지 않소. 우린 결코 흘러온 물이 아니요. 봉석동지나 난 이 땅, 이 벌의 마지막 한줌 흙까지 땀으로, 아니 피보다 더 진한 우리의 땀으로 적시기 전에는 절대로 이 땅을 뜨지 않을것이요. 이젠 믿어도 됩니다.》

그 어떤 선언이라도 하듯 마디마디 또박또박 씹어던진 우철은 썩하니 바람을 일으며 가버렸다.

너무도 급작스럽고 땀뻘 반격에 금회는 한동안 얼것처럼 뻥해 서있다가 무너지듯 풀썩 주저앉고말았다. 무엇인가 잘못 생각하고있었다는, 그리하여 무엇인가 잘못했다는 막연한 느낌이 뇌리를 아프게 했다. 무엇을 잘못 생각하고있었는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뭐가 뭔지 통 갈피를 잡을수 없는 하루가 굵게 흘러갔다. 슬픈지, 괴로운지, 혹은 기쁜지, 외로운지 자신의 감정조차 판단할수 없는 하루였다. 저녁무렵이 되자 한가지만은 명백해졌다. 봉석이도 자기 못지 않게 이 땅, 이 벌의 한줌한줌 흙을 더없이 사랑하고있다는 그것만은. 어찌보면 훨씬 더 소중히 여기는지도 몰랐다.

무엇때문에? 무슨 리유로? 그것은 알수 없었다. 하지만 그들이 결코 《흘러들었다가 흘러가버릴 물》이 아니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잡았다. 그처럼 토라진 소리를 한 자신이 부끄럽게 생각되는 한편 좁은 마음의 《편협성》으로부터 어쩔수없이 툭 튀어나간 그 《투정질》때문에 하마트면 잃을번 한 소중한것을 잃지 않게 되었다는 그것이 더없이 다행스럽게 생각되었다.

그 순간부터 금회는 외롭지 않았다.

이밤 무엇인가 억세고 크나큰것이 얼음같이 싸늘해진 자기의 가슴을 팡팡 두드리며 들이닥칠것만 같은 예감으로 심장은 교묘히 뛸뛰기 시작했다.

#### 4

하지만 금회의 예감은 들어맞지 않았다.

저녁무렵 도에 갔던 회계장이 상품을 한차 신고

돌아왔으나 봉석은 오지 않은것이였다.

《도소재지에서 헤여진 다음 만나지 못했단유만요. 기다리지 말라면서 어디론가 갔는데 돌아올 때 혹시나 해서 헤여졌던 길목에 차를 세워놓고 기다렸지만 종시 나타나질 않더라구 회계장도 불부는 소릴 합디다.》

관리위원회에 가서 봉석을 기다리다 늦게야 돌아온 우철이 금희와 눈길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먼산을 보면서 하는 말이였다.

하루일을 마친 농장원들이 회계장이 실어온 상품매기를 나누다 흠어져간지도 퍼그나 되였다. 하지만 금희는 텅 빈 실험실 한가운데 오도카니 앉은채 움직일념을 안했다. 숙은것만 같은 허망한 생각에 일어설 힘조차 없었다.

자작 만든 자그마한 소형로며 철근보호망안에서 반짝이는 초미분기며 그리고 피대를 힘껏 팽팽하게 당겨진 전동기며… 더 손떨나위 없으리만큼 말끔히 정비된 영양소시험설비들이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당장에라도 혈금찌금 달려와서 《시험생 산준비는 다됐겠지요?》 하며 다그어댈것 같은 생각에 쫓기여 낮동안 간간히 정비한 기계들이였다. 이 땅, 이 별의 한층한층 흠을 피보다 더 진한 녀으로 다 적셔놓기 전에는 뜰수 없다고 웨치던 우철의 성난 부르짖음이 그런 예감을 품게 만들었는지도 몰랐다.

하지만 헛된 믿음인것이 명백해졌다. 지금쯤 어느 불밝은 창작실에 들어앉아서 그 무슨 시상을 붙잡느라 여념이 없을 그를 부질없이 기다리고있는게 아닐가 하는 생각에 자신이 불쌍해졌다. 여기 두고간 금희라는 이름없는 연구사의 존재같은건 안중에도 두지 않고 시열에 떠서 돌아갔을 그의 《엄명》을 지켜 낮동안 부지런히 시험생산준비를 다그어댄 자신이 어리석게 생각되였다.

하어 금희는 시줄을 튜는 봉석의 모습을 눈앞에다 불들어세우려고 모지름을 썼다. 눈앞에 그 모습을 불들어세우고 《육》이라도 한바탕 퍼붓지 않고서는 속이 풀릴것 같지 않았던것이다.

했으나 시상을 찾는 봉석의 얼굴을 좀처럼 그려낼수가 없었다. 대신 살얼음진 눈별 한가운데다 시험포전을 만드느라 온통 흠매닥질이 되었던 모습이며 노랑게 병든 벼포기를 살려내려고 밤새워 모판에 붙어살던 모습이며가 선명하게 떠오르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그런가 하면 언제인가 벼단을 다 꺼들인 뒤의 논판에 몇개 떨어진 벼이삭을 찾아들고 준절하게 웨쳐대던 그의 목소리가 쟁쟁히 되살아났다.

《이 한알한알의 벼알들이 피방울처럼 귀중하다는걸 생각해봤습니까?》

시아! 그 사람에게는 역시 시가 어울려!

자꾸만 겹쳐드는 그 모습, 그 목소리를 뿌리치

려는듯이 벌떡 일어난 금희는 부질없는 기대를 싹 단념하고 실험실을 나섰다.

어느결엔가 비가 내리고있었다. 다시 들어와 비옷을 찾아입고 문을 나선 그는 소재지마을을 지나 학교앞에 이르렀다. 이런 때마다 찾게 되는 학교였고 오빠의 반신상이였다.

곧고 넓다란 정문길이며 그너머 학교청사며 청사앞의 오빠의 반신상이며… 모든것이 칠후같은 어둠속에 묻힌채 점점 더 굵어지는 비살을 맞고있었다.

오빠는… 정철오빠도 지금 비를 맞고있겠구나, 비옷도 없이…

금희는 비옷을 입고선 자신이 죄스러워졌다. 입고있는 비옷을 벗어 오빠의 어깨우에 씌워주고싶었다. 그런 다음 오빠한테서 다문 한두마디라도 고무와 격려의 말을 듣고싶어졌다.

하지만 선뜻 들어설수 없는 학교길이였고 차마 빈손으로는 마주할수 없는 오빠의 모습이였다.

금희는 조용히 돌아섰다.

굽인돌이쪽에서 간간이 들려오는 자동차발동소리를 가늠해들은것은 바로 이때였다.

그 소리가 점점 가까와오더니 그의 눈앞에 갑자기 눈부신 전조등빛이 불쑥 나타났다. 그다음 육박하듯 그의 앞으로 다가오더니 썩하고 지나치다가 치익 멈춰섰다. 그뒤로 한대 또 한대…

다섯대의 차가 줄지어섰다.

금희의 앞을 조금 지나서 멈춰선 선두차의 운전칸문이 벌컥 열리더니 누군가 소리쳤다.

《아니, 연구사선생이 아닙니까? 왜 여기…》

상대의 말을 채 듣기도 전에 금희는 심장이 쿵하고 뛴뛰는 바람에 다음말을 알아듣지 못했다. 기다리면서도 단념했고 단념하면서도 기다렸던 봉석의 목소리였던것이다.

《어서 오르십시오.》

차에서 뛰어내린 봉석이가 금희의 팔을 붙잡더니 운전칸으로 떠밀었다. 그 서슬에 미쳐 마음을 가누지 못한채 차에 오른 금희에게 봉석은 발치에 놓여있던 묵직한 배낭의 아구리를 벌려보이며 다행이라는듯이 큰소리로 말했다.

《집에 들어갔으면 어찌는가 했는데 마침 만났습니다. 이걸 좀 봐주십시오.》

꽤 들뜬듯 한 그의 감정이 옹아오는것을 느끼며 그에 눈길을 주었으나 금방 눈부신 전조등빛을 정면으로 받은 뒤에 운전칸에 오르다보니 배낭아구리를 벌려보인다는 정도로밖에 알아볼수가 없었다. 금희가 인차 반응을 못하자 눈치빠른 운전사가 제격 실내등을 켜주었다. 순간 금희는 봉석의 손에서 반짝반짝 빛을 뿜고있는 강철알들을 보았다. 금희는 저도 모르게 탄성을 올렸다.

《이게… 이게 〈뿔〉이 아니예요?》

《그렇소, 〈뿔〉이요.》

《뿔》을 받쳐든채 봉석이 얼른 대답했다.

《몇미터짜리예요? 어디서 구했어요?》

너무도 기쁜김에 마구 질문을 퍼붓는 금희의 목소리는 저르기 떨렸다. 영양소를 미세하게 봉는데서 이 강철 《뿔》은 필수적인것이였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아 시험포전에 뿌린 영양소들이 제능력을 다 내지 못하는데 바로 그 결린 고리를 해결할수 있는 강철 《뿔》이 눈앞에 가득 펼쳐진것이였다.

《하,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에게 필요한것이 있을만한데는 <스> 화학공장밖에 없겠더라 말입니다. 덮어놓고 찾아갔지요. 아무리 귀한것이래도 그곳 사람들도 쌀밥먹구 살겠지 공기먹구 살겠는가 하고 말입니다. 그곳에서 누굴 만났는지 압니까? 우리 부대 정치부장동지가 글썄 <이게 누구야, 병사인!> 하며 반겨주질 않겠습니까? 지난해 제대되어 그곳 당비서로 일을 본답니다. 얼마나 반갑던지...》

봉석은 그때의 반가움이 되살아났는지 두손을 썹썹 비비며 순진한 웃음을 지었다.

《찾아온 사연을 듣구나선 공장이 농촌을 돕고 온 나라가 농사일을 물심량면으로 지원하는건당의 요구인데 뭘 아까울게 있느냐구 하면서 오리사료 실으러 가는 차편에 영양소원료로 될 오리진거름과 소석회를 실어보내주고 또 이것을 모두 해결해주더니 꼭 성공해야 한다구 힘을 주더군요. 그리고는 초미분기의 감속기치차하고 메달까지 해결해주었습니다. ...》

평소의 과묵한 성미는 기쁨속에 묻혀버리고 경충경충 뛰어넘으며 이어지던 그의 말은 차가 탈곡장에 들어서면서 끊어졌다.

우철이와 경비성원들이 달려나오고 뒤미처 부역일을 하던 계획부원의 안해까지 뛰어나왔다. 자동차들은 탈곡장에 적재함을 들이대고 무엇인가 연방 부리웠다.

봉석은 촉매제용기와 배낭을 금희에게 맡기고 하차작업을 지휘하려고 뛰어갔다. 그다음 들려오는 그 누군가를 부르는 소리, 누군가를 엄하게 탓하는 소리, 또 누군가에게 지시를 주는 소리... 금희는 그의 존재를 온 육신으로 느끼며 앞에 펼쳐진채로 있는 시험생산설비들을 내려다보았다. 처음에는 또렷또렷한 형체들이 선명하게 안겨오더니 점차 뿌옇게 흐려졌다.

(이걸 해결하자고... 저렇듯 찬비내리는 밤에 그 먼델... 그런것도 모르고 난... 실험실에 들어앉아서 울고불고 귀먹은 욕을 하고... 난 정말 멀었어...)

뿌옇게 흐려졌던 강철 《뿔》들이 이제 한덩어리로 어룡져보였다. 금희는 자기가 울고있다는것을 미처 의식하지 못했다. 이 이상 더 앉아있을수가 없었다. 나가서 봉석에게 귀먹은 힐난을 퍼부은 자신을 반성하진 못해도 같이 일손을 잡고싶어

졌다.

금희는 운전칸을 나서서 운전사를 붙잡고 무슨 이야기인가 나누는 봉석에게로 다가갔다.

《그러지 말고 식살 하구 가야 합니다. 세상에 농사군한테 왔다가 그냥 가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고픈 생각은 우리도 간절하네만 오늘 밤중으로 사료를 실어 못가면 오리고기 몇통이 왔다갔다 한단 말이네. 어쨌든 농살 잘 짓게. 그래야 사료문제두 풀려서 알이구 고기구 뽕뽕 쏟아질게 아닌가.》

봉석의 지극한 권고에도 운전사들은 그냥 사양하며 곧장 떠나려고 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금희는 재빨리 실험실로 달려가 큰어머니가 궁금할 때마다 먹으라고 보내준 간식구역을 통채로 들고왔다.

《이것 보세요. 정 그냥 가시겠거든 이거라두 가면서 요길 하세요.》

뜻밖에 나타난 처녀가 불쑥 내미는 구렁안에 가득 들어있는 꽃감이며 밤, 대추 등 이 지방특산과 일들을 한줌씩 꺼내 주머니에 쑤셔넣으며 운전사들은 좋아라 떠들어댔다.

《이거 대단한 특산이구만!》

《그럼, 아무렴 매끼 먹는 밤에 대겠나?》

《반장동무 색시요?》

이마가 흰칠한 운전사가 큰소리로 묻는 바람에 금희는 《어마나.》하며 저만큼 뒹겨났다.

《이 친구야, 말조심하게. 농업대학 연구사선생님이야. 처녀를 보고 그제 무슨 소린가.》

봉석의 편잔이였다.

《연구사면 더 좋지, 잔치날을 잡으면 알리게. 오리털로 만든 이불, 베개, 포단 일식으로 갖춰줄테니. 하하...》

우불구불하고 울퉁불퉁한 길을 거침없이 달리는 직업이어서인지, 혹은 먼 운행길을 고독하게 달려버트해서인지 운전사들은 능글거리며 종시 금희의 얼굴을 찌르처럼 불허놓고서야 발동을 걸었다.

《자, 또 떠나봅세.》

멀어져가는 차들을 지켜보던 금희는 곁에 서있는 봉석을 돌아보며 이런 사람은 시를 써도 어둠을 짓태우는 불길같이 열렬하고 강렬한 시를 쓸 것이라는 생각이 불쑥 들었다.

《《그래야 할것 같습니다.》 이 한마디를 남기고 떠나갔다가 스물네시간 그 짧은 시간동안에 이 많은것을 해결해오자니 얼마나 바빠 뛰어다녔을것인가! 난판과 애로앞에서 주저나 동요가 아니라 서슴없이 한몸 내던질줄 아는 이런 사람과 함께라면 영양소가 아니라 그보다 두배, 아니 열배나 더한것도 다 만들어낼수 있을거야.》

금희가 이런 생각에 잠겨있는 사이 봉석은 어느새 뒤편의 금방 부리워놓은 물자들이 있는 곳으로 다가가 우철이와 다정히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나야 뭘, 저 친구들이 정말 쉽지 않은 동무들이요. 이제부터 자기네 오리공장 사료 실으러 올 때마다 꼭꼭 저렇게 오리진거름과 소석회를 실어다 주겠다는거요.》

《그래서 길은 다녀야 생기구 문은 두드려야 열린다지 않습니까.》

《허허허...》

《하하하...》

한바탕 웃어제끼고나서 그들은 또다시 말을 이었다.

《반장동지, 이제는 연구사선생한테 그걸 줄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 줄 때가 된것 같애. 하지만 연구가 성공한 다음 주는게 더 좋을것 같구만!》

금희는 그들이 조용히 주고받는 말마디속에 자기의 이름이 오르는것을 듣자 긴장하여 주의를 도사렸다. 그러나 대화는 그 이상 더 이어지지 않았다. 뭘 줄 때가 되었다는것인가? 뭔데 연구가 성공한 다음에 주겠다는건가? 금희는 몹시 끌리는 기대감까운데 어쩐지 속이 불안해졌다.

## 5

자그마한 혼합기는 고르로운 동음을 울리며 쉬임없이 돌아갔다. 늦은 저녁식사를 마치고 나온 영선분조장네가 1분조사람들과 일손을 교대했다.

농사를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보다 과학화하는 사업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시험사업을 뒤전에 밀어놓으며 우는소리를 하다가 되게 비판을 받고 채심한 기사장이 관리위원회일군들을 모두 달고나와서 영양소생산전투를 도왔다. 아마도 영양소생산을 리적인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을 현지에서 세우기로 결정된 모양이었다.

혼합기에서 쏟아져나오는 연회색의 영양소는 비닐마대에 포장되어 탈곡장 한켠구석에 차곡차곡 쌓아진다. 휘영청 밝은 상현달이 칠봉벌의 동쪽가녁에서 살며시 떠올라 유유히 솟구치더니 어느 사이 강냉이창자지붕위에 턱 걸터앉아 은은한 빛을 뿌려주고있었다.

금희는 긴장하여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가루를 차근차근 헤집어보다가는 이따금 작업을 지휘하는 봉석에게 손가락을 하나 또는 둘 펴보이곤 했다.

그러면 봉석이는 알았노라 머리를 끄덕이며 종류별로 더미더미 쌓아놓은 원료무지앞에 삼을 들고 서있는 농장원들에게 신호를 하곤 했다. 그러면 지시받은 농장원은 자기가 맡은 원료무지에서 원료를 떠들고 마치 펄펄 끓는 용광로속에 원료를 투사하는 용해공들 모양으로 혼합기를 향해

달려가곤 한다.

저편에서 류달리 큰키를 우뚝 드러내고 선채 포장과 운반작업을 지휘하느라 성미에 맞지 않는 《잔소리군》이 되어 땀을 뻘뻘 흘리던 우철이가 멈칫 동작이 굳어지더니 봉석에게로 급히 달려가는 모습이 보였다.

영양소가루를 검사하다말고 왜 그럴가 하고 그쪽을 바라보던 금희는 그만 속이 뭉클해졌다. 왜 그렇게 달려가는가 했더니 봉석의 손을 동여맨 봉대가 풀린것을 다시 꽁꽁 싸매주는것이였다. 봉대감기를 끝내자 다시 일손을 잡는 봉석의 손에 동여맨 봉대가 확 안겨들었다. 가슴이 아릿해왔다.

...어제 밤 영양소시험생산의 마감이 가까와질무렵 사고가 났었다. 뜻밖에도 발브가 터져나가면서 시약이 뿜어져나왔던것이다.

봉석이가 위험을 무릅쓰고 제때에 막았기에 망정이지 하마트면 큰 사고로 번쳐질뻔 했다. 이 순간 그 광경을 더듬어보는 금희의 가슴은 후두두 떨렸다.

《우철이, 안전번을 막으라!》

순식간에 하얗게 뿜어져나오는 시약의 분출앞에서 어쩔줄 몰라 경악하던 금희는 봉석이가 벽력같이 소리치며 민첩하게 달려가 쓰고있던 모자를 벗어 터진 부위를 움켜쥐는것을 보았다. 안전번을 막고 예비발브를 교체하고나서 보니 험상궂게 찢겨진 봉석의 손과 팔뚝에서 빨간 피가 샘솟았다.

《이걸 어쩌나.》

금희는 사색이 되어 황급히 부르짖으며 허둥지둥하는데 우철이가 작업복자락을 와락 찢어 팔굽을 싸매서 지혈했다. 갑자기 상처를 싸매 봉대가 없었다. 창황중에 금희는 서슴없이 속옷을 찢어냈다. 이런 정황속에서 처녀의 부끄러움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가당치 않은것이였다. 한겹두겹 상처를 감아나가는 족족 선혈은 그냥 흥건히 배여오른다.

《어서 진료소로 가야 해요.》

금희는 봉석을 향해 부르짖으며 서둘렀다.

《괜찮습니다. 1차지혈을 시켰으니 곧 피가 멎을겁니다. 아님밤중에 소동을 일궈버려 없지 않습니까.》

봉석은 도리머리를 저으며 식은땀이 흐르는 얼굴에 애써 레사로운 표정을 지었다.

《아니, 그래도...》

《아닙니다. 우철이, 어서 수리공구를 가져오라구. 시험생산은 계속해야지, 어서!》

그의 말에 우철은 머리를 떨구며 어깨숨을 폭 몰아쉬고나서 《알았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들은 말없이 달라붙어 고장개소를 퇴치했다. 다시금 전동기의 동음이 울리고 영양소는 공정을 따라 초미분기에서 보드랍게 붓아져 혼합기를 거쳐 쏟아져나왔다. ...

시험생산이 끝난것은 새벽별들이 유난히 빛을 뿌릴 무렵이었다. 봉석의 상처를 두고 바재이던 금희는 일이 끝나자 다시금 재촉하듯 말했다.

《곧 날이 밝겠는데 어서 진료소에 가세요. 처치를 받아야 해요. 괜히 생명을 두고 모험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예?...》

봉석은 시뭇이 웃음지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선 휴식부터 하지 않겠습니까. 한차례 전투를 치렀더니 배가 출출한게 피곤하구만.》

금희는 서둘러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던 꽃감과 말린 대추, 밤을 꺼내어 봉대를 감은 봉석의 손에 놓아주었다.

《이거라두 드세요. 저기 내 방에 또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젠 어디서 났습니까?》

봉석이 꽃감을 눈짓하며 물었다.

《그건... 우리 정철오빠가 군대나갈 때 고향집에 심은 나무에서 딴거랍니다. 자기가 돌아올때면 열매가 주렁주렁 달릴거라구 하면서 떠나갔었습니다.》

우철이가 성급하게 말을 받았다.

《우리 중대에도 이런 열매를 맺는 감나무, 밤나무, 대추나무들이 많습니다. 우리 소대장동지가 우리와 함께 심은겁니다.》

금희는 숨을 들이구다말고 딱 멈추었다. 불시에 귀에서 잉- 하는 소리가 났다.

《연구사동문 좁전에 날더러 생명을 두고 모험할 필요가 없다고 했지요?》

《예?!》

《난 모험을 한게 아닙니다. 나의 생명은 나의 것이 아니라 우리 소대장동지의것입니다. 우리 소대장동지는 나와 우리 병사들을 구원하고 희생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살아숨쉬는건 이 봉석이나 우철이가 아니라 바로 공화국영웅 김정철동지의 생명이고 냇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봉석반장은? 그리고 우철동문?...

금희는 그들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어느새 눈물이 펴고 여울라 랑볼로 흘러내렸다. 봉석의 눈가에도 우철의 눈가에도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

어디서 보았던가. 어디서... 그렇게 알듯말듯하던 그 얼굴들은 오빠와 어깨걸고 찍은 사진속에서 익힌 모습들이 아니었던가. 그러니 그들은 그때문에 부모형제가 기다리는 그리운 고향이 아니라 여기로 왔구나. 그래서 그들은 이 땅을 부둥켜안고 피타는 정성과 노력을 깡그리 다 바쳐왔구나.

《연구사선생, 미안합니다. 박사론문까지 뒤로 미루게 해서... 우린 소대장동지의 누이동생과 함께 하루빨리 이 칠봉땅에 풍작을 안아오고싶어 그랬습니다.》

오빠는 정녕 죽었던가, 돌아오지 못했던가. ... 아니, 아니다. 사랑하는 고향땅을 지켜 병사들에게 자기의 아름답고도 길고긴 생을 이어주지 않았던가. 그 병사들과 그 고향땅과 더불어 오빠는 살아숨쉬고 영원히 고향땅을 사랑하고있는것이 아니겠는가. ...

... 《반장은 굶자고 일하나요?!》

누군가 탁 내지르는 고향소리에 금희는 봉석의 손에 감은 봉대가 불러낸 회상에서 깨어났다. 벌써 몇번째 우람진 몸체를 흔들며 찾아와 국이다 식는다고 채근하던 탄실아주머니가 더는 기다려내지 못하고 드디어 팔을 뻗었다.

《이게 다 잘먹고 잘살자구 하는 일인데 잠깐 한술씩 들고 하라구요, 예?》

그래도 모두가 듣는등마는등 제 말은 일만 하자 영선분조장한테로 잉그르르 달려가 삼자루를 앗아 쥐며 든장질을 했다.

《에그, 분조장두 작업반간부인데 한마디 하라구요.》

영선은 그에게 눈을 흘겨붙이며 대꾸했다.

《제길, 간부구 뭐구 이젠 쥐뿔두 모르면서... 저 사람들한테 이 일이 밥보담 나아. 일손만 멈춰보래, 당장 몸살을 하며 앓아눕질 앓나.》

결에서들 그들의 다툼질을 보며 하하 웃었다. 모두들 흥이 났다. 자기 지방에 흔한 자재를 가지고 효능높은 영양소를 만들게 되니 얼마나 좋은가.

작업은 새벽 3시가 넘어서야 끝났다. 농장원들은 모두 흩어져 집으로 돌아가고 작업장에는 기사장과 봉석이, 금희와 우철이만이 남았다.

《연구사선생두 그만 돌아가 눈을 좀 붙이십시오.》

봉석의 권고에 금희는 손목시계를 들여다보며 도리머리를 저었다.

《조금 있으면 날이 밝겠는데 아침일찌기 시험포전에 나가 어제 뿌린 영양소의 효능을 돌아보겠어요.》

《그게 벌써 용을 쓸가요?》

우철이가 호기심이 동한 목소리로 물었다.

《효과시간이 넘었으니 지금쯤은 뿌리에서 1차변화가 일어났을거예요.》

《그래요?! 아 반장동지, 그럼 날뵈기를 기다릴것없이 당장 나가봅시다.》

등이 단 우철은 봉석이와 금희를 엿바꾸어 쳐다보며 어린애처럼 졸랐다.

《아직도 어두운데...》

기사장이 려명전의 칠혹같은 어둠이 드리운 별판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부지런한 상현달은 벌써 자취없이 사라져버렸다. 우철이가 무릎을 탁 치더니 실험실로 달려들어가 금희의 자그마한 손전지를 들고 나왔다.

《자, 이게 있지 않습니까?》  
《연구사 선생, 어떻게 하겠습니까. 함께 나가보지 않겠습니까?》

봉석이라도 더는 참을수 없었던지 금희에게 물었다.  
금희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서자 우철이가 먼저 전지를 휘두르며 문밖으로 나섰다. 봉석이와 기사장도 그들의 뒤를 따라 시험포전으로 향했다.

드디어 시험포전앞에 이르렀다.  
장화를 신은 봉석이가 포전에 들어가 벼모를 조심히 떠내왔다. 금희는 뿌리들을 눈물에 씻어 우철이가 비치는 전지불아래서 확대경을 대고 꼼꼼히 살펴보았다. 모두의 긴장한 시선이 집중된 속에 그의 손이 흠칫 굳어졌다.

《어떻습니까?》  
침묵을 깨치며 우철이가 조금하게 물었다.  
《...》

금희는 말없이 일어서더니 다음 시험포전으로 뻗어간 논두렁길로 걸어갔다. 모두들 영문을 모른 채 긴장하여 그의 뒤를 따라섰다. 언제 에돌아갈 사이가 없이 황토색물이 흐르는 개울을 와락와락 건너섰다. 다음 시험포전에 이르자 역시 봉석이가 다시금 벼모를 떠내왔다. 우철이가 다시 전지를 들이대었는데 불빛이 뿌옇게 흐려졌다.

《제길... 이게 어떻게 된거야. 약이 다된 모양인가.》

우철이는 두덜거리듯 말하며 전지를 흔들어도 보고 탁탁 쳐보기도 하였으나 껌벅거리기만 할뿐 별로 차이가 없었다.

《차, 야단이로군. ...》  
기사장이 마른침을 꿀꺽 삼키며 탄식하듯 중얼거렸다. 날이 새려면 아직 퍼그나 있어야 했다. 갑자기 봉석이가 호주머니에서 학습장을 꺼내들더니 북 찢어냈다. 다시 또 한장 북 찢어냈다. 그리고 라이타불을 켜냈다.

《아니, 반장동지! 그걸... 그 시를 불태우면 어떡해요?... 그만... 그만하세요.》

금희는 다급히 제지시키려들었다. 우철이가 급해맞아 봉대를 감은 봉석의 팔목을 붙들었다. 하지만 불길은 종이장을 활활 태우며 어둠을 밝혔다.

《일없습니다. 어서 계속 살펴보십시오... 시야 또 쓰면 되지요. 하긴 시자체가 불길이 아닙니까?...》  
봉석은 이렇게 말하며 다시 또 한장을 찢어 불을 달았다.

《...》  
어둠을 태우며 불길은 너울너울 타올랐다. 모두의 얼굴에 불길이 비쳐 어룡거렸다.

금희는 뜨거운것을 삼키며 확대경을 가져다댔다. 이윽고 그의 손에서 확대경이 툭툭 떨어져내렸다.

《어떻습니까?》

우철이가 다급하게 물으며 확대경을 집어들어 물기를 털어버리면서 금희의 얼굴을 뚫어지게 마주보았다.

《드디어... 드디어... 1차변화를 일으켰어요.》  
너무도 조용히 울리는 그의 목소리였다.

《그러니...》  
《어디 보지요, 어디...》  
기사장이 《성공! 성공이란 말이지.》하고 갈린 소리를 냈다.

《야!— 성공이다, 성공!》  
우렁차게 웨치는 우철의 목소리가 고요히 잠든 칠봉별을 흔들어 깨치는듯싶었다.

우철은 포전에 와락 뛰어들어 흙을 움켜쥐고 들여다보았다. 갑자기 봉석이가 어디론가 허겁지겁 달려갔다. 금희는 꼼짝않고 서서 서서히 동터오는 새날의 려명을 바라보았다. 기쁨과 환희가 전류처럼 온몸에 줄달음질쳤다. 그것은 성공한 사람만이 맛볼수 있고 향유할수 있는 삶의 세찬 박동이었고 전물이었다.

칠봉별과 마주붙은 동녘하늘이 점차 붉어지기 시작했다. 봉석이가 숨가빠 달려왔다. 그의 손에는 침실의 벽에 걸려있던 자그마한 주머니가 들려있었다.

《금희동무! 이걸... 받으시오!》  
봉석은 금희에게 주머니를 내어밀었다.

《?...》  
《연구사 선생님, 어서... 그걸 받으십시오.》  
결에서 우철이가 탁 쉬어버린 목소리로 권했다. 금희는 영문을 알수 없어 물끄러미 봉석과 우철이의 얼굴과 주머니를 바라보았다.

《이건... 이건 우리가 복무하던 초소전호가의 흙입니다.》

《전호가의 흙?!...》  
금희는 여전히 얼떠름하여 되뇌이였다.  
《우리 소대장동지가 우리들을 구원하고 희생된 바로 그곳의 흙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봉석의 목소리는 떨리고 목에서는 울대뼈가 급하게 오르내렸다.

《이 흙에 우리 소대장동지의 더운 피가, 심장에서 흘러나온 붉은 피가 스며여있습니다.》

금희는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저도 모르게 심장의 박동이 높아졌다. 그가 가슴에 모두어쥘었던 손을 천천히 내어밀자 봉석은 주머니의 흙을 조심히 쏟아주었다.

이름 못할 걱정이 흥벽을 광광 쳤다. 금희는 흙을 두볼에 가져다대고 비볐다.

아, 오빠가 더운 가슴으로 덥혔을 전호가의 흙, 훈련의 더운 땀으로 적시던 흙, 고향과 조국을 지켜 심장의 더운피를 아낌없이 쏟은 이 흙이 지금 금희의 더운 눈물에 다시금 젖어들고있었다.

정녕 오빠는 죽었던가, 한줌의 흙이 되어 돌아

왔던가. 아니다. 오빠는 금희의 가슴에 그리고 봉석이와 우철의 변함없을 애국의 닛과 더불어 영원히 살아숨쉬는것이 아니던가. 금희의 떨리는 손에서 흙이 소르르 새어져 논판에 떨어져내렸다. 금희는 드넓은 들에 그 흙을 뿌렸다. 봉석이도 우철이도 조심히 흙을 뿌렸다. 기사장이 손수건으로 눈굽을 짖어냈다.

숫구치는 태양의 빛을 받아 붉어진 흙이 대지를 향해 날아떨어졌다.

칠봉산의 봉이마다 붉은 노을이 비끼더니 드디어 칠봉별지평선으로 태양이 불끈 솟아올랐다. 빛과 열과 영원한 생명을 주는 태양아래 그들은 나란히 걸었다.

어깨나란히 걷는 그들의 마음은 칠봉중학교 마당으로 향해있었다.

영원한 화선병사의 모습으로 공화국영웅 김정철은 푸르러가는 칠봉벌과 더불어 봉석이네 일행을 엄숙하게 지켜보고있었다. ...

## 아 들 을 떠 나 보 내 며

신 동 식

발전소 새 전투장으로  
또다시 떠나는 아들을  
나는 이윽도록  
문밖에서 바라워줍니다

간밤 내린 흰눈우에  
또렷이 찍혀지는 아들의 발자국  
그새 더 커진것만 같아  
마음속에 쏘아보고 또 쏘아보는 발자국

처음 돌격대로 떠나던 날  
배낭끈을 조여주며  
남의 집이 되지 말거라  
걱정부터 앞세우던 일 엇그제 같은데

철철 줄땀을 쏟으며  
물길굴을 뚫고 언제를 쌓으며  
저렇게도 씩씩하고 튼튼해진  
내 아들입니다

원산청년발전소를 일떠세우고  
장군님께 큰 기쁨 드린 아들  
새 전투장으로 다시 떠나며  
눈우에 자욱자욱 새겨가는 그 걸음  
장하게 눈여겨보는 어머니마음엔

아 가슴팍에 금별을 달고  
활활 웃으며 돌아올 아들이  
더 커지여 집마당을 채우며  
마주 걸어오는것만 같습니다

가 사

## 강선의 사나이들 정말 멋있어

김 성 희

강선의 사나이들 걸음씨를 좀 봐요  
새 전기로동음에 숨결을 맞추어  
그 걸음새 비약의 룡마를 탔대요  
아 장군님 내세워준 강선의 사나이들  
랄랄랄라 정말 멋있어

오늘에 몇차진가 물지를 말래요  
애국의 심장으로 쇠물을 끓이는  
그 일숨씨 대고조의 열풍을 일켜요

아 장군님 내세워준 강선의 사나이들  
랄랄랄라 정말 멋있어

쇠물을 떠나서야 강선의 사나이이라  
강철로 선군조국 반들어가는  
불굴의 그 모습들모두가 영웅 같애  
아 장군님 내세워준 강선의 사나이들  
랄랄랄라 정말 멋있어

# 생활에 대한 진실한 반영과 정서적여운

— 지난해 하반기에도 《조선문학》 잡지에 발표된 시들을 읽고 —

김 순 립

지난해 하반기에도 발표된 시작품들을 보면 백두산3대장군의 위대성과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강성대국건설에 떨쳐나선 천만 군민의 영웅적투쟁정신을 진실하게 반영하고있으며 착상이 참신하고 새로운 탐색이 엿보이는 사상에술적으로 우수한 작품들을 찾아볼수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필가들의 사명은 선군의 기치밑에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일떠세우고 주체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하여 우리 인민들에게 사상정신적량식을 주는 글을 잘 쓰는것입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에도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감동깊게 노래한 서정시들이 사상에술적으로 우수하게 창작발표되어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민족의 어버이이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을 더욱더 짙게 하여주고있다.

시 《흙에 대한 답시》(문동식 작, 《조선문학》잡지 7호)는 한평생 나라의 농사일을 두고 마음쓰시며 인민의 행복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어버이수령님의 한없이 고매한 덕성과 평민적인 품성을 어느 한 농장의 남새분조장에게 돌려주신 사랑의 이야기를 통하여 화폭적으로 감동깊게 노래하였다.

답시에는 감동적인 이야기와 극성이 있어야 한다.

시인은 시 《흙에 대한 답시》에서 답시의 생리적특성을 잘 살려 위대한 수령님과 나이지숙한 농촌의 한 분조장과 있었던 감동적인 이야기를 시적화폭으로 펼쳐였다.

시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품모, 수령의 위대성을 답시로 높이 칭송하려는 작가의 사상미학적주장이 소박하면서도 진실하게 노래되고있다.

시는 나이지숙한 분조장의 흙냄새 배여있는 거북한 옷차림, 젖은 흙이 어지럽게 묻어있는 신발, 수령님의 차에 올라 울통불통한 농촌길을 달리는 차안에서 흙이 떨어질세라 두발을 조심스러이 들었다놓았다, 놓았다들었다했어도 점점이 떨어지는 흙... 등 흙의 세부들과 의자옆구석에 나란히 놓여있는 흙이 묻어있는 호미와 낫가락 등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평민적인 품성과 형상을 보다 심도있고 의의있게 잘 펼쳐보였다. 때문에 답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분조장과의 극적인 이야기와 서

정이 잘 어울려 정서적여운을 주고있다.

남새분조장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허리춤에 찻던 수건을 손에 들고 승용차안으로 몸을 굽히려는데 우리 수령님께서 하시는데 말씀.

— 닦지 말라는데두  
나는 한평생  
땅을 위해 사는 사람이라

...

—내 차에 흙이 묻지 않으면  
농사가 안돼

하시고는  
분조장의 손목을 정겹게 잡으시고  
포전으로 천천히 이끄시였네

이 얼마나 인민의 행복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우리 수령님의 평민적인 품성의 고결함인가.

참으로 시는 어버이수령님의 고매한 덕성을 사색깊은 세부와 극적인 이야기로 형상함으로써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확고한 신념으로, 혁명적의리로 간직하도록 하게 한다.

시는 시대와 생활과 인간에 대한 정서적체험의 산물이며 시인의 심장에서 맺어진 서정의 결정체이다.

시 《위대한 스승의 한생》(김일규 작, 《조선문학》잡지 9호)은 조국과 인류앞에 거룩한 지성과 문명의 세계를 다 펼쳐주신 가장 걸출한 위인이면서도 한평생 손에서 책을 놓지 않으시고 자신의 한생을 수업하신 우리 수령님의 위대하고 겸허하신 위인적품모를 시적으로 감흥이 깊게 형상하였다.

시는 하루 스물네시간, 일년 삼백 육십오일 조국을 위한 것처럼 바쁘신 헌신의 나날에, 인류를 위한 것처럼 분망하신 한생에 수령님은 언제나 책을 읽으신 위대한 스승의 한생이었다는것을 진정이 넘친 소박한 감정으로 노래하고있다.

...

가장 위대한 인간이시였지만  
가장 소박한 인민의 숨결을 다 호흡하신분

가장 탁월한 수령이시였지만  
가장 겸허한 독자가 되신분  
그이의 시간에 세계가 따라서고  
그이의 사색에 미래가 마중오는  
그 고귀한 순간순간에  
책은 언제나 수령님의 길동무였다

...

시는 독창적이며 매혹적인 시적발견과 개성으로  
독자들의 마음에 강한 흥분과 감동이 물결치게 한  
다. 한생을 책을 보시며 수업하신 우리 수령님을  
노래하는 시인의 감각, 사색은 독자적이고 심오하  
며 새롭고 여운적이다.

...

아, 고귀한 인생의 진리  
위대한 혁명의 철리로  
조국과 인류앞에  
사랑과 인정의 세계  
지성과 문명의 세계를 펼쳐주신  
위대한 스승의 한생이었건만

우리 수령님은  
책을 보시며  
자신의 한생을 수업하시였다

여기에는 깊은 철학이 있다. 우리 수령님께서 책  
을 보시며 자신의 한생을 수업하셨다는 이 시적표  
현에 얼마나 많은 사연과 깊은 뜻이 깃들어있는가.  
시인은 아버지수령님의 한생을 집약적으로 련상  
할수 있는 문제를 탐색하여 시적세부와 정서적충  
격 같은 형상요소들을 자연스럽게 맞물리면서 주  
정을 터치여 참신성을 보여주고있다. 시는 이렇게  
하나의 표현에서도 음미해보고 풀이해볼수 있게  
되어야 한다.

사랑과 인정의 세계, 지성과 문명의 세계를 펼쳐  
주신 위대한 스승의 한생, 책을 보시며 자신의 한생  
을 수업하신 우리 수령님에 대한 찬가는 사람들을  
시가 주장하고자 하는 감정세계에 이 끌어가고있으  
며 그 사상미학적감화력을 비상히 강화하고있다.

우리 시인들은 선군시대의 아름다움과 시로 충만  
된 일상생활의 내부를 감동깊이 펼쳐보이고있다.

런시 《아들이 왔다》(박철 작, 《조선문학》잡  
지 8호)는 요란한 웨침이나 수식이 없이 제대  
군인 아들을 맞이한 아버지— 서정적주인공의 내  
면세계를 진실한 주정의 개방과 담담한 필치로 공  
감이 가게, 시대가 비끼게 노래함으로써 시형상의  
풍격을 잘 보장하였다.

런시중의 시 《아들의 웃음》에서 시인은 소박

하고 친근한 정서로 제대군인 아들을 맞이한 아버  
지의 내면세계를 진실하게 생활그대로 노래하였다.  
시인은 제대배낭을 멘 아들이 끝끝하고 릉름한 모  
습으로 환하게 웃음지으며 들어서는 평범한 생활적  
계기에서 시적발견을 하고 서정을 떠나갔다.

시인은 문을 열고 초소로 떠날 땐 몸이 애리에  
리하여 걱정도 많았지만 조국앞에 충직한 병사가  
되어 부모앞에 떳떳하게 문을 열고 웃으며 들어서  
는 아들을 보며 주정을 토로한다.

...

아, 총을 잡고 바친 청춘만이  
이 나라 가정에  
제일 큰 행복이 되는 선군시대  
아들은 조국의 병사로 살고  
부모의 품에 웃으며 안겼으니

소원이 기쁨으로 만발했어라  
하늘가 멀리 마음 띄우며  
부디 군사복무를 잘하여라  
잠 못 들고 가슴 태우던 세월우에  
아들은 웃음으로 꽃다발 놓아주누나

시는 구체적인 생활사실에서 환기되는 느낌을  
가지고 그것을 서정화하여 정서깊게 노래하였다.  
특히 선군시대에 대한 뜨거운 감정을 둔구어주  
는 시이다.

시 《잔을 받는다》는 서정적주인공의 체험으로  
시적일반화를 실현함으로써 뜻이 깊으면서도 정서  
적여운이 있는 특색있는 시형상을 창조하고있다.

시에서는 철부지시절 어쭙게 웃으며 아버지의  
생일날 부어주던 술잔과 군사복무를 마치고 돌아  
와 아버지에게 붓는 술잔과의 매우 인상적이고  
극적인 대비속에서 《어려웠어도 힘써왔어도/ 부  
모의 기대 저버리지 않고 / 병사의 의무 다했습니  
다/ 그 천만마디 말이 차넘치는 잔/》을 부어주는  
것으로 노래하였다. 이러한 시형상은 독자들의 심  
장에 걱정의 물살을 일으켜 실로 많은것을 생각하  
게 한다.

시는 선군시대에 우리 장군님을 받들어 군사복  
무를 잘하고 돌아온 대견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먼  
저 술을 붓겠다는 시적계기를 설정하고 생활적이  
며 정서적인 필치로 소박하면서도 인상깊게 노래  
하고있다. 하여 사람들에게 시인의 개성적인 얼굴  
을 엿볼수 있게 한다. 시인이 높은 창작적열정과  
깊이있는 사색으로 오늘의 선군시대 감정에 맞게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한것으로 하여 독자들을 기  
쁘게 하여주고있다.

시 《숨결소리》는 생활정서가 소박하면서도 선  
군시대가 감동깊게 비끼게 형상하고있는것으로 하

여 좋은 인상을 준다.

시는 조국의 전초선에 섰던 병사의 숨결이 집안에 울리고 그날의 병사가 우리 가정에 있다고, 식구들의 걸음걸음 군가로 맞춰줄 제대군인이 우리 집에 있다고 노래하면서 《노래처럼 기분좋은 숨결소리》, 《무죄심장이 툭툭 고동치는》 병사의 숨결소리를 선명한 느낌으로 노래하였다. 그리고 그 억센 숨결, 선군시대의 숨결이 집안에 가득차 열렬한 조국애가 우리 집 가풍으로 지켜지게 되는 서정으로 승화시켜나갔다.

...

위대한 선군시대는  
우리 가정에 주었구나  
총을 틀어잡고 수호자로 살며  
조국의 숨결에 박동을 맞춘  
아 병사의 뉘엿는 심장을!

시인은 위대한 선군시대에 대한 열정이 낳은 시적환상과 랑만의 세계속에서 열렬한 조국애에 대한 삶의 철학을 진지하게 발견하고있다.

시에는 선군시대에 조국의 전초선에 섰던 조국의 장한 아들을 찬양하고 자랑하고싶어하는 시인의 열정과 함께 시대에 대한 열렬한 긍정의 열정이 비껴있다.

시대와 생활에 대한 열렬한 애정의 정서는 시 《아들과 손녀》에서도 궁지높이 엿볼수 있다. 시는 가정적인, 혈연적인 관계속에서 조국을 지켜선 병사—아들은 천리 먼 방선에 있었어도 언제나 자기 조카와 함께 살았다고 노래하면서 값높은 병사생활을 찬양하고있다.

이처럼 시는 선군시대 평범하고 소박한 총대가정의 정서를 시로 엮고있다.

선군시대와 선군현실에 대한 깊이있는 탐구와 사색은 같은 주제, 같은 생활분야를 노래한다 하여도 자기의 개성을 잃지 않는다.

시 《나는 너를 사랑한다》(럼형미 작, 《조선문학》잡지 7호)는 조국에 대한 사랑이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자기가 일하며 살고있는 고향에 대한 사랑으로 표현된다는것을 구체적인 생활감정으로 노래한것으로 하여 감동적이다.

지금까지 많은 시들이 조국에 대하여 노래하였지만 대체로 그것은 향토에 대한 사랑과 추억의 감정으로 많이 치우쳤다는것을 알수 있다. 물론 이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이 시는 자기가 살며 일하는 성장땅을 온 폐부와 심장과 뉘엿으로 체험된 감정으로 노래하고있다.

시인은 성장의 노을빛에서 시적발견을 하고 《성장이어 너의 숨결을 사랑한다》, 《너의 색깔을 사랑한다》고 주정을 터치고있다.

서정적주인공에게는 산천도 인간도 모든것이 노을빛에 의해서 아름답게만 보인다. 밤낮으로 불타는 쇠물빛노을은 아이들의 옷에도 책가방에도 물들었고 성장처녀들의 목수건도 구두도 빨간 노을빛이며 애인의 첫 고백도 쇠물처럼 뜨겁다고 순결한 인간세계를 노래하고있다. 시에는 녀과 피와 숨결로 체험하고있는 현실반영에 대한 시인의 뜨거운 진정이 흘러넘치고있다.

춘하추동 땀에 젖는 불덩이 성장, 가장 준엄한 시련의 시기 애국에 불타는 심장을 꺼내들어 성장의 봉화로 추켜든 고향, 지나가는 아이들, 녀인들조차 온몸에 흐르는 붉은피처럼 쇠물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을 자랑하고싶은 시인의 열정이 그대로 형상되었다.

...

아 우리 장군님을 어떻게 받들어야 하는가를  
실천으로 배워준 잊지 못할 땅이어  
끝없이 설레는 너의 붉은 파도  
천만의 심장에 애국의 피로 부어주는  
열정의 무궁한 용암  
아, 성장이어!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처럼 시는 성장의 봉화를 든 사람들의 고결한 인간세계를 구체적인 생활감정으로 노래함으로써 그것이 곧 자기가 살며 일하는 땅이며 그에 대한 사랑이고 그것이 곧 선군조국에 대한 사랑이라는것을 깊은 정서적여운속에 받아안게 하고있다.

물론 생활적인 정서적양상에 맞게 보다 더 감정을 다정하면서도 뜨겁게 펴나갔더라면 더 감동이 컸으리라는 욕심도 있다.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시는 서정적주인공의 녀의 분출이며 그 녀의 결정체라고 한다.

이런 의미에서 시 《영원히 총과 함께》(리광훈 작, 《조선문학》잡지 12호)는 매우 좋은 인상을 준다.

시는 침략자들을 지구상에서 쓸어버릴 때까지 영원히 총과 함께 운명을 함께 하려는 서정적주인공의 모습이 생동한 체험으로 노래되고있다. 여기에서 총은 곧 주인공이며 하나의 지향과 녀원으로 이루어진 운명공동체이다. 그것이 생경하지 않고 정서적으로 감수되는것은 체험과 사색의 깊이에 의하여 시형상이 이루어졌기때문이다.

시인은 총을 단순한 사물현상으로 본것이 아니라 서정적주인공과 함께 선군령도를 받들어나가는 선군동지로, 생명유기체로 감수하였다.

...

아 총가목마저  
내 심장의 박동이 울리는

살결처럼 부드럽고  
 총끈조차 만일 끊어진다면  
 내 숨결도 금시 끊길것만 같은  
 내 운명의 총 둘도 없는 나의 전우여

그 누가 말했더나  
 총은 자기 몸의 한 부분이라고  
 그러나 나는 세상에 말하고싶구나  
 총은 내 몸의 전부라고  
 내 조국의 전부라고

...

시에서 총을 《내 운명의 총》으로, 《둘도 없는 나의 전우》로, 《총은 내 몸의 전부》라고 한 형상적표현은 총을 생명유기체로 감수한 시인의 개성적인 얼굴을 엿볼수 있게 한다.

시는 종자가 뚜렷하고 총이 사명과 의무를 다할 때까지 영원히 총과 함께 운명을 함께 하려는 서정적주인공의 구체적인 체험과 감정을 가지고 시

적사색을 무르익혀 진실한 형상을 창조함으로써 정서적여운을 주고있다.

이처럼 시는 총에 대한 선군시대 서정을 정서적 감정으로 노래하려는 시인의 의도가 비교적 개성적인 시형상으로 일반화되어 참신하게 노래하였다.

물론 이 시에서도 보다 더 생명유기체처럼 느껴지는 총과 자기 운명의 결합을 인위적인감이 나지 않게 심화해들어갔더라면 시의 개성도 더 살아나고 느낌도 컸을것이다.

그리고 지난해 하반년도에 일부 시인들은 생활에 대한 진실한 반영과 정서적여운이 없이 뜻도 맞지 않고 문법도 맞지 않게 시를 꾸며내고있는 결함도 나타났다.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로 들끓는 우리의 현실은 있으나마나한 시, 시의 본도를 잃고 해설과 설명으로 당정책을 도해하는 시 등 온갖 그릇된 현상을 추호도 허용하지 않는다.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 시문학의 형상수준을 전면적으로 혁신해나가야 한다. 이것이 최근 시문학현상이 주는 심각한 교훈이다.

## 단시조

# 대 학 에 서

류 명 호

대학!

대학생!

누구나 그리도 열렬히  
 대학입학을 갈망할 때

인민이 너에게 묻는다  
 대학입학시험을 치기 전에  
 조국이 너에게 첫 시험문제를 준다  
 — 너는 왜 대학에 입학하려고 하는가?

×

대학생의 시험지는 교원이 채점하고  
 교원의 양심은 조국이 채점하더라

×

매일 매 순간 폭발적인 속도로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21세기에  
 과학탐구에서 하루를 늦추면  
 백년의 한을 남기리라

×

총대가 약하면  
 조국을 잃은 노예가 되고  
 과학기술이 약하면  
 조국이 있어도 남에게 얹매이여라

×

부끄럽지 않는 점수들이  
 칸칸이 들어찬 대학졸업증  
 이것으로 대학시절은 끝나는가

대학시절의 총화는  
 대학졸업증으로 끝나는것이 아니다  
 오, 대학시절의 총화는  
 인생의 끝에서 지어야 하리!

## 수수께끼

- ① 조그마한 고개를 두고 일생동안 서로 보지 못하는것.
- ② 주둥이는 하나밖에 없는데 재만 먹는것.
- ③ 하늘 보고 주먹질하는것.



## 조국

리 호 인

수평선너머로 해가 떨어지자 자그마한 돛배 한 척이 치마저고리차림의 한 여인을 태우고 바위섬을 서서히 떠났다.

저녁노을이 불타던 수평선우 하늘에 어느새 보름달이 등실 떴다. 돛배는 해변에 길다란 그림자를 달고 세포나이가이의 잔잔한 파도를 헤가르며 달을 향해 기우뚱거리며 달렸다.

수평선너머에서 섬들이 하나, 둘 나타나더니 미구에 산줄기가 수평선을 막아섰다. 선미에 앉았던 짝아바이가 돛줄을 잡아당겼다. 돛이 기울어지며 배머리를 외로 틀었다. 돛폭이 주름을 잡으며 필력이다가 바람을 안아 공기주머니처럼 불룩해졌다. 짝아바이는 돛줄을 쇠고리에 걸고 안주머니에서 담배를 끄집어내더니 성냥을 두 그어 붙여물었다.

《미에덱아주머니, 뭘 그리 보시우? 미에섬에다 왔수다. 내릴 차비나 하시우.》

《벌써 왔는가.》

미에덱은 바닥에 내려놓았던 간장병이 든 구렁을 무릎우에 얹고 눈길을 물에다 던졌다.

《자식이 없으면 몰라라 든든한 아들자식 둘이나 물에 있겠다 그놈의 미에섬이 뭐가 좋아서 못 떠나시우? 죽을 때까지 바라보지, 물이 바다를 건너오는가.》

《령감이 천상 말을 듣소. 미에섬에 태를 낳은 섬사람들도 못 떠나서 애를 쓰는데... 어이구, 우리 령감의 속을 알 재간이 있는가요. 병어리속은 그 에미도 모른다구 말을 해야 알게 아닌가요.》

미에덱은 그러지 않아도 속이 탄다는듯 한숨을 후— 내쉬었다.

《물에선 평양만수대예술단이 와서 평장하우다. 온 일본땅을 들었다놓는답니다.》

《평양만수대예술단! 조국예술단 말입니까?... 온다더니만 끝내 왔구만!》

눈을 휘둥그레 뜨며 짝아바이를 쳐다보는 미에덱의 뇌리에 얼마전 쪽배에 조개를 싣고가다가 날이 저물어 그의 집에 하루밤 묵고간 한 동포가 령감한테 하던 말이 피뚱 떠올랐다.

《자네 소문 들었나? 이 일본땅에 조국예술단이 오게 됐다네. 꿈같은 소리지. 물에서는 이 소문이 자자하네.》

《듣지 않구, 귀를 뛴다가 어데 쓰겠소.》

그때 령감은 창문을 열고 서쪽하늘을 바라보았

었다. ...

《텔레비존에서라도 보려고 큰 섬에 갔었는데 자체발전손지가 고장나서 정전이라나. 텔레비존앞에 앉아서 이제나저제나 하고 눈이 빠지도록 기다렸는데 글썽 공연이 다 끝난 뒤에 전기가 오지 않았소. 원 이놈의 섬들이란게 이국땅에서도 이국땅이지.》

짝아바이는 달빛에 어렴풋이 보이는 물을 바라보며 자못 아쉬운듯 중얼거렸다.

미에덱은 멍하니 기적소리를 길게 뽑으며 바다 건너 물의 산기슭을 에돌아 사라지는 철차를 바라보았다. 그에게는 어쩐지 물이 멀고먼 별세계같이 여겨졌고 미에섬과 물의 거리가 마치 수천수만리나 되는듯싶었다.

이윽고 돛배는 미에덱을 백사장에 내려놓고 기우뚱거리며 오던데로 도로 미끄러지듯 가버렸다.

미에덱은 한손에 구렁을 들고 백사장에 발자국을 찍으며 걸었다. 처절씩거리며 밀려오는 물결이 그의 발자국을 말끔히 지워버린다.

미에덱은 처마났은 제집에 거의 왔을 때 무춤 멈춰섰다. 꺼져있을 피창에서 환한 불빛이 새어나오고있었다. 어느새 주인을 알아보았는지 복슬강아지가 그의 치마자락에 몸을 비비며 꼬리를 흔들었다.

(방학이 돼서 손자애녀석들이 왔나? 령감이 돌아왔나?)

미에덱은 고개를 기웃거리고는 복슬강아지를 앞세우고 집안으로 들어갔다.

천정이 그슬 정도로 심지를 돌군 남포등앞에 령감이 까만 덧옷을 걸치고 올방자를 틀고앉아서 장대를 다듬고있었다.

《어이구, 령감두.》

미에덱은 령감앞에 앉아서 남포등의 심지를 닦추었다.

《월말에 가서야 오겠다던 사람이... 갑자기 어떻게 된 일이지?》

령감은 담배를 꼬나문채 장대를 무릎우에 가로 얹고 칼질에 여념이 없었다.

《말 좀 하소그래.》

미에덱은 치마바람을 휩 일구며 일어서더니 아래목에 가앉았다.

온 방안이 남포불의 그슬음과 담배연기에 짙은 안개처럼 뽕얕다. 령감의 머리우 키낮은 천정에

시꺼먼 남포불그슬음과 담배연기가 부딪치고는 사방으로 퍼져갔다.

반나마 열려져있는 창문으로 그 연기들이 스르르 빠져나갔으나 방안공기는 탁했다. 창문으로 파도소리가 처절썩! 처절썩! 같은 간격을 두고 들려왔다. 이따금 들려오는 기적소리는 적적함을 더욱 짙게 했다. 령감은 여전히 말없이 장대를 다듬어나갔다.

《어이구, 그렇게두 말하기 싫은 사람하구 여태 용케 살았구만. 성미두... 여름방학이 다 갔는데두 손자에 하나 놀러 안 오는걸 보지. 쯔쯔...》

미에택은 참다못해 혀를 차며 푸념을 터치고 아니꼬운 눈매로 령감을 흘겨보았다.

이마가 훌 벗어진데다 머리칼마저 술이 적어서 제 나이보다 훨씬 늙어보인다. 위낙 살색이 곱지 못한데다 염전의 사나운 바다바람을 받아서 그런지 새까맣다. 입술은 터져 부풀어올라 두툼했다. 칼질하는 뼈마디 굵은 손등에는 얼어터진것처럼 거북등같은 금이 짙게 졌다.

미에택은 측은한 생각이 들어 목소리를 높여 짜증낸 자신을 후회했다.

《소금섬에서 무슨 일이 있었소?》

《있긴, 래일 새벽 수령님께서 보내주신 평양만 수예술단이 교토로 간다기에 사절을 받구왔지.》

《내사 그런걸... 그래 사절을 며칠이나 받았소?》  
《박서방한테 아와지섬까지만 실어다달라지. 아와지섬까지만 가면 연락선을 타고 물에 갈수 있지 않겠소. 그러믄야 기차를 타고 직방 교토에 갈게 아니요. 운수가 좋아서 척척 맞물린다쳐도 이들은 걸리겠지.》

손가락을 꺾으며 속계산을 하는 미에택의 입귀에 웃음이 피어올랐다.

《누가 이 바쁜 여름철에 곱다구 그리주겠대.》

《그럼 며칠이나 받았는가요?》

《왜 이리 성가시게 굴어? 이렇게 받았다!》

령감은 시끄럽다는듯 돌아다보지도 않고 새끼손가락을 세워보였다.

《도제 하루?!》

미에택은 가슴속에서 돌덩이가 굴러떨어지는 것 같았다. 휘둥그레 뜬 눈에 떠올랐던 희색이 삽시에 사라지고 눈시울에 부채살처럼 잔주름이 퍼져갔다. 복슬강아지가 조심조심 기여오더니 미에택곁에 와앉았다. 미에택은 털깊은 복슬강아지의 등에 손을 꼭 박고 시름없이 쓰다듬었다. 강아지는 네발을 버릇없이 짹 뒀다.

반나마 열려진 창문너머로 바라보이는 산꼭대기에 보름달이 걸려 희미한 빛을 뿌리고있다. 푸른 구름떼들이 희미한 달빛을 받으며 하늘가에 떠갔다. 그 창문으로 마치 집을 단숨에 집어삼킬듯 파도소리가 요란하게 울려왔다.

《이놈의 섬에 락이라꼬 있소? 해방전에는 순사놈들의 눈을 피한다치고 애들이 집에 있을 땐 자식기르는 그 재미로 그렇다치지만... 인젠 파도소리밖에 있는가요?》

《쩍하든 한다는 소리가... 육신이 아직 성한데 자식한테 신세를 지자구. 섬에 사는 동포들이 우리만 못해서 물에 못 가나? 일본땅 아무데 가나 살기엔 매한가지야. 이사갈바에야 하필 물에 갈게 뭐요. 조국으로 가야지.》

령감은 피우던 담배를 재털이에 비벼끄고 대패질을 했다.

《누가 호강하고싶어서 하는 소리가 아니웨다. 어이구— 박서방 말따파나 이놈의 섬이 이국땅에서도 이국땅이지. 참 팔자두.》

미에택은 원망찬 어조로 중얼거리며 간간지런히 뜬 눈으로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방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파도소리와 대패질소리가 밤의 정적을 더욱 고요케 하며 미에택을 지난날에로 끌고갔다.

장씨가 일본 홋카이도 유바리탄광에서 고역살이를 하던 남편을 찾아 지옥산, 관부련락선에 몸을 실은것은 첫아이를 낳은 이듬해였다. 남편은 장씨가 찾아오기 며칠전에 탈출하고 거기에는 없었다. 의지가치할데 없는 그는 갇은 수모와 천대를 받으면서 소문을 좇아 산설고 물선 일본땅을 헤매다가 남편을 만난것이 전기불도 없는 외딴섬, 미에섬이였고 그때 등에 업혔던 아이는 제법 말을 번졌다. 한창 꽃필 나이의 장씨는 이국살이의 세찬 바람에 몰라보게 결늪였었다. 갈매기소리와 파도소리가 사나운 외딴섬인 미에섬은 일제군경의 눈을 피하기에는 물보다 훨씬 나았다. 하지만 그것은 해방전 일이지 해방후는 사정이 달랐다. 세포나이가이의 동포들은 하나, 둘 물으로 건너가기 시작했고 지금 미에섬에는 동포집이라고는 장씨네 집밖에 남지 않았다. 미에섬에 산지 어언 서른해, 사람들이 장씨네 집을 미에택이라 부른지도 10여년이 된다. 그새 미에택의 두 아들은 아버지수령님께서 보내주시는 장학금을 타면서 고베조선중고급학교를 나와 지금은 어엿한 조청일군으로, 민족학교 교원으로 일하고있다.

미에택의 락이란 물에 있는 자식들한테서 오는 편지를 받아보는것이며 물에 있는 자식들과 같이 사는것이 희망이었다.

오랜만에 자식들한테서 편지가 오면 품속에 깊이 간수하고서 령감이 오기를 기다렸다. 어떤 때는 편지가 보풀이 일 때까지도 소금섬에서 령감이 돌아오지 않아서 언제나 돌아오나 하고 선창가에 나가 기다리는데 회답을 독촉하는 자식의 편지가 또 날아오곤 했다. 그러다가 령감이 돌아오면 반

가와 편지부터 내밀며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경감의 곁에 바짝 다가앉았다. 곁봉을 뜯고 눈으로 편지를 읽는 경감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입가에 웃음을 담았다. 《뛰라고 쫓소?》 하고 미에덱이 물으면 《잘들 있대.》 하고 한마디 던지고는 편지를 안주머니에 깊숙이 넣곤 했다. ...

미에덱은 기적소리에 소스라쳐 놀라 눈을 떴다.

(내가 졸았겠나?...)

미에덱은 두리번두리번 눈을 굴리며 방안을 돌아보았다. 장대를 다듬고있던 경감이 없다. 네발을 버릇없이 쭉 펴고 졸고있던 복슬강아지도 보이지 않는다. 열려져있던 창문은 이가 꼭 맞게 닫혀졌고 방 한가운데 놓았던 재떨이에는 담배꽂다리가 수북이 쌓였다. 방안의 공기는 맑았다.

미에덱은 방문을 열고 복슬강아지를 찾았다.

《워—리, 워—리.》

여느때같으면 문만 열어도 꼬리를 흔들며 달려올 강아지가 나타나지 않는다. 미에덱은 고개를 기웃거리며 무심결에 눈길을 토방에 던졌다. 경감의 로동화가 제 신과 가지런히 놓였다. 고개를 돌려 옷걸개를 보니 거기에 경감이 입었던 까만 덧옷이 걸렸다.

(새벽에 떠나는 배가 있어서 소금섬엘 갔나? 가면 간다는 소리라도 할게지. 성미두...)

미에덱은 갈피를 잡을수 없었다. 그는 창문을 열고 사방을 두리번 살폈다.

보름달이 서산너머로 깊이 숨어버린 바깥은 캄캄하였다. 둥근 하늘에는 달빛에 빛을 잃었던 별들이 총총했다. 바다건너에서 들려오는 기적소리가 밤공기를 찢으며 메아리쳐왔다.

순간, 미에덱의 뇌리에 경감이 하던 말이 떠올랐다.

《래일 새벽 수령님께서 보내주신 평양만수대에 술단이 교포로 간다기에...》

미에덱은 치마바람을 일कु며 선창으로 향해 걸음을 다우쳤다.

다박솔이 우거진 오솔길을 빠져 파도사나운 백사장을 걸어가던 미에덱은 너럭바위아래에 와서 무릎 멈춰섰다.

아아하게 치솟은 너럭바위우에 경감이 입에 담배를 물고 울방자를 틀고앉아서 길다란 장대를 랑손으로 받쳐들고있다.

그의 머리우로 쭉 뻗어나간 장대끝에 매단 폭넓은 기발이 바다바람에 펄럭이고있다. 경감이 담배를 빨아들일 때마다 그의 얼굴물결이 어렴풋이 나타났다.

경감의 곁엔 남포등이 놓였다. 그 바로 곁에 복슬강아지가 두귀를 쫓긋 세우고 쪼그리고앉았는데 기적소리가 울릴적마다 목을 추켜들고 바다건너를

향하여 짚어대곤 하였다.

미에덱은 경감과 바다건너 산기슭을 번갈아 보았다.

바다건너 산굽이를 에돌아 달릴 때는 기적소리만 들릴뿐 열차는 보이지 않았다. 다만 도래굽이를 에돌 때만이 열차간의 전등불이 언뜻언뜻 스쳐지나가는것이 보일뿐이다. 배웅하기에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었다. 얼굴은커녕 열차간들이 성냥꽂보다 작게 보이는 곳에서 배웅한다는것이 어처구니가 없는노릇인것 같았다. 가소롭게까지 여겨졌다.

이윽고 날이 희붉해오자 어둠속에 잠겼던 물의 산룡선이 서서히 제 자태를 드러내놓기 시작했다.

(참, 경감두!)

미에덱은 속으로 이렇게 뇌이며 너럭바위를 향해 걸어올라갔다.

너럭바위아래 백사장에는 이름모를 물새들의 발자욱들이 어지럽게 찍혀져있다. 모래불에 댕그라니 올라온 돛배의 배전을 파도가 이따금 밀려와서는 처절씩 후려치곤 했다. 바위중턱에는 뽕안물안개가 너울거리며 물켜가곤 한다. 바위중턱의 키낮은 소나무잎에서 이슬방울들이 하나하나 떨어진다.

울방자를 틀고앉은 바위처럼 움직일줄 모르는 경감의 머리우에 높이 솟은 길다란 장대의 끝에 매달린 공화국기발이 바다바람에 펄럭이고있다. 장대를 쥔 경감은 중절모를 쓰고 나들이양복에다 윤기도는 구두까지 받쳐신였었다. 곁에 놓인 남포불은 빛을 잃었는데도 그냥 켜져있었다. 불을 끌념도 않고 까딱하지도 않고 물을 바라보는 그의 눈은 살아서 움직이였다. 복슬강아지 역시 주인을 따라 꼼짝하지 않고 경감이 바라보는 곳을 보고있었는데 달팽이처럼 말린 꼬리털이 새벽바람에 하늘거렸다.

경감을 바라보던 미에덱의 눈앞에 어느새 어버이수령님께서 총련을 무어주신 1955년 5월 어느날, 총련결성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온 가족이 쪽배를 타고 고베로 건너가던 일이 환히 떠올랐다.

그때 경감은 단 한벌밖에 없는 나들이양복에다 넥타이를 매고 중절모까지 쓰고 온 얼굴에 흐르는 구슬땀을 수건으로 닦으며 노를 저였었다. 이따금 뒤돌아보며 공화국기를 잡고있는 미에덱을 보고 수건을 흔들며 나무람하였었다. 세식구의 여섯손으로 공화국기를 힘껏 높이 추켜올렸다. 그래도 경감은 더 높이 들라고 소리쳤었다.

《뭘 하오! 높이 쳐들라! 더 높이!》

미에덱의 귀에는 그때의 경감의 목소리가 들려오는듯 했다.

그의 바로 눈앞에, 너럭바위우에 경감이 그때

들었던 그 폭넓은 공화국기발을 두손으로 받쳐들고있었다.

미에택은 가슴속에서 올라오는 뜨거움을 억누르지 못하고 령감을 부르며 달려갔다.

《여보!》

소리는 입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몇발자욱 못가서 굳어져버렸다. 왜선지 령감이 근엄해보였고 령감의 마음속 깊이 자리잡고있는 승엄한 감정이 올라오는듯 했다. 멀리 바라보이던 물이 가까와지는듯 느껴졌다.

어느덧 수평선우에 찬란한 해살이 부채살마냥 퍼져갔다.

움직일줄 모르던 령감이 자리를 털고 일어섰다. 복슬강아지도 꼬리를 휘저으며 일어섰다. 길다란 장대에 매달린 오각별 빛나는 공화국기가 령감의 머리우에서 아침해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다.

미구에 기적소리가 아침대기를 헤가르며 수평선 너머로 메아리쳐왔다. 령차의 앞머리가 바다건너 산기슭 저쪽에서 피곳 나타났다가 수림속으로 자취를 감추자 뒤이어 길다란 령차간들이 스르르 수림속으로 숨어버린다.

령차는 산굽이를 돌 때마다 기적소리를 짧게 울리면서 나타났다가는 사라지고 사라졌다가는 나타나곤 하며 마치 숨박꼭질이나 하듯 도래굽이를 향해 달려왔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보내주신 평양만수대에술단을 태운 특급령차가 교포로 향해 세포나이가이의 바다가를 따라 고속도로 달려가는것이다.

《뚜—기! 뚜—기!》

특급령차는 미에섬 맞은편 도래굽이에 이르자

기적소리를 울리고는 휙 지나갔다.

순간.

령감이 공화국기를 힘껏 흔들며 웨쳤다, 심장의 목소리로.

《만세!—》

그 순간 미에택도 두팔을 높이 추켜올렸다.

《만세!—》

미에택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방울이 함짝 피어올랐다. 그의 볼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물면에 닿을듯말듯 낮추 떠돌던 갈매기들이 그들의 환호에 축포마냥 하늘높이 날아올랐다가 령차가 사라진 쪽으로 날아갔다.

특급령차는 만세소리에 화답이라도 하듯 기적소리를 짧게 울리며 시야밖으로 사라졌다.

그것은 순간이었다. 너무나도 짧은 순간이었다.

그러나 그들— 미에택과 령감은 그 짧은 순간에 지나깨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마음속에서 그리워하며 힘을 얻던 조국— 사회주의조국을 온 심장으로 보았던것이다.

령차가 사라진 바다건너 산기슭을 바라보며 공화국기발을 흔드는 령감의 눈에 고여올랐던 눈물이 주름살을 타고 억수마냥 흘러내렸다. 미에택의 얼굴에도...

머리우 높이 추켜올렸던 미에택의 두팔은 굳어진듯 언제까지나 내려올줄 몰랐다.

령감의 머리우 높이 솟은 람홍색공화국기발은 아침해살을 받아 눈부신 빛을 뿌리며 세차게 펄럭이었다. 마치 그들, 미에택과 령감을 감싸주듯이...

[주체64(1975)년]

가 사

## 어머니편지

김 철 혁

오늘도 잘 있느냐 그 목소리 정겨웁네  
초소에 따라서는 그 마음 따뜻하네  
아 어머니편지  
병사의 걸음걸음 함께 가는 힘이라네

정다운 모교의 종소리도 울려주네  
뛰놀던 버들방천 발전소도 보여오네  
아 어머니편지  
병사가 안고사는 고향의 숨결이라네

낳아준 정으로 키워준 사랑으로  
장군님 위한 길에 이 아들을 부르네  
아 어머니편지  
위훈으로 날 부르는 조국의 목소리라네

가 사

## 진달래 처녀

박 상 민

연분홍머리수건 들에 날리며  
처녀는 꿈을 엮네 행복을 엮네  
뜨락돌 물고물아 봄마중 가는  
너는야 내 고향의 진달래 처녀

넓어진 지평선 저 한끝까지  
처녀는 수를 놓네 푸른 수 놓네  
모기계 물고물아 봄을 가꾸는  
너는야 내 고향의 진달래 처녀

장군님 별에 모실 그날 그리며  
처녀는 봄에 사네 가을에 사네  
풍요한 대지에 금나락 펼칠  
너는야 내 고향의 진달래 처녀



온 아 군

김기범 역

그는 반년전에 이 임무를 받았다. 그의 임무는 매일 하늘소를 끌고 개민하(강의 이름—역주)로 가서 중대가 먹을 물을 길어오는 것이었다.

사실 명령은 간단하였으나 수행하는 것은 결코 험치 않았다. 중대로부터 강까지는 20리나마 되었다. 왕복 40리가 넘는 길을 하루에 네 번 다녀와야 했고 그것도 평탄한 큰길이 아니라 비좁고 험준한 산길을 밟아야 했던 것이다. 그가 길어오는 물은 온 중대의 생명수였다.

원래 그가 이 일을 맡기 전에 어떤 하사가 털소를 몰고다니며 물을 길군 하였다. 어느날 소가 늙어서 중대에서는 털소를 새로 한마리 사오라고 신임사관장을 보냈는데 끌고온것은 소가 아니라 하늘소였다. 그 이유인즉은 소를 비싸게 사기보다는 낮은 하늘소를 사는것이 여러모로 더 실리적이라는 것이었다. 이 타산앞에 중대장은 사관장을 살림꾼이라고 칭찬했다. 그러나 중대의 새 《식구》가 첫날부터 소동을 일으킬줄은 누구도 짐작치 못했다.

이른아침 하사가 물을 길으려고 하늘소의 등에 길마를 얹으니 하늘소가 요동치며 그 《불편한 것》을 땅바닥에 내동댕이쳤다. 아연해졌던 하사는 다시 집어들어 올려놓았다. 그러니 이번에는 더욱 길길이 날뛰며 전번보다 더 세차게 내던졌다. 화가 통한 하사는 동무들을 소리쳐부르고 달려온 그들과 함께 바줄로 칭칭 길마를 동여맸다. 그러자 하늘소는 마당이 좁다하게 미친듯이 야단을 쳤다. 손에 채찍을 든 하사는 두눈을 똑 부릅뜨고 짹 호통쳤다.

《이놈! 누가 이기나 보자.》

그리고는 연방 채찍을 휘두르며 가파로운 산비탈을 급급히 내려갔다.

아침에 소란스레 떠나갔던 하늘소와 하사는 저녁 어슬무렵에야 겨우 물을 두통나마 되게 싣고 험뻑험뻑 돌아왔다. 그것도 사관장이 보낸 병사들이 힘을 모아 억지다짐으로 끌고왔으니 그렇지 하마트면 온밤 강변에 불박히있을번 하였다. 그제서야 사관장은 자기의 어리석은 실수를 깨달았다.

《중대장동지, 저놈을 팔고 털소를 사오겠습니다.》

중대장은 설레설레 도리머리를 저었다.

《그렇게 자꾸 바꿀대기를 하면 중대물공급이 엉망진창이 될거요. 그런대로 하늘소를 씹시다.》

《저놈이 애당초 말을 듣지 않습니다. 통 물을 나르려고 안하니...》

볼이 잔뜩 부은 사관장을 능청스레 바라보며 중대장은 히히 웃었다.

《말을 안 들으면 말을 듣게 길들여야지.》

《예?! 누가 말입니까?》

중대장은 어느 한 상등병의 이름을 부르고 사관장의 어깨를 툭 쳤다.

《짐승이 아니라 사람을 바꿔야지! 그 하사동무 대신 이자 내가 제기한 상등병동무를 시켜보오.》

중대장이 말하는 상등병은 군대에 입대한지 두해도 되나마나한 병사였는데 종일 가야 말 한마디 없고 누가 말을 걸면 얼굴부터 확 붉히는 순박한 청년이었다. 그런 마음어진 사람이 하늘소의 왕고

집을 꺾는다구? 물공급은 중대의 하루일과와 직접 관련된 몫시 중요한 임무이며 더 나아가서는 중대의 생사와도 관련된 대단히 책임적이고 신중한 과업인데 그런 《반병어리》 같은 상등병이 꽤 감당할 수 있을까? 사관장은 자기의 우려되는 점들을 중대장앞에 툭 털어놓았다.

《한번 믿어봅시다.》

중대장은 단마디로 답변했다.

임무를 받은 다음날 이른새벽 중대의 기상나팔 소리가 울리기도 전에 자리에서 일어난 상등병은 하늘소를 끌어내서 물통을 엮었다. 하늘소는 이젠 또 웬 불청객이냐는 듯 코김을 히히 뿜으며 잔등의 것을 획 동맹이쳤다. 역시 그 못된 버릇이 되살아난 것이었다. 그랬으나 상등병은 전혀 성내는 기색이 없이 다시 들어다 잔등에 올려놓았다. 하, 이것 봐라! 하늘소는 사정없이 뿌리쳤다. 급해하지도 않고 욕설은 더욱더 없이 병사는 묵묵히 저만치 굴러떨어진 물통을 느릿느릿 집어들고 되돌아와 또다시 올려놓았다. 가족물통이어서 깨질 념려는 없었다. 한번 또 한번 상등병과 하늘소는 서로가 말없이 인내력을 겨루기 시작했다. 하늘소도 왕고집불통이지만 상등병 역시 땅고집쟁이였다. 온몸이 땀에 화락하니 젖어도 그는 지칠 줄 모르는 듯 완강히 물통을 올려놓고 또 올려놓았다. 나중에는 하늘소가 먼저 기운이 진해 헉헉거리며 항복하고말았다. 할수없이 잔등에 물통을 엮은 《패배자》는 어쩔수 없다는 듯이 목을 푹 꺾고 《승리자》의 손에 끌리어 마구간을 나섰다.

그가 군사복무를 하는 신강에서는 20리쯤의 로정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있다. 누구나 한달음에 가달을 수 있는 거리를 그는 하늘소를 끌고서 거의 두시간이나 걸려서 강에 이르렀다. 땀이 쏠리는지 우정 뜨직뜨직 가는 하늘소의 뒤를 따르는 상등병의 걸음은 더욱 태평스럽고 느릿느릿하였다.

강물을 퍼담은 물통을 등에 실으니 하늘소는 다시금 피박한 성미를 드러내놓았다. 몇번이나 바닥에 팽개쳐진 물통에 다시 물을 담느라고 병사의 몸은 물참봉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걸죽한 욕질 한마디는커녕 반마디도 없이 그는 태연히 누그러진 성미로 하늘소의 기질과 맞섰다. 그러니 성이 난것은 오히려 하늘소였다. 더욱더 기승을 부리는 하늘소의 양탈을 보며 상등병은 히끗이 웃기만 하였다.

드디어 이번 싱갱이에서도 하늘소가 졌다. 중천에 걸렸던 해가 좀 기울었을무렵에야 병사는 하늘소를 끌고 처음으로 중대마당에 들어섰다. 해종일 돌아올 줄 모르는 상등병이 걱정되어 전사들을 마중보내려던 사관장은 두통의 물을 싣고 나타난 그를 보자 안도의 숨을 쉬며 반기었다.

《수고했소. 그놈이 꽤 애물같이 놀았겠구만!》

상등병은 일언반구없이 증기빵 두개를 집어들고는 다시 하늘소를 끌고 되돌아섰다.

《아니? 인차 어두워지겠는데 어딜 가요?》

사관장은 어리둥절했다.

《오늘 물을 다 나르지 못했습니다.》

사관장은 아무 말도 못하고 상등병의 멀어져가는 뒤모습을 바라보기만 하였다.

밤이 되었다. 그러나 상등병은 나타나지 않았다. 불안해진 사관장은 전사들을 데리고 마중나가려고 서둘렀다.

《됐소. 그 동무를 혼자 내버려두오. 사람들이 많이 가면 그놈의 하늘소가 더 기를 쓰며 애먹일게요. 오히려 그놈이 우릴 길들이자 할거란 말이요, 허허.》

중대장은 끝내 사관장의 마음을 굽혀놓았다.

아니나다를가 상등병은 두통의 물을 하늘소에 싣고 한밤중에 중대마당에 들어섰다. 그의 온 얼굴에 피로가 질게 어려있었다.

물을 다 쏟고 하늘소에게 여물을 주느라고 한숨 돌린 병사는 다시금 물통을 들고나섰다.

《아니, 또 가겠다는거요?》

사관장은 눈을 화등잔같이 떴다.

《오늘 물을 다 길지 못했습니다.》

《일없소. 먹는 물은 충분하니 가지 마오. 세면 물이야 그럭저럭 생기겠지.》

《아닙니다. 전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고집스레 말하며 병사는 하늘소의 고삐를 바싹 탈아쥐었다. 그러자 하늘소는 대가리를 깊숙이 숙이며 네다리를 앙버티었다. 밤새껏 부러먹을 잡도릴 하는 병사에게 뺨뺨이 맞서는 것이었다. 이 광경을 본 사관장은 부랴부랴 중대장을 찾아갔다.

《가게 하오. 그 동문 바로 그런 병사요. 하늘소가 안 가면 제가 등에 통을 지고서라도 물을 다 채워놓을게요.》

《그러다가 사람도 짐승도 다 쓰러지면 어떻게 합니까?》

《쓰러지지 않소. 그놈의 하늘소에겐 그 방법이 제일이요. 허허, 그 동무가 하늘소를 다룰 줄 알거던.》

중대장은 호인다운 웃음을 눈에 담으며 손전지를 사관장의 손에 들려주었다.

《그 동무를 보내오. 그리고 여기 주변에는 맹수가 없으니 걱정하지 마오. 이 전지를 주라구.》

그랬건만 사관장은 쉽게 물러서려 안했다.

《원 동무도 참! 그럼 몰래 뒤따라가보오.》

상등병은 그날 여덟통의 물을 다 날라다놓고서야 잠자리에 들었다. 그때는 동녘하늘이 푸름푸름 밝아무렵이었다.

기상나팔이 울리기 전에 그는 남먼저 깨어나 마구간에 들어섰다. 그리고는 하늘소에게 여물을 기껏 먹이고나서 고삐를 잡고 이슬을 걷어차며 흔들

흔들 산길을 걸어내렸다. 그날도 밤새껏 160리길을 오가며 물을 길었다. 하루이틀도 아닌 먼 며칠을 이어가며 병사는 이렇게 하늘소를 몰아 날이 새도록 강에서 중대로, 중대에서 강으로 오고갔다. 물을 다 길지 못하면 자신은 물론이고 하늘소도 쉬울념을 안했다. 그뿐아니라 욕질 한마디, 매질 한번 없었다. 상등병의 그 후더분한 인정에 감동되었는지 아니면 굳센 의지앞에 굴복했는지 하늘소도 차츰차츰 고분고분해져갔다.

중대의 물공급이 완전히 정상궤도에 오른 어느날 중대장은 미소를 띠우며 사관장에게 말했다.

《어떻소? 내가 사람을 정확히 보았지. 저런 고집불통 하늘소에겐 저놈보다 더 뺨머리가 드센 사람이 있어야 하는거요.》

그날 상등병은 중대장의 대렬감사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상등병은 물을 길기 시작했다. 못사람들이 시답게 여기지 않는 이런 일을 병사는 중요한 《군사임무》로 받아안고 고지식하게 수행해나갔다.

하늘소도 이전처럼 거칠게 갈개지 않았다. 병사는 하늘소가 자기를 주인으로 인정하였으며 또 자기와 친하러 한다는것을 느꼈다. 그 역시 하늘소가 마음에 들었다. 그가 흐뭇이 웃으며 잔등을 툭툭 두드릴 때면 하늘소는 하늘을 향해 기분 좋게 울고 들려오는 메아리에 반주를 하듯 발굽소리를 툭툭툭툭 쉼어가며 앞장서 뛰어갔다. 병사도 아예 고삐를 하늘소의 목에 감아놓고 제 하고싶은대로 내버려두었다. 끌고가고 끌려오는 사이가 아니라 둘이서 나란히 마음속의 《이야기》를 나누는 친근한 《동무》가 되어 오솔길을 오르내렸다.

어떤 길은 좁다못해 오직 한사람만이 가까스로 통과할수 있었다. 그런 경우에는 하늘소가 먼저 앞장서서 지나간 다음 뒤따라 병사가 오기를 얹전히 기다렸다. 기다렸다가는 상등병이 다가오면 쾅충쾅충 어리광치듯 앞으로 달려갔다. 하늘소는 병사가 자기의 갈기털을 쓸어주는것을 제일 좋아했다. 바람에 제멋대로 날리는 갈기털을 쓰다듬으며 《가자.》라고 말하면 하늘소는 히히거리며 물이 철철 넘치는 목직한 물통을 싣고 경쾌하게 속보로 달려갔다.

여름철에는 풀이 무성하게 자란 강변에 하늘소를 풀어놓고 만문하고 맛있는 풀들을 실컷 풀라먹게 하였다. 상등병은 그옆에 드러누워서 하늘소의 주둥이에서 짓씹혀져 풍기는 싱그러운 풀내를 후련히 들이맡으며 조용히 신강의 대자연이 연주하는 교향곡을 애뉠한 향수속에 감상하곤 했다. 눈을 감으면 풀줄기사이를 넘나드는 곤충들의 날개 비비는 소리며 풀숲을 와솔랑와솔랑 헤치며 불어가는 바람소리, 어디선가 울리는 유정한 피리소리가 병사의 귀가 아니라 가슴속으로 흘러들었다.

눈을 뜨면 교향곡연주는 끝나버리고 그대신 열심히 풀을 뜯다가는 드문히 머리를 건뚫 들고 자기를 지켜보는 하늘소의 공손한 눈길에 안겨와 병사는 마음이 푸근해왔다. 처녀의 촉촉히 젖어든 다정하고 부드러운 눈길을 마주하는것 같아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하늘소를 따듯이 품안아주었다. 얼마나 많은 날과 달을 그는 이 하늘소와 함께 지냈던가. 사람과 동물사이에도 《우정》이라는게 있을까?

그들은 날이 갈수록 《마음》이 맞았다.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고분하게 말드는 하늘소는 마치도 갓 시집온 새색시같기도 했다. 그래서 하늘소가 더 사랑스러운지도 몰랐다.

어느날 그는 자기의 하늘소에게 이름을 하나 달아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년세월 그가 던지는 말이란 단 두마디 《가라.》와 《서라.》였다. 자기 보기에다 하늘소에게 어떤지 미안한 생각이 들어 그는 오래동안 궁리하고 또 하던 끝에 그럴듯한 이름을 생각해냈다.

《검둥이!》 하늘소는 온 몸뚱이가 석탄처럼 새까맣고 닭은듯이 반들거렸다. 정작 이름을 지어주 고보니 어쩐지 《검둥이》가 짐승이 아니라 중대의 성원, 자기의 《전우》인듯이 생각되었다. 물론 두말할것없이 자기의 《부하》였다. 불러보니 까다롭지 않고 편안해서 좋았다. 처음에 하늘소가 이 부름에 습관되지 않아 좀 애를 먹었다. 우정 그러는지 혹은 그 고약한 버릇이 또 머릴 쳐들었는지. 어쨌든 《검둥이》는 자기를 찾는 소리를 듣는등마는등했고 상등병을 골리려는듯 굶뎡이같이 반응했다. 그러나 이전같이 배포유하게 웃음을 지으며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름을 반복하니 마침내는 하늘소도 《검둥이》라는 말을 자기의 이름으로 인정하는데 《동의》하고야말았다.

상등병은 물을 길으면서 하나의 규칙을 만들었다. 즉 오전에 두번, 오후에 두번 나르는데 첫번째로 길어온 물은 중대식당에, 두번째는 1소대와 2소대에 각각 한통씩, 세번째는 중대식당에, 네번째는 3소대와 중대부에 제각기 한통씩 공급했다.

그어놓은듯이 고정된 이 자리길에 어느새 《검둥이》도 습관이 되어 길을 헛드는 일도 없어졌다.

어느날이었다. 물을 나르던 상등병은 갑자기 배속이 왈랑왈랑 끓어 황급히 길옆의 도랑에 뛰어들었다. 미처 《검둥이》에게 서라고 소리칠 새도 없었다. 급한 대목을 넘기고나서 제자리에 와보니 《검둥이》가 보이지 않았다. 제혼자 중대로 가버린것이였다. 덜컥 근심이 앞선 그는 부랴부랴 하늘소의 뒤를 쫓아갔다. 뒤쫓아 중대에까지 이르니 《검둥이》는 이미 1소대와 2소대에 주동적으로 물공급을 끝내고 마당에 우뚝 서있었다. 어서

빨리 상등병이 와서 길마를 벗기고 점심여물을 주길 기다리는 모양이었다.

하늘소가 혼자 돌아온것을 본 사관장은 틀림없이 상등병에게 사고가 생겼다고 지레짐작하고 전사들을 불러모으고있었다. 이때 상등병이 험레벌떡 달려와 그달음으로 《검둥이》앞에까지 이르렀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불안을 느꼈는지 하늘소는 넝름 뒤로 물러서더니 순박한 눈매로 상등병을 마주보며 공손히 《욕》을 기다리고있었다. 그러나 《욕》은커녕 상등병은 《검둥이》의 갈기를 장한듯이 쭉쭉 끌어주고 잔등을 툭툭 두드렸다. 비길데 없는 가장 큰 표창이었다. 《검둥이》는 대가리를 건뚫 쳐들고 귀맛 좋게 울었다. 이것으로써 제나름대로 《기쁨》을 표시하는것이다. 사연을 알게 된 중대군인들은 《검둥이》를 둘러싸고 칭찬과 감탄으로 범석 났었다.

어느날 상등병은 취사당반에게 말했다.

《이제부터는 〈검둥이〉 혼자 다니게 하겠습니 다.》

그 말대로 병사는 강가에서 물을 그득히 채우고는 《검둥이》를 톱 치며 말했다.

《혼자 가봐.》

하늘소는 제혼자 산을 넘었다. 강변에 어린애를 홀로 내놓은 어머니심정인듯 마음이 뒤숭숭해진 상등병은 슬금슬금 그뒤를 먼발치서 따라갔다. 좁고 험한 서덜길, 우불구불하고 먼지만 풀풀 이는 오솔길을 따라 《검둥이》는 자기의 주인처럼 묵묵히 바지런히 다리를 옮겼다. 하기는 풀 한포기 없는 불모의 산에 눈길을 끝만 한것도 없었다. 또 하늘소의 길을 막아나설 짐승도, 장애물도 없었다. 보이는것은 사방에 돌, 바위, 흙먼지뿐이었다. 상등병은 저 멀리 접이 되어 사라져가는 《검둥이》를 눈길로 좇으며 속으로 거둬 칭찬했다. 하늘아래 눈길 한번 거칠 곳 없는 땅위에 살아움직이는 생명체는 오직 《검둥이》 하나뿐이었다. 작아져가던 하늘소가 이제는 더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그는 가슴속이 일시에 쿵 무너지는듯 한 허전한감을 느끼었다. 사면팔방에서 무서운 정적과 고요가 엄습하여 삼시에 그를 짝 에워쌌다. 병사가 서있는 산정은 조국의 한끝, 신강의 변두리에서도 가장 외진 궁벽한 곳이었다. 군사지도에조차 점으로도 표시되어있지 않는 한뼘기 땅을 지키며 병사는 청춘시절 인적없고 짐승조차 달아나버린 메마른 산골에서 하늘소를 벗삼아 임무를 수행하고있다. 유일한 《말동무》였던 하늘소마저 곁에 없고 가없는 하늘아래, 텅 빈 대지위에 홀로 남은 병사는 자기의 마음속에 《검둥이》가 얼마나 큰 자리를 차지하고있었는지 새삼스레 깨달았다. 비록 인차 다시 만나련만 병사는 흘러가는 분과 초가 몫시도 더디고 지루하게만 느껴져 어서빨리

《검둥이》가 다시 저 산등성이에 나타나기를 목이 빠지도록 기다렸다. 《검둥이》가 마침내 빈통을 싣고 개민하로 되돌아왔다. 순간 북받치는 감동을 누를길없이 상등병은 와락 달려가 《검둥이》를 입맞추었다. 그리고는 《임무》를 훌륭히 수행한 용감성을 표창하여 그새 무독히 베여놓은 풀들을 《검둥이》앞에 한아름 갖다놓았다. 《검둥이》는 말큰한 풀들을 혀로 연신 입안에 말아넣으며 꼬리를 흔들흔들 젖는것으로써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듯싶었다.

상등병은 직접 수십여리 떨어진 곳에까지 나가 《검둥이》목에 달아줄 방울을 골라 사가지고 왔다. 방울소리는 누구나 듣기 좋아했다. 《검둥이》가 발을 내짚을 때마다 그에 맞춰 《팔랑팔랑》울리는 소리는 적막한 산밭들에 아름다운 노래되어 메아리쳤다. 《검둥이》역시 흥겨웠던지 상등병곁으로 돌아올 때는 사기나게 걸음발을 다그쳐 방울소리를 보다 더 힘차게 울리었다. 중대병사들은 방울소리를 듣고 《검둥이》가 어디쯤까지 왔는지 알아맞히곤 하였다. 이제는 방울소리를 빼놓은 중대의 생활리듬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게 되었다.

강에서 물을 통에 철렁철렁 넘치도록 담아놓고 상등병이 《자 가봐, 길에서 놀면 안돼.》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철썩 엉치를 갈기면 《검둥이》는 엉금한 눈매로 병사를 뒤돌아보고는 알았다는듯이 대가리를 몇번 주억거리고나서 발을 떼곤 하였다.

하늘소를 혼자 보내놓고 그는 강변에 앉아 《검둥이》가 돌아올 때까지 책을 펼쳐들고 공부를 하였다. 한생을 군인으로 복무할 포부를 안고있는 그는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군관학교입학시험준비를 짬짬이 하고있었다. 공부에 지치면 일어나 뒤집을 지고 강변의 풀밭을 천천히 거닐면서 먼지 한점 없는 신강의 청신한 공기를 가슴한껏 후련히 들이쉬곤 하였다. 어릴적 그가 바라보던 지평선, 이 세상의 끝, 하늘과 땅이 맞닿은 곳이 바로 여긴가싶었다. 이곳에는 인간의 모든 고통과 즐거움, 행복과 실망, 욕심과功名심이 봄날의 눈석이처럼 대자연속에 녹아버리고 오로지 단순하고 천진하며 깨끗한것만이 남아있었다. 《고집쟁이》이고 《싸움군》인 《검둥이》도 자연의 이 신비한 힘에 정화되어 저렇듯 평리하고 온순해졌을가? 생각이 《검둥이》에게 미치자 그는 느닷없이 서글퍼졌다. 이제 군관학교에 가면 어차피 《검둥이》와 헤어져야 한다. 작별의 그날은 하루하루 다가오고있다. 정녕 그날에는 가슴이 미여져와 작별의 인사말을 차마 입밖에 단 한마디도 낼것 같지 못했다. 그러나 보다 더 큰것을 위해서 그는 《검둥이》와 헤어져야 했다. 괴로움으로 쓰리는 심정을 애써 달래고싶어 그는 책을 옆에 던지고 부쩍부쩍



기운을 쓰며 풀을 베기 시작했다. 한해 겨울뿐 아니라 일생 먹일 사료를 장만해두려는듯이 그는 무겁게 낫을 휘둘러 풀단을 묶어나갔다. 그러면 《검둥이》도 자기를 잊지 않고 《추억》할것 같았고 자기도 《검둥이》를 《버리는》 죄책감을 얼마간이나마 덜것만 같아서였다.

《팔랑팔랑》 산길우에 울리는 방울소리속에서 또 한해가 지나갔다. 그해 여름 하사로 승급된 상등병은 군관학교입학시험에서도 높은 성적으로 합격되었다. 통지서가 부대에 내려온 그날 중대장은 웃으며 말했다.

《〈검둥이〉에게 단단히 인사를 해야겠소. 그놈이 동무에게 공부할 시간을 주었거든!》

통담이기는 해도 일리가 있는 말이었다.

희색이 만면한 그 역시 패히 룡으로 받아넘겼다.

《예, 고맙다고 톡톡히 인사차림을 하겠습니 다.》

그러나 가슴은 아팠다.

드디어 아득히 멀어만 보이던 작별의 날이 눈앞에 박두한것이다. 그는 떠나기 전날 저녁까지 《검둥이》와 물을 날랐다. 중대마당의 한켠구석에는 그가 가려놓은 풀날가리가 봉우리처럼 솟아있었다.

군관학교로 떠나가는 날 하사는 《검둥이》에게 자기의 집을 지워 산을 내렸다. 무엇을 예감했는지 그날따라 《검둥이》발걸음도 류달리 뜨직뜨직하였다. 하늘소의 새 주인이 된 신입병사가 속상한 나머지 왈칵 역증을 내며 매를 들려 하였다.

《때리지 마오. 〈검둥이〉는 우리 중대의 사랑둥이요.》

신입병사는 눈이 떠꾼하여 두말 못하고말았다. 저 신입병사가 하사와 하늘소사이에 《우정》이 어떻게 맺어졌고 어떻게 날로 깊어져왔는가를 안다면 감히 그앞에서 채찍을 들 엄두조차 못냈을것이었다.

《이 궁벽한 고장을 지키려면 사랑하는것부터 배우라구, 모든것을 말ियो.》

하사는 자기의 이 말의 참뜻을 신입병사가 다 깨닫기에는 아직 어리나 그래도 앞으로는 꼭 느끼게 되리라고 믿고싶었다.

그들 일행은 한나절이 걸려서야 개민하에 이르렀다. 《검둥이》의 실팍하고 까마반드르한 등

에 마지막물통을 올려놓은 그는 떨리는 손으로 신입병사에게 고삐를 넘겨주었다.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그는 머리를 외로 틀었다. 그다음은 신입병사의 손에 이끌리어 자기의 결을 공손히 지나 멀어져가는 《검둥이》의 뒤모습을 그 자리에 점도록 서서 지켜보았다. 귀에 익은 방울소리가 점점 멀어지더니 이제는 희미하게 들릴듯말듯 하였다. 정말 서운하였다. 서운하다못해 노여운감도 없지 않았다. 차라리 자기앞에서 《검둥이》가 처음 만났을 때처럼 양탈질하며 갈꺠질이라도 한바탕 하면 쓰린 마음이 다소나마 개운해질것 같았다. 이제 저 신입병사도 언젠가는 《검둥이》를 다른 군인에게 넘겨주게 될것이다. 주인은 바뀌어도 《검둥이》는 여전히 한모양으로 늙어 쇠진해질 때까지 오직 이 한길로만 오가며 자기가 맡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것이다. 바로 하사가 《가르친》그대로 말이다.

아득히 들려오던 방울소리도 이제는 가뭇없이 사라지자 그는 배낭을 메고 돌아서서 걸음을 성큼 내짚었다. 그런데 불현듯 사라졌던 방울소리가 다시금 귀가에 간간이 들려왔다. 다급하면서도 힘찬 방울소리였다. 그는 획 돌아섰다. 아! 저 멀리서부터 《검둥이》가 과연 언제 그런 억센 힘이 있었던가싶게 바람을 안고 쏜살같이 달려오고있었다. 주둥이에서 흰 거품을 날리며 돌부리들을 마구다지로 걸어차며 무거운 물통도 아랑곳없이 하사를 향해 구보로 달려오는 《검둥이》는 마치 엄마를 부르며 두팔 벌려 달려오는 어린애같았다. 불끈 솟구치는 걱정애 숨이 꺾 막히고 눈굽이 화끈 달아올랐다. 뿌예지는 망막속에 기쓰며 달려오는 《검둥이》와 그뒤에 우뚝이 솟아있는 높고낮은 산발들, 가리마같은 오솔길과 투박한 바위들, 다급다급 돌아난 잡관목과 풀, 그가 지켜섰던 그 모든것이 가슴이 찢릿하게 안겨왔다.

머나먼 외진 척박한 산골에서 거의 희한하다고 해야 할 류다른 광경을 목격하는 신입병사의 놀라움은 더 이룰데 없었다. 하늘소가 네굽을 걸어안고 하사를 향해 달려간다. 그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신입병사의 귀에 어디선가 나직한 말소리가 들려여왔다.

《이 궁벽한 곳을 지키려면 사랑하는것부터 배우라구, 모든것을 말ियो.》

## 상 식

### 여름철에 밥이 쉬지 않게 하려면

무더운 여름철에 밥이 쉬여지는 때가 많다. 밥을 끓일 때 1.5kg의 쌀에 반숟가락정도의 식초를 뿔구어넣으면 밥색같이 더 희게 될뿐 아니라 입맛도 돋구며 밥이 쉽게 쉬지 않는다.

밥을 박바가지에 퍼놓으면 밥에 군물이 들지 않고 잘 쉬지 않으며 건강에도 좋다. 이렇게 하면 먼 려행길에도 밥이 쉽게 쉬지 않고 오래 전사할수 있다.

## 고전소설의 독특한 양식인 몽유록소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작품에서는 언어와 구성, 양상과 형태와 같은 일련의 형상수단과 형상수법을 다 동원하여야 내용을 충분히 살려낼수 있다.》

우리 나라 고전소설은 다양한 소재를 탐구하고 그것을 예술적으로 구현하는 과정에 몽유록소설이라는 독특한 양식을 창조하였다.

몽유록소설은 꿈을 꾸는 사람—몽유자가 꿈속에서 체험한 사건을 적는 형식으로 이야기를 독특하게 꾸민 소설양식의 하나이다.

몽유록소설은 꿈이라는 비현실적이며 환상적인 세계를 작품전개의 주요형식으로 도입하여 사회현실에 대한 작가의 불만과 비난, 사회적리상을 자유롭게 토로하려는 창작적탐구과정에 새롭게 출현하였다.

몽유록소설은 등장하는 인물들이 거의나 실재한 인물들이며 당대 사회현실에 대한 울분과 불만을 가진 비분강개하고 자유분방한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는 점, 구성조직의 측면에서 볼 때 《꿈속에 들어가는 계기—꿈속에서의 사건—꿈에서 깨어나는 계기》로써 동일한 구조를 이룬다는데 그 특성이 있다.

몽유록소설작품들은 주제사상적내용에 따라 현실비판주제와 이상사회제시형주제로, 작품의 용적에 따라 단편몽유록소설과 중편몽유록소설로 구분할수 있으며 작가의 묘사시점에 따라 1인칭몽유록소설, 3인칭몽유록소설로 나눌수 있고 또 꿈꾸는 사람—몽유자의 위치에 따라 분류할수 있으며 이 꿈꾸는 사람—몽유자의 위치에 따르는 유형을 다시 방관자형몽유록소설, 주인공형몽유록소설, 개입자형몽유록소설로 구분할수 있다.

15—16세기에 와서 몽유록소설이 발생하게 된 것은 우선 세조의 왕위찬탈사건, 임진조국전쟁 등 심각한 정치적사변들로 이어진 복잡다단한 사회력사적환경이 문학발전에 새로운 영향을 미친것과 관련된다.

또한 이 시기 진보적문인들속에서 불합리한 현실에 대한 비판과 현실에서는 도저히 실현될수 없는 사회정치적리상을 자유롭게 토로하기 위한 창작적탐구과정에 꿈의 세계에 의탁하여 자기들의 창작적의도를 달성할수 있는 작품양식을 새롭게 탐구하여야 할 필요성으로부터 발생하게 되었다.

15세기에 김시습(1435—1493)의 단편소설집 《금오신화》에 실려있는 《남염부주이야기》, 《풍공의 상량잔치》로부터 첫걸음을 시작한 몽유록소설은 16세기에 심의의 《기몽》(《대판재

몽유록》)과 신광한(1484—1555)의 《안병몽유록》, 립제(1549—1587)의 《원생몽유록》, 17세기에 창작된 윤계선(1577—1604)의 《몽유달천록》, 류영의 《운영전》(《수성궁몽유록》), 허균(1569—1618)의 《순군부녀신의 원한》, 최영의 《금생이문록》과 작가불명의 《몽유록》, 《피생명몽록》, 《금화사몽유록》 등 허다한 작품들을 남기였다.

몽유록소설은 창작의 첫발을 내디딘 때로부터 오랜 세월 창작되어오는 과정에 수많은 작품들을 남기였을뿐아니라 독특한 주제사상도 탐구하였다.

몽유록소설의 주제사상에서 주되는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봉건사회현실에 대한 예리한 비판정신을 구현한것이다.

이러한 비판정신은 무엇보다도 봉건군주를 비롯한 통치배들의 비인간적인 처사와 부패성을 예리하게 까밝히고있는데 있는데 그것은 《남염부주 이야기》, 《원생몽유록》, 《운영전》, 《피생명몽록》 등에 잘 나타나고있다.

대표적으로 김시습의 작품인 《남염부주이야기》에서 보여주는것과 같이 주인공 박생이 꿈에던 남해바다의 염부주라는 가상적인 섬나라에 가서 염라대왕을 만나 나누는 이야기를 통하여 나라의 정사를 그르치는 간신들과 폭군의 전횡을 폭로 비판하고있다.

여기서 간신들과 폭군들의 전횡에 대한 폭로비판은 직접적으로는 당시 단종의 왕위를 빼앗은 세조와 그 측근신하들에 대한 작가자신의 저주이며 비난이다.

1455년에 있는 리조 6대왕인 단종의 왕위를 빼앗은 세조의 왕위찬탈사건은 인륜과 법도에 어긋나는 비인륜적인 처사로서 당시 사람들의 증오와 규탄의 대상으로 되고있었다.

소설의 주인공 박생은 이러한 현실에 대하여 《지금 인간세상에는 간악한 신하들이 개떼처럼 날뛰고 큰 란리가 련이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옷자리에 앉은자들은 협박과 위협으로써 착한 일을 하는듯이 가장하여 부질없는 명예만 탐내고있소이다. 그러나 그들이 어찌 그대로 견디여낼수 있으리오? 세상은 반드시 뒤집어지고말것입니다.》라고 울분을 터뜨리고있다.

우로는 지배계급내부에서 왕위를 노린 추악한 권력다툼이 벌어지고 아래로는 반인민적인 폭압정치가 실시되는 세조치하의 현실하에서 그에 반기를 들어 유가의 판을 찢고 시대의 반항아로 방랑의 길에 나선 《생육신》의 한사람인 김시습은 이러한 현실에 눈을 돌려 나라의 정사

를 그르치고 백성들을 도탄속에 몰아넣은 장본인은 다름아닌 봉건왕과 조정의 간신들이라는것을 밝히려고 하였다.

다음으로 《몽유달천록》과 《몽유록》과 같이 반침략애국투쟁시기 나라와 민족의 운명은 아랑곳하지 않고 국가를 위기에 몰아넣은 통치배들의 무능성과 반역적정체를 신랄하게 비판한 작품들도 있다.

실례로 《몽유달천록》을 본다면 이 작품은 임진조국전쟁이 우리 인민의 승리로 끝난 직후에 창작되었다. 소설은 파담자(작가인 윤계선의 호)가 꿈에 달천강가에 이르러 임진조국전쟁시기 희생된 리순신, 고경명, 조현, 김천일 등 27명의 애국명장, 의병장들의 령혼과 만나서 회포를 나누는 《달밤의 모임》에 참가하여 그들의 드높은 애국심과 원쑤격멸의 기세, 이루지 못한 뜻을 두고 비통함을 금치 못해하는 이야기를 듣게 된것을 기본 내용으로 하고있다.

몽유록소설들에서 기본주제로 되는 현실비판적경향성은 반침략애국주제의 소설인 이 작품에도 훌륭히 구현되어있다.

물론 소설에서는 봉건사회의 불합리하고 부패한 측면을 직접적으로 비판한 《남염부주이야기》, 《원생몽유록》 등에서처럼 현실비판의 성격이 전면에 제기되고있지는 않으며 보다는 임진조국전쟁시기 용감히 싸우다 희생된 용사들의 애국심을 부각시키는데 중점을 두고있다.

소설은 이러한 각도에서 이야기를 엮어나가면서도 주로 전쟁의 교훈을 심각하게 반성하는 각도에서 부패무능한 봉건통치배들을 비판하고있다.

뒤집지고 공세우랴  
천만손을 묶어놓고  
현명하던 한신이도  
천년뒤엔 말 못하리

임금님 의주고를  
행차한줄 몰랐기에  
말 못하고 강가에서  
썩은 몸 되었구나

달천강가를 거닐면서 부르는 파담자의 이 시에는 위협에 처한 나라와 민족을 왜적의 칼날밑에 내던지고 살구멍을 찾아 도망친 왕과 봉건통치배들 그리고 무모한 싸움으로 수많은 애국적병사들의 희생만 빚어낸 무능한 봉건정부의 무관들에 대한 작가자신의 치솟는 분노와 울분, 경멸의 감정이 그대로 반영되어있다.

봉건사회현실에 대한 예리한 비판정신은 우에서 본 작품들의에도 봉건사회의 재판제도에 대한 불공정성을 비판한 《순군부녀신의 원한》과 같은 작품들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몽유록소설의 주제사상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또한 어지러운 정사를 바로잡기 위한 사회정치적리상을 적극적으로 구현한것이다.

그러한 작품들로는 《통공의 상량잔치》와 같이 인민들이 착취와 압박을 모르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리상사회에 대한 갈망을 나타낸 작품도 있고 《금화사몽유록》과 《기몽》처럼 폭압적인 군주가 아니라 학문과 도덕으로 잘 수양된 군주의 《어진 정치》에 의해 다스려지는 리상사회에 대한 지향을 그려보인것도 있다. 그리고 공명정대하고 정의로운 인간사회에 대한 강렬한 지향을 《원생몽유록》, 《안빙몽유록》 등의 작품들에서는 인간의 지조와 절개에 관한 문제와의 결부속에 잘 보여주고있다.

특히 신광한의 《안빙몽유록》에서는 사회정치적리상에 대한 문제를 다른 작품들에 비하여 보다 심도있게 보여주고있다.

주인공 안빙은 꿈에 화왕국에 가서 의인화된 꽃의 정령들과 만나 그들과 함께 논다. 그런데 리상세계라고 생각했던 화왕국에도 삶의 가치와 관련해서는 대립이 있었고 인간소외의 현상도 있었다. 그것은 꽃의 정령들이 주연을 빼놓고 시를 짓는 모임에서 확연히 나타난다.

사랑, 작별, 고독 등 처지를 한탄하는 즉 인간의 감정에 호소하는 내용의 시를 짓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지조, 절개 등을 주제로 하여 인간의 사상과 의지에 호소하는 내용의 시를 짓는 부류가 있었다.

시론상의 차이로 빚어진 량자간의 대립은 화초가 지닌 성격과도 관련되어있었다.

부귀를 상징하며 화려한 미모를 최고의 미덕으로 여기는 모란, 배꽃, 복숭아꽃, 이와는 대조적으로 고결함을 상징하고 지조를 최고의 미덕으로 여기는 술, 수양,련꽃 등으로 의인화된 사람들, 거기에 출당화라는 버림받아 쫓겨난 미인도 있다.

주인공 안빙은 그로부터 《부귀영화의 삶》과 《고결한 삶》이 호상 대립되어 존재하고있고 소외된 삶도 있다는것을 깨닫는다.

작품은 꿈에서 깨어난 안빙이 그 어느 리상세계라 할지라도 인간의 삶의 가치와 관련해서는 서로 대립되어있다는것을 깨닫고 부귀영화를 탐내는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경계하는것으로 끝맺고있다.

이를 통해 작품은 인간의 가치는 미모나 부귀에 있는것이 아니라 굳은 지조와 절개에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현실적인 환락을 경계하고 학문에 전념하며 자신을 수양하여 진정한 삶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것을 다른 작품들에 비해 보다 혁신적인 안목에서 음미해주고있다.

몽유록소설은 이와 같은 주제사상을 심도있게 또 형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예술적인 측면에서 등장인물들의 성격과 작품의 양상을 뚜렷이 부각시킬수 있는 특이한 정황, 극적인 대목을 설정하

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대화와 시를 주고 받는 것과 같은 하나의 간결하고 집약적인 구성조직을 활용하고 있다.

또한 구체적이면서도 생동한 묘사으로써 묘사문학으로서의 소설의 체모를 비교적 원숙하게 갖추고 있다.

그러나 몽유록소설은 유학자문인들에 의해 창작된 것으로 하여 공상속에서 그려본 리상사회를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 하는 실천적인 방도와 결부되어 작가의 리상이 그려지지 못하고 봉건적인 충군

사상, 유교사상을 설교하는 것과 같은 세계관적 및 시대계급적 제한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중세 우리 나라에서 창작된 몽유록소설은 그 주제사상적 내용과 인간형상의 창조, 이야기 줄거리의 탐구와 창작방법에 대한 탐구 등에서 특색있는 창작경험을 남겨놓음으로써 우리 나라 중세문학발전에서 일정한 의의를 가진다.

정 은 경

## 외국작가소개

# 제 게 르 스 , 안 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간과 생활을 어떻게 보고 그리는가 하는 것은 창작방법을 규정하는 기본요인이다.》

도이칠란드의 녀류작가인 제게르스, 안나(1900. 11—1983. 6)는 도이칠란드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의 대표자이다. 본명은 네티 라드바니이다. 라인강반의 도시 마인쯔의 중산층가정에서 출생하여 쾰른과 하이델베르크의 종합대학에서 예술학과 어문학을 공부하였다. 대학시절부터 사회주의, 인류의 최고리상사회를 지향하여 결혼후 1927년에 도이칠란드 공산당에 입당하였다. 이 시기를 전후하여 문학창작활동을 시작하였다. 히틀러파쏘정권이 수립되자 1933년에 국외로 추방당하고 그의 모든 작품이 발행금지당하였다. 프랑스와 메히꼬에서 망명생활을 하면서 반파쏘활동을 적극 벌렸다. 파쏘도이칠란드가 패망한 후 1947년에 도이칠란드민주주의공화국에 귀국한 그는 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새로운 사회주의적문학을 창조하기 위한 사업에 모든 힘을 바쳤다. 첫 장편소설 《어부들의 폭동》(1928)으로부터 시작하여 창작생활기간에 《길동무들》(1932), 《2월의 봄》(1935), 《일곱번째 십자가》(1942), 《통파》(1943), 《죽은 사람은 언제까지나 젊다》(1949), 《결심》(1959), 《믿음》(1968)등의 장편소설과 많은 중편 및 단편소설을 내놓았다. 그는 예술원 원사, 세계평화리사회 리사, 국제레닌평화상수여위원회 위원이였다. 그는 1951년에 국제레닌평화상을 받았다.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사회주의에 대한 투철한 신념, 높은 형상성으로 특징적인 그의 창작은 도이칠란드와 유럽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발전에 이바지하였다.

그의 대표작의 하나인 장편소설 《일곱번째 십자가》는 제2차 세계대전직전의 암담하고 복잡한

도이칠란드사회현실을 시대적배경으로 나치스도당의 수용소에 갇혀있던 반파쏘투사들을 포함한 7명의 정치범들의 탈출과정을 기본줄거리로 하고 있다. 나치스도당은 7개의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7일간을 기한으로 7명의 탈출자들을 다 체포하여 십자가에 매달겠다고 미쳐날뛰다. 주인공 게오르그 하이슬러를 비롯한 정치범들은 면밀한 계획밑에 죽음의 수용소를 탈출하였으나 파쏘일당의 수사망에 걸려들어 거의 다 체포된다. 게오르그는 고향도시로 들어서자 이전에 함께 지하사업을 하면서 친했던 처녀 페니를 찾아갔으나 그는 이미 변절하였다. 그와 단호히 갈라진 게오르그는 추격을 피하여 공원속에 숨어있다가 함께 탈출한 필그라베를 만난다. 필그라베는 탈주의 고통을 참을수 없어 자수하자고 말한다. 하여 게오르그는 그와도 결별한다. 그는 이전에 지하투쟁을 할 때 친교가 있던 빠울 퇴다의 집에 찾아갔다가 피신처를 알선받는다. 이전에는 모두 지하조직에 들어 투쟁하였으나 지금은 놈들의 탄압으로 조직적인 투쟁을 벌이지 못하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때를 기다리던 빠울, 피들라와 그의 처, 늙은 크레스박사, 헤르만 등 견실하고 믿음직한 동지들의 도움으로 게오르그는 안전하게 피신할수 있게 된다. 얼마후 그는 이들의 도움으로 외국으로 가는 배를 타고 무사히 망명한다.

작품에서는 수용소장 파펜베르크를 비롯한 교형리들의 잔인성과 그들사이의 모순, 그들의 파멸과정을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의 줄거리를 이루고 있다. 작품은 이러한 이야기줄거리와 인물형상을 통하여 극악한 파쏘통치의 암흑속에서도 도이칠란드의 진정한 애국자들과 인민들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은 그 어떤 힘으로도 막을수 없으며 간고한 시련을 통하여 반드시 승리하고야만한다는 것을 보여주 고 있다.

## 해방전 진보적문예평론가 한식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평론이 없이는 문학의 건전한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해방전 날카로운 문예비평활동으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의 건전한 발전을 추동한 진보적인 작가들 가운데는 시인이며 평론가였던 한식의 이름도 한자리를 차지하고있다.

한식은 1907년 9월 17일 함경남도 함흥교외의 농촌마을에서 출생하였다.

그의 아버지 한인숙은 적지 않은 땅을 가지고 꽤나게 사는 편이었다.

이런데로부터 한식은 다른 집 자식들에 비하여 먹고 입고 사는데서 별로 근심이 없었지만 항상 마음속에 서자라는 설움을 안고있지 않으면 안되었다고 한다.

이러한것은 그가 조국을 떠나 일본으로 갈 때 남겼다는 아래와 같은 시구절이 잘 말해주고있다.

불우한 민족에 불우한 어머니  
이 몸 또한 서자라 불행하구나  
앞을 보니 인생길 비애의 바다  
하지만 음달에도 별들 날 있으리니  
울지 말자 동생아 그날은 꼭 온다

그의 이러한 내적체형과정이 부유한 가정출신으로서 불쌍하고 가난한 근로인민대중을 동정하고 그들과 호흡을 같이한 그의 창작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으리라고 짐작된다. 하지만 어쨌든 그는 부유한 집안환경의 덕으로 소학교를 마친 후 계속하여 주체13(1924)년까지 함흥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일본 도쿄에 건너가 고등사범학교 영문과까지 나오게 되었다.

그러던중 《카프》가 재조직되던 1920년대 말엽부터 이에 참가하여 《카프》의 도쿄지부 간부로 활동하는 한편 문예평론활동을 벌이기 시작하였다. 그는 원래부터 평론에 취미가 있었는데 일본에 건너가기 전 비교적 어린 나이에 《동양문학의 반성》이라는 평론을 어느 신문에 발표하여 사람들을 놀래운적도 있었다고 한다.

성격적으로 보면 한식은 서자라는것으로 하여 늘 조용하고 애수에 찬 얼굴이었으며 비교적 과묵하였으나 일단 열정의 불이 당기면 말을 더듬다가 곧 청산류수로 론리가 째이게 씨알 먹은 소리만 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개성적기질로 하여 한식은 《카프》가 재조직되어 전성기를 이루었다고 말할수 있

는 1920년대말—1930년대초에 도쿄지부조직사업도 맡아보면서 수많은 평론을 썼고 한편으로는 시 작품들도 창작하였다.

당시 《카프》의 재조직에 대하여 보도한 주체16(1927)년 9월 4일부 《조선일보》 기사에는 《서울에 있는 위원으로는 김복진, 최서해, 조명희, 윤기정 기타 등이었으며 동경에 있는 위원으로는 한식 기타가, 대구에서는 리상화가, 원산에서는 박용대 등이 피선되었다.》(방점은 필자)라고 써여있다.

이처럼 한식은 《카프》의 위원의 한사람으로 활동하면서 《카프》의 기관지였던 《예술운동》 제2호 [주체17(1928)년 1—2월 도쿄에서 발행]에 실은 《공식주의자의 견지를 양기하라》를 비롯하여 《카프》의 방향전환과 프로레타리아문학의 목적의식성에 대하여 논술한 《현단계 예술운동이란 무엇인가?》 [주체16(1927)년 7월] 등의 평론들에서 박영희류의 소부르쥬아적《문학주의》에 대하여 비판을 가하고 프로레타리아문예작품창작에서 사회운동에 기여하도록 선구자, 투사의 형상과 정치투쟁, 조직적투쟁의 구체적인 반영 즉 전형적성격, 전형적환경의 목적의식적 반영으로 문예운동과 문예창작을 전환시킬데 대한 궁정적인 요구를 구현하였다.

또한 주체25(1936)년에 발표한 평론 《사회주의리얼리즘의 재인식》 [《조선문학》 2권, 주체25(1936)년 8호] 이라든가 《문화의 민족성과 국제성》 [주체26(1937)년,] 《력사문학의 재인식의 필요》 [주체26(1937)년] 등의 평론들에서 사회주의적사실주의리론을 적극 소개하고 전개하였다.

이렇게 사회주의적사실주의창작방법에 대한 비교적 명확한 견해와 립장을 가지고 진보적문예비평활동을 활발히 벌린것으로 하여 한식은 도쿄에서 《불온》사상이 가득한 글을 썼다는 《죄》로 여러차례 감옥에 감금되기도 하였다.

한번은 그가 주체26(1937)년에 또다시 감금되었다는 소식이 고향에 전해졌는데 그로부터 며칠후에 불쑥 함흥에 나타난적이 있었다. 어머니가 뜻밖에 귀향한 아들을 반겨맞으며 전후사연을 물으니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진행하신 보천보전투승리의 감격적인 소식을 옥중에서 듣고 석방되자마자 조선으로 돌아와 전투현장부터 가보고 돌아오는 길이라고 했다는것이다. 이때 그는 흥남에 있는 한 작가를 찾아가 《조선에 대통령이 났다. 이 나라에 구세주가 왕립하였다.》고 하면서 앞으로 조선의 대통령은 김일성장군님이시라고 확신에

넘쳐 말하였다고 한다.

한식은 그후 다시 도쿄로 건너가 일본땅에 있는 수많은 동포들을 계몽각성시키기 위하여 낮에는 교육사업을 벌리고 밤에는 시와 평론들을 창작하였다. 이 시기 그가 쓴 시들은 시집 《고려춘》, 《지계》 등으로 묶이워져 출판되었다. 이런 시집들에는 나라잃은 민족의 슬픔과 함께 조선민족의 긍지를 노래하고 민족의 넋을 지키며 반일항거를 절규하는 감정이 생동하게 노래되고있다.

주체34(1945)년 봄 한식은 일제의 패망을 예감하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한식은 귀국한 다음 얼마 안 있어 조국해방을 맞이했으며 함흥의 회상지구 첫 공산당원이 되었다. 이와 함께 그는 도문예총위원장을 겸임하면서 함흥사범학교 교장으로 사업하게 되었다.

주체35(1946)년 4월 중순 함경남도에서 현지도 하시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그가 사업하는 학교에서 학생교양을 잘하였다고 분에 넘치는 치하를 하시었다. 여기에서 새힘을 얻은 한식은 그후 교원들속에서 학생들에 대한 정치사상교양을 차요시하고 순수 학문교육을 주장하는 경향을 철저히 배격하면서 교무주임 오기윤 등이 문학의 《무사상성》, 《무계급성》을 고취하기 위하여 교재로 만들어 배포한 자연주의적이고 염세주의적이며 예술시상주의적으로 엮어진 도서 《문장독본》을 모조리 회수소각하고 그자를 학교에서 내쫓는 등 단호한 원칙적조치들을 취하였다.

해방직후의 이러한 준엄하고 벽찬 환경속에서 한식은 정열적인 시창작활동도 벌리었다.

위대한 수령님을 흠모하여마지않던 한식은 당시 《함남일보》의 전신인 《옴다》[주체 35(1946)년 7월 18일부]에 《위대하도다! **김일성장군님**》이라는 수령칭송시를 발표하였다. 지금 이 시는 조선혁명박물관 28호실 1벽

면 중심흠모관에 위대한 수령님의 력사적인 조국 개선환영행사광경을 보도한 신문자료와 나란히 보관되어있다.

한식은 이외에도 민주개혁의 벽찬 현실을 노래한 《비오는 날 밤》[주체34(1945)년], 《증산보》[주체36(1947)년], 《맹세》[주체37(1948)년]를 비롯하여 《등대》, 《평양아》, 《5.1절의 노래》, 풍자시 《반동두목에게》 등 수십편의 시작품들을 창작하였다. 그가운데는 해방후 새 민주조선 건설시기 우리 인민들속에 널리 불리워졌던 《산업전국의 노래》[주체35(1946)년] 가사도 들어있다.

이 시기 그의 작품들은 시집들인 《려명》, 《력사의 기발》, 《조국의 기발》 등 출판물들과 대학교재들에 남아있다.

그뒤 한식은 첫 민주선거때 도인민회의의 대의원으로 피선(선거에서 뽑히는것)되었으며 후에는 평양의 어느 한 대학학장으로 소환되어 일하게 되었으나 조국해방전쟁으로 하여 시련을 겪지 않으면 안되었다. 준엄한 전쟁의 일시적인 전략적후퇴시기 적들이 함흥가까이에 이르자 토끼령을 넘어 북으로 향하던 그는 변절자의 밀고에 의하여 체포되었으며 그날로 사형장에 끌려나갔다. 놈들은 그에게 반공화국, 반사회주의연설을 강요하였으나 그는 끝까지 자기의 절개를 지켰으며 마지막순간에 **《김일성장군 만세!》**를 부르며 장렬한 최후를 마쳤다. ... 주체47(1958)년 7월 고인을 추모하는 모임이 현지에서 진행되었다.

한식은 이처럼 해방전 《카프》시기로부터 해방후 새 민주조선 건설시기에 이르기까지 진보적인 문예평론활동과 시창작활동으로 조선문학사의 한 페이지를 빛내인 애국적인 문필가의 한사람이다.

김 청 송

## 상 식

### 사람의 인내력은 얼마나 강한가

#### △ 굶주림

자료에 의하면 사람은 음식을 먹지 않고 찬물만 마시면서 90일동안 살수 있다고 한다.

#### △ 갈증

사람이 처한 환경온도와 관련되는데 일반적으로 안정된 환경온도인 16~23℃에서 10일간, 26℃에서 9일간, 29℃에서 7일간, 33℃에서 5일간, 36℃에서 3일간 갈증에 견딜수 있다.

#### △ 높은 온도

사람은 72℃의 온도에서 1시간, 82℃에서 33분, 140℃에서 26분 견딜수 있다.

## 상 식

### 호 흡 정 지 때

일반적으로 호흡정지는 가스중독, 물에 빠졌을 때, 감전, 뇌졸중, 머리외상, 심장병 등때 있을수 있다.

환자를 바로 눕히고 머리를 뒤로 젖힌다. 그래야 혀뿌리가 인두벽에서 떨어지면서 기도가 열리고 숨을 쉴수 있다. 이렇게 해서도 숨을 쉬지 못할 때에는 환자의 아래턱을 잡고 당겨올리면서 아래입술이 옷입술에 닿도록 한다. 이와 같이 턱을 뺏다올렸다하는 동작을 여러번 반복하면 숨을 쉴 때가 있다.

## 중세소설가 리옥의 창작적개성

우리 나라 중세 말기 작가의 한사람이었던 리옥은 단편소설창작을 통하여 우리 중세소설문학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한 소설가이다.

리옥(1770-?)은 담정 김려(?-1821)의 막역한 친구였는데 그의 구체적인 생애는 현재까지 전해지지 않고있으며 다만 불우하게 인생을 보냈다는 것만 알려져있다.

리옥은 의인소설, 풍자소설, 인물전기체소설 등 여러 형태의 소설들을 창작하였는데 그가운데서 특히 의의를 가지는것은 인물전기체소설창작이었다.

그는 《류광역전》, 《리홍전》, 《장승전》, 《장봉사전》, 《신아전》 등 여러 인물전기체소설들을 창작하였다. 이 소설들에서 리옥은 당시 사회제도를 비판폭로하고 인민대중의 처지와 마음, 슬기를 반영하였으며 봉건미신의 허황성도 단죄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소설창작에서 중요한것은 도식적인 틀에서 벗어나는것이다.》

리옥은 당시 고루하고 진부한 량반관료들의 낡고 부패한 도식적인 틀에서 벗어나 소설창작을 특색있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인 작가였다.

그가 단편소설을 많이 창작하였기때문에 당시 소설을 《속된 글》로 여기고있던 문단의 고루한 문인들속에서 일정한 물의를 일으켰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담정 김려는 이렇게 썼다.

《어떤 사람들은 리옥의 글을 읽으면서 〈이것은 옛글을 모범받은 글이 아니구만. 조그마하고 보잘것 없는 글이군.〉 라고 비방중상하였다.

나는 그들을 조소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어찌 남의 글을 그렇게 평할수 있는가. 물론 남의 글을 가지고 고품이 있는가 아니면 오늘날의 풍격이 있는가 하는것을 론할수 있다.

그리고 이 글이 긴 글인가 짧은 글인가 하는것도 론할수 있다.

그러되 짧은 글이라고 하여, 그것이 옛글을 본 따지 않았다고 하여 터무니없이 비웃는것은 글의 본질을 모르고 하는자들의 어리석은 말이다.》 (《담정유고》에서)

김려가 쓴바와 같이 리옥은 고품을 따르지 않은 단편소설들을 새롭게 쓰기 위한데 노력을 경주한것으로 하여 당대 고루한 문인들로부터 비평을 받았다. 이것은 그의 단편소설들이 그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특색이 있었음을 실증해주고있다.

동시에 그가 당시에 있어서 개성이 있는 작가였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여기서는 주로 그가 창작한 인물전기체소설들을 통하여 리옥의 창작적개성을 론하기로 한다.

리옥은 인물전기체소설들을 창작함에 있어서 현실주체의 탐구와 해명에서 뚜렷한 개성을 나타내었다. 그것은 그가 가장 평범하면서도 가난하고 비천한 인민출신의 지혜롭고 재능있는 인민들의 생활을 소재로 하고 거기에 당시의 시대모습과 생활을 반영한 의의있는 문제들을 제기한데서 찾아볼수 있다.

물론 그의 소설들에 량반들과 그들의 생활을 주제로 한 작품들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작품들에서도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량반들과 그들의 생활은 당시 사회에서 돈이 없고 권세가 없어 가난하게 사는 인물들이나 그들의 생활들이다.

리옥의 소설들에서 취급되고있는 주제는 량반들의 생활보다도 가난하고 무권리한 사람들의 생활에 더 깊이 침투되고있다. 《신아전》, 《가자 송실술전》, 《협효부전》, 《포호처전》 등 인물전기체형식의 단편소설들을 놓고 볼 때 이것을 잘 알수 있다.

리옥의 소설들에서 제기된 주제들은 력사에 잘 알려지지 않은 평범한 생활들에서 제기된것들이며 당시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체험할수 있는 사회적인 문제들이었다.

그의 소설들에서 제기한 주제는 가난하고 무권리한 인간들의 생활과 운명을 취급하고있는것으로 하여 비판이 심각한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놓고볼 때 리옥은 불우한 인생체험을 하면서 당시 사회를 깊이 투시해보고 가난하고 천대받는 사람들, 불우한 처지에 있는 인간들의 생활과 운명을 자기 소설의 주제로 제기하고 그것을 비교적 의의있게 해명함으로써 당시에 있어서 의의있는 작품들을 많이 창작하였다는것을 알수 있다.

당대 생활에서 흔히 볼수 있는 소재들에서 문제점을 찾아냄으로써 리옥의 소설들은 허망하거나 비과학적이며 환상적인 생활이 아니라 현실에 발을 붙인 《실사구시》적인것이라고 볼수 있다.

리옥은 작품의 주제를 해명함에 있어서 의로운 행동으로 악을 징계하는 덕망이 있는 인물들이 주로 찬양을 받고 봉건관료들이나 부자들이 징벌을 받는것으로 하고있다. 《리홍전》에서는 주인공 리홍의 속임에 넘어가 손해를 보는 부호, 안주절도사의 기생과 그의 아범, 군포를 바치러 왔다가 몽땅 돈을 떼운 시골아전 등이 손해를 보고 언변

이 좋은 리훙이 리득을 보는것으로 사건을 끌고나가고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인민대중의 지혜를 찬양하면서 봉건판도들과 부자들의 부패무능을 비판하고있다.

리옥은 또한 단편소설의 형태적특성을 살리는데서도 개성을 뚜렷이 나타낸 작가였다.

리옥의 단편소설들은 우선 그 분량이 매우 짧은것이 특징적이다.

리옥의 소설들의 분량을 보면 대체로 《최생원전》은 25매정도, 《포호처전》은 10매정도, 《류광억전》은 13매정도, 《협효부전》은 12매정도, 《장복선전》은 13매정도, 《심생전》은 32매정도이다. 이가운데서 《심생전》이 32매정도로서 리옥의 소설들가운데서 비교적 긴 소설이라고 볼수 있으며 그 나머지 작품들은 다 짧은 소설에 속한다.

당시 고루한 문인들속에서 그의 소설을 보고 《조그마하고 보잘것 없는 글》이라고 비방한것이 우연치 않다. 그러나 리옥은 짧은 단편형식속에서 대의 절박한 문제들을 반영하고 해명한것으로 하여 독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었다.

실지로 리옥은 형식만을 중시하면서 짧은 글이라고 하여 보잘것 없는것으로 여기는 현상을 반대하였으며 이것은 그가 당시 사회의 고루한 낡은 틀을 배격하고 글을 짧고 맵시나게 쓰면서 내용의 깊이를 보장하는 창작방법을 탐구하고 거기에 의거하여 소설을 창작하였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리옥은 소설창작에서 여러가지 비유와 대조의 수법을 능숙하게 적용하고 주정토로를 효과있게 쓰는 등 예술적수법의 활용에서도 작가적개성을 보여주었다.

리옥은 소설창작에서 비유와 대조의 수법을 많이 썼는데 그가운데서 적절하면서도 재치있게 리용한 수법은 대비이다.

《장봉사전》에서 리용된 대비의 수법은 량반부

자놈들과 그놈들의 학대와 천대밑에서 날이 갈수록 가난해지는 당시 인민들의 처지를 생동하게 보여주는데 효과있게 쓰이고있다. 《세상의 음식차림이 싱겁던것》이 《달콤해지》고 《성기던것》이 《날로 짭뽕》고 《풍족했던것》이 《날로 가늘》고 《아담했던것》이 《날로 음탕하》고 《옛날에 반만 먹어도 싫던것》이 《묵은것을 씻어버리고도 오히려 남는다》는 대비는 날을 따라 가난해지고 생활이 쪼들려가는 백성들의 가난한 처지를 강조하여 나타내는데 적절하게 리용되고있다.

리옥은 문장서술에서 대조를 비롯하여 여러 수법들을 적극 활용하고있으며 이것은 작품의 내용을 뜻이 깊게 표현하는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대체로 리옥의 소설들은 문장이 까다롭지 않으며 묘사보다 사건서술에 치우치고있다.

그는 소설들에서 사건을 전개할 때 여러가지 극적인 장면들을 도입하여 이야기를 긴장하게 끌고나가는것이 보편적이며 주정토로를 적극 리용하여 자기의 주장을 강조하고있다. 하지만 리옥의 창작은 당대에 있어서 초미의 문제들을 주제로 제기하지 못하고 일부 비교양적인 사실들을 이야기하거나 서술에서 묘사를 위주로 하지 못하고 사건위주로 나감으로써 전기식에 머무른 등 일련의 제한성도 나타내었다.

그러나 리옥은 당시에 있어서 의의있는 문제들을 제기하고 그것을 깊이있게 해명한것으로 하여 단편소설창작에서 개성이 뚜렷한 작가, 이름있는 소설가로서의 명성을 떨쳤다.

우리는 우리 민족사에 풍부한 문학예술유산을 남긴 재능있는 작가들을 더 많이 발굴하고 그들의 작품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켜나가야 할것이다.

최 준 희

## 세계작가일화

### 아버지와 의 대결

로씨야의 작가 푸르게네브(1818-1883)에 대한 이야기이다.

어린시절에 작가는 동네애들을 데리고 숲속에 들어가 책도 읽어주고 뛰놀다가 해질녘에 집으로 돌아왔다. 아버지가 그를 엄하게 꾸짖었다.

《종놈들과 놀지 말라구 했는데 넌 왜 말을 듣지 않느냐? 그래 창피하지도 않냐?》

《창피하다니요?》

《거지새끼들과 뿔뿔히 떨어져다니며 노는게 창피스

럽지 않느냐 말이다.》

《뭐가 창피하단 말이예요?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을 하녀로 쓰고 식모로 쓰는건 창피스럽지 않나요?》

《뭐라구? 이 녀석아.》

《귀족부인들을 하녀로 쓰고 식모로 써야 창피스럽지 않고 떳떳할게 아니냐요?》

《뭐라구? 이 녀석.》

아버지가 회초리를 찾는 사이에 어린 푸르게네브는 뛰쳐나와 밖으로 내뺐다.



## 시대가 요구하는 자질 몇가지

### —전문지식

새시대는 과학과 예술의 시대이다. 과학기술의 발전높이는 자기가 선택한 분야에 대한 구체적이고 깊이있는 전문지식을 소유할것을 요구하고있다.

### —컴퓨터

지난날 문맹자는 세상을 깨달을수 없고 세계변혁에 이바지할수 없었던것처럼 정보산업시대에 와서 컴퓨터를 모르는 사람은 새 환경에 적응하기 힘들고 더우기 사회발전에 기여할수 없다.

### —속독, 속기

빨리 읽고 빨리 쓰는것, 이것은 새시대를 인식하는데서 익혀야 할 중요한 방식이다.

세계적으로 정보가 사태처럼 쏟아져나오고있다.

오죽했으면 정보의 량을 바다에 비기겠는가.

과거에는 속독, 속기가 특정한 명인들이 소유할수 있는 자질로 간주되었지만 새 환경은 현시대사람들에게 필수적자질의 하나로 요구하고있다.

### —외국어

사람들의 련계가 밀접해지고 그만큼 폭넓어

졌다.

이러한 긴밀한 협조속에서 세계가 전진하고있으니 그 의사교환의 기본수단인 외국어를 소유하는것은 그야말로 필수적자질이다.

### —예술적소양, 체력검비

지금 세계적으로 21세기를 개별적인간들의 성품적전지에서 고찰해보면 현세기는 지성의 세기, 건강의 세기라고도 말하고있다.

하다면 지성도를 예술과 떼어놓고 말할수 있는가. 그리고 건강 역시 튼튼한 체력없이 담보되지 않는것이다.

높은 예술적소양, 체육활동은 인간을 고상하고 건전하게 그리고 튼튼하게 완성시켜준다.

